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최근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고등교육에서의 성평등교육 강화방안으로 국·공립대 여성교원 확대, 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과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성평등교육 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평등제도 부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학 내에서 캠퍼스 미투, 성차별을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의 여성학 관련 강좌가 줄어들어 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재 대학 중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성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37.1%에 불과하며, 성폭력 피해 학생 중 1.3%만이 교내 성폭력 상담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학 성평등기구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성평등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대학별 정규과정 및 비정규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자문과 평가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대학생, 대학교 성평등기구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이 연구가 대학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_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3. 연구 추진체계	8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_9

1.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검토	11
1) 선행연구 검토	11
(1) 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	11
(2)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타 요인과의 관계 연구	13
(3) 대학생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15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	17
1) 교육부	17
2) 여성가족부	19
3) 서울시	21
3. 시사점	22

Ⅲ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의식 _ 25

1. 조사개요	27
1) 조사설계	27
2) 주요 조사항목 및 측정도구	30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2. 조사결과	33
1) 성평등의식	33
(1) 성역할 고정관념	33
(2)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45
(3) 폭력에 대한 인식	55
2) 교육경험	68
(1) 성평등 교과목 수강 경험	68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71
3) 학교·가족·사회생활	73
(1) 학내 성평등 정도	73
(2) 성차별 경험	75
(3)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	77
(4) 성폭력 경험	78
3. 시사점	86

IV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 _ 91

- 1.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현황 93
 - 1) 조사개요 93
 - 2)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 현황 96
 - (1) 4년제 일반대학 96
 - (2) 4년제 특수대학, 여자대학 및 신학대학 105
 - (3) 전문대학 113
- 2. 성평등교육 비정규교과 운영현황 116
 - 1) 최근 3년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현황 116
 - 2) 최근 3년간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현황 120
- 3. 시사점 124

V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_ 127

: 대학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 1. 조사개요 129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29
 - 2) 조사내용 131
- 2. 대학 내 성평등기구 현황 132

3. 대학 성평등기구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134
1)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추진 현황	134
2)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137
4. 상담 및 사건처리	146
5.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151

VI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_ 159

1. 중앙정부	161
1) 교육부	161
2) 여성가족부	163
2. 서울시	169
1) 교육내용 다각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연구	169
2)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변호사(가칭)’ 시범 운영	170
3)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 대상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	172

참고문헌_ 174

Abstract_ 179

대학생 성평등의식 설문조사지_ 184

대학교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현황조사 설문지_ 193

표 목차

표 I-1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7
표 III-1	2017 서울시 소재 대학 현황	27
표 III-2	2017년 기준 전국 및 서울시 대학생 현황	28
표 III-3	표본 구성표	29
표 III-4	주요 조사항목 및 측정도구 신뢰도	31
표 III-5	대학생 성평등의식조사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32
표 III-6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전체	33
표 III-7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34
표 III-8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36
표 III-9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37
표 III-10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	39
표 III-11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40
표 III-12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41
표 III-13	이성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표 III-14	성별고정관념 - 요인별 차이분석	45
표 III-15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전체	46
표 III-16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7
표 III-17	나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한 후 복직하여 나보다 먼저 승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있다.	48
표 III-18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49
표 III-19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51
표 III-20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같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2
표 III-21	성평등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53
표 III-22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 요인별 차이분석	55
표 III-23	폭력에 대한 인식 - 전체	56
표 III-24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57

Contents

【 표 III-25 】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58
【 표 III-26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60
【 표 III-27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1
【 표 III-28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62
【 표 III-29 】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64
【 표 III-30 】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65
【 표 III-31 】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66
【 표 III-32 】	폭력에 대한 인식 - 요인별 차이분석	68
【 표 III-33 】	성평등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69
【 표 III-34 】	성평등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70
【 표 III-35 】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72
【 표 III-36 】	성폭력예방교육 진행 방법- 중복 응답	73
【 표 III-37 】	학내 성평등 정도	74
【 표 III-38 】	대학에서 성평등 실현이 어려운 이유	75
【 표 III-39 】	성폭력 피해 경험 현황	79
【 표 III-40 】	성폭력 피해 시 대응 형태	81
【 표 III-41 】	성폭력 피해 시 소극적 대응 이유	81
【 표 III-42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이용 경험	82
【 표 III-43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미이용 이유(중복응답)	83
【 표 III-44 】	대학 내 발생 성폭력 사건 관련 시급히 해결할 문제	84
【 표 III-45 】	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이 주력해야 할 노력	85
【 표 IV-1 】	조사대상 대학	94
【 표 IV-2 】	대학별 분석자료	95
【 표 IV-3 】	4년제 일반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99
【 표 IV-4 】	4년제 특수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106
【 표 IV-5 】	4년제 여자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108
【 표 IV-6 】	4년제 신학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111
【 표 IV-7 】	일반 전문대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114
【 표 IV-8 】	여자 전문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115
【 표 IV-9 】	서울시 소재 대학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117
【 표 IV-10 】	서울시 소재 대학별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121
【 표 V-1 】	설문조사 참여 대학 현황	130

【표 V-2】	심층 면접 참여자	130
【표 V-3】	설문조사 내용	131
【표 V-4】	심층 면접 조사 내용	132
【표 V-5】	학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 현황	133
【표 V-6】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담당자 유무	134
【표 V-7】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2017년/단, 폭력예방교육 제외)	135
【표 V-8】	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프로그램(폭력예방교육 제외) 진행 현황 ·	135
【표 V-9】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횟수(2017년)	139
【표 V-10】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2017년)	139
【표 V-11】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시 가장 큰 어려움- 중복응답	140
【표 V-12】	전년도(2017년)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유형- 중복응답	142
【표 V-13】	전년도(2017년) 성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중복응답)	143
【표 V-14】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중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방식(2017년/중복응답)	144
【표 V-15】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145
【표 V-16】	성평등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46
【표 V-17】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유형-중복응답	146
【표 V-18】	사건 처리 관련 지원업무-중복응답	147
【표 V-19】	최근 진행한 상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내용	147
【표 V-20】	사건 처리의 가장 큰 어려움	148
【표 V-21】	학내 상담센터의 상담활동 현황	149
【표 V-22】	상담활동이 저조한 이유	150
【표 V-2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측에 제안사항	151
【표 V-24】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제안사항	156
【표 VI-1】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164
【표 VI-2】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성희롱 방지조치	165
【표 VI-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현황	172

그림 목차

【그림 III-1】 성차별 경험 - 전체	76
【그림 III-2】 성차별 경험 유형 - 성별	76
【그림 III-3】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전체	77
【그림 III-4】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성별	78
【그림 III-5】 성폭력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80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대학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대학에서의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여성학 학위과정의 구조 조정 문제가 등장하였고, 여성학 교양과목 및 연계 전공, 복수 전공 수강생들도 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점점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면서 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성평등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현황
 - 성역할 고정관념, 성불평등한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통념
 -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학내 성평등기구 이용 경험 분석
-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운영현황 분석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분석
 - 대학 내 성평등기구 설치형태, 전담 인력 배치 현황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현황, 개선의견 등
-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조사 :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1,000명 대상 면접조사
- 대학별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조사
 - 정규교과 : 교양과정, 전공과정에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
 - 비정규 교과 :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조사 : 서울시 소재 52개 대학 대상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서울시 소재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 -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타 요인과의 관계 연구 - 대학생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성평등의식 현황 - 대학 성평등교육 주요 이슈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련 정책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3차,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1차,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 데이트폭력 방지대책(2016)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 -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대학 성평등 추진정책 - 서울시의 대학 성평등 추진정책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의식 -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 교육경험 - 학교, 가족, 사회생활 - 일반사항
성평등교육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요람 -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수요목, 교육과정표) 안내 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정규교과(교양과정, 전공과정) 중 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안내(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강의계획안) - 학과별 전공과목 현황, 기초교양대학 교육과정 현황, 강의시간표, 학사공지 사항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별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3개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면접 : 대학 내 성평등기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 처리 현황 - 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 비정규 교과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젠더의식교육 현황 - 희망 지원정책, 제도개선 방안 등

2. 연구결과

□ 성평등의식

○ 성역할 고정관념

-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반면, 학과 내에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인문/사회과학 전공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남.
-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남. 그러나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여자대학이 남녀공학보다 높게 나타남.
- 교육경험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관련 통념

-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대학 학제별로는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성폭력 관련 통념이 높게 나타남.
-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관련 통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교육 관련 경험

○ 성평등 교과목 수강 경험

-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13.3%만이 교양교과 또는 전공교과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함.

○ 성폭력예방교육 수강 경험

- 지난 1년 동안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성평등 교과목(정규교과) 이외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8%임. 전반적으로 성평등 교과목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임.

□ 성차별 및 성폭력 피해 경험

○ 성차별 경험

-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자 대학생의 45.2%는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남성은 응답자의 11.7%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폭력 피해 경험

- 지난 1년 동안 전체 응답자의 30.3%가 대학 내에서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평균 피해 횟수는 2.5회임.
- 성폭력 가해자는 학과동기(60.3%), 학과선배(43.9%), 동아리 선배(16.4%), 동아리 동기(10.8%), 학과 및 타학과 교수(9.2%), 학과 후배(7.9%) 순임.
- 이러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

생들이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건처리 전문성 결여(25.6%)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19.9%), 교내 성폭력상담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17.3%), 교내 성폭력 상담기구 부재(11.3%) 등임.

□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

○ 성평등 교과목 개설현황

- 대학별로 정규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은 대학 규모 및 대학 유형, 학제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 4년제 일반대 중 대규모 대학과 일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과목이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 중 소규모 대학과 특수대학, 신학대학 등은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매우 저조함.
- 성평등 교과목은 주로 인문, 사회계열에 개설되어 있으며 공대, 자연계열 분야에서는 성평등 관련 강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주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드물었음.
-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정규교과에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대학 학제 및 규모에 따른 성평등교육의 격차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 대학에서 성평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은 대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2014년 40.4%, 2015년 39.9%, 2016년 39.3%임. 또한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 역시 2014년 32.0%, 2015년 35.0%, 2016년 34.4%로 저조한 수준임.

□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현황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 설치 형태

-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학의 60.0%가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설기구를 설치하거나 센터 내에서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독립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37.1%에 불과하며, 교무처, 학생처 등 학내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 2.9%를 차지하고 있음.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직원이 배치된 대학은 31.4%에 그쳤으며, 57.1%의 대학은 일반 상담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도 11.5%를 차지하고 있음.

○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시 어려움

- 학생 참여 강제제도가 없음(54.3%), 상담 외 업무과다(31.4%), 예산지원 부족(17.1%), 학생들의 무관심(14.3%), 강사섭외(8.6%) 순으로 응답함.

○ 상담 현황

- 최근 대학에서 진행한 상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담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질의가 34.3%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식절차 요건에 대한 문의 28.6%, 본인의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 의뢰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이 각각 17.4%로 나타남.

○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요청하는 제안사항

- 성평등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대학 내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역량강화, 자문기구 설치,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인력확충 및 지원, 상담사의 고용 안정화, 독립적인 성평등기구 설치 순으로 응답함.

3.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

구분	추진방향	개선과제
중앙 정부	대학별 성평등 교과목 점검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 - 대학별 성평등 교과목 강의계획서, 세부 교육내용, 교수자의 젠더 분야 전문성 평가 - 성평등 교과목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 검 지표 개선	→ - 모집단이 큰 학생 중심으로 교육참여지표 개선 - 부진기관 기준 강화 : 대학생 교육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부진기관에 포함 - 가점사항 개선: 성평등 교과목 개설수, 성평등 교 과목 학생 이수율 포함 - 대학 성평등기구 전문성 강화 지표 신설
	대학(원) 신입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방식 개선	→ - 교육시기 및 교육참여 인원 조정 - 대학 규모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대학생 성평등의식을 반영한 성폭력예방교 육 추진	→ - 성평등 관점 강화 및 통합교육 추진 - 성별과 대학 학제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 학과 단위별 성폭력예방교육 지속 확대
서울시	교육내용 다각화, 교 육콘텐츠 개발 및 연 구	→ -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교육(데이트 폭력예방)」 교육내용 및 범위 확장 - 교대, 사범대 교직과목과 연계한 전략적 교육지원 -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관련 연구 지속 진행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변호사(가칭) 제도」 시범운영	→ - 성희롱·성폭력 전문 변호사 자문 지원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 자 역량강화	→ - 강사역량강화(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지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고등교육법 제28조). 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 역시 잘 담아내야 하는 책무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송인자, 2016).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미투운동(Me Too)’ 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적발 건수가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 성폭력은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성범죄는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1)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520>(대전투데이 뉴스, 2018. 3. 20. 검색)

한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 내 성평등 교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대학생)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고등교육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립대 여성교원 확대 및 성평등 추진 실적 우수 국립대학 선정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정비 및 교원징계 기준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2015~2017), 제2차(2018~202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적극적 실시와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성평등제도 부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학 내에서 캠퍼스 미투, 성차별을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안상수 외, 2011).

서울시 역시 대학 내 성차별 및 왜곡된 통념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5개 대학과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부터 데이트 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2016; 서울시, 2018).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대학에서의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안에서는 젠더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성평등교육은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최문선, 2011).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여성학 학위과정의 구조조정 문제가 등장하였고, 여성학 교양과목 및 연계 전공, 복수 전공 수강생들도 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이나영, 2011).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점차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면서 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성평등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을 파악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학 사회가 결코 평등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이 성평등 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영희·강혜원, 2009).

둘째,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이며, 성평등의식 함양과 성평등 문화 실천, 성차별 관행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배유경, 2015).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정규과정에 개설된 여성학/젠더 관련 성평등 교과목과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소재 대학별 성평등교육 추진 현황은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에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과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현황 및 사건처리,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추진방식과 젠더의식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분석한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560,32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²⁾ 그러나 서울시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관련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으며, 대학 내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2017년 기준 전국 및 서울시 대학생 현황, 교육통계(<http://kess.kedi.re.kr/index.>).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소재 대학별 성평등 교육과정 조사, 대학 내 성평등기구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로 대학생 성평등의식,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타 요인과의 관계 연구, 대학생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를 고찰한다. 한편,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학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한계점, 시사점을 분석한다. 중앙정부의 대학 성평등 관련 정책은 「제2차~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1차~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는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운영계획」 및 「데이트 폭력방지대책」, 「성희롱·성폭력 없는 도시서울 추진계획」을 검토한다.

둘째,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성평등의식 조사는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과목 수강경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학내 성평등 정도, 성차별 경험,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 학내 성폭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 등 정규교과에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 운영현황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자료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요람, 교육과정(교육과목, 교수요목, 교육과정표) 안내(편람)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대학요람과 교육과정 안내(편람)를 통해 학사규정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대학요람과 교육과정 안내(편람) 등이 없는 일부 대학은 학과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공과목 현황, 기초교양대학 교육과정 현황, 학사공지사항 등에 게시된 강의시간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현황을 분석한다. 추진실적은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 대학별 최근 3개년 자료를 분석한다.

넷째, 대학 내 성평등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현황, 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 비정규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젠더의식교육 프로그램 현황, 업무 추진시 어려운 점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의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I-1**과 같다.

표 I-1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 -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타 요인과의 관계 연구 - 대학생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성평등의식 현황 - 대학 성평등교육 주요 이슈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련 정책과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3차,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1차,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 데이트폭력 방지대책(2016)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 -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대학 성평등 추진정책 - 서울시의 대학 성평등 추진정책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의식 -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경험 - 학교, 가족, 사회생활 - 일반사항
성평등교육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요람 -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수요목, 교육과정표) 안내 편람 - 학사안내(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강의계획안) - 학과별 전공과목 현황, 기초교양대학 교육과정 현황, 강의시간표, 학사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정규교과(교양과정, 전공과정) 중 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 - 각 대학별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3개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면접 : 대학 내 성평등기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 처리 현황 - 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 비정규 교과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젠더의식교육 현황 - 희망 지원정책, 제도개선 방안 등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Ⅲ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검토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은 김양희·정경아(1999)가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검사도구는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전체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우며,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채택하지 않을 것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호의적 태도’ 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고 있다(김양희·정경아, 1999; 안상수 외, 2011).

먼저, 최덕경 외(2004)가 경기, 강원, 충청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에서 중간 점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로 과거의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볼 때 절대적인 체감 수준에서 남녀평등 실현 점수는 그리 높은 점수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김영희·강혜원(2009)에 의해 진행된 경기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결과에서는 전체 집단의 성평등의식 전체 점수는 47.5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점수는 1.90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안상수 외(2011)가 전국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성평등의식은 2010년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20대 직장인에 비해 낮았고, 2008년 국민양성평등의식조사에서 나타난 20대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전남에 위치한 4년제 대학(1개교)을 중심으로 진행한 정은숙(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정도는 4점 만점에 1.9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영란 외(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정도는 4점 만점에 3.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주현 외(2017)가 K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체 연구대상자의 성평등의식은 4점 만점에 3.14 ± 0.35 점으로 평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에 따라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이 낮은 편, 높은 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이 특정대학에 한정되어 있거나 표본수가 적어 편향적 표본추출의 가능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부 연구는 전국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전국 단위 조사 규모에 비해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적인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관련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욱 평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성평등의식 수준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이 낮은 경우 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원경(2007)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의식은 나이가 적을수록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이 자연계열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경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수준을 조사한 김영희·

강혜원(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20세 이하 연령이 21세 이상 연령보다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학업 내용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회적 현실에 개방적이고 성평등적일 수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최지연 외(2009)가 진행한 초등교육 전공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관련 연구에서는 남자 예비교사의 성평등의식 수준(2.81)이 여자 예비교사보다(2.54)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성평등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교사가 높은 수준의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공학, 여자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 예비교사의 성평등의식이 여자 예비교사보다 높은 이유와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교사의 성평등의식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최문선(2011)은 서울에 소재한 사범대 사회과 예비교사(대학생)를 대상으로 젠더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젠더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했으며 젠더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젠더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고, 젠더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상수 외(2011)의 연구에서도 사범계 학생의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문대나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타 요인과의 관계 연구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은 업무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의식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김은주 외(2014)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간호사

의 업무에 대해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있어 성평등의식 저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학의 특성상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임상실습과 이론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역할이나 성평등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성평등의식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성평등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윤은자 외(2012)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과 중심의 간호학 교과과정에서는 성역할, 성평등과 같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이 김주현 외(2017)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평등의식 수준은 낮은 반면, 남학생의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스트레스는 더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자·변은경(2017)의 연구 역시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유문숙 외(2012)는 남녀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대학생 모두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수용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성에 관한 태도와 성희롱 통념 수용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평등의식이 낮고 성적인 태도가 개방적일 경우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역할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권력과 힘에 의해 차등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을 권력의 축이 되게 함으로써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이 불복종할 경우 강한 제재와 응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배와 통제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고정화된 성역할에 대한 신념은 남녀 간의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윤진 외, 2012). 대학생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

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의 관계를 분석한 이은숙·강희순(2014)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 외(2012)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대학생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국립대학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성평등교육 현황 연구와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먼저, 김수경(2016)은 우리나라 대학의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38개 국립대학 중 성평등 교과 운영실적이 있는 18개 대학이며, 각 대학의 2015년도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성평등교육은 대학 구성원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대학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별로 명확한 운영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제목에 포함시키거나 여성이 교육대상인 프로그램을 성평등교육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정규교과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전체 국립대학(38개교) 중 대학생 대상 성평등 교과 및 비교과 운영 실적이 있는 대학만(18개교)을 연구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즉, ‘2015년도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보고서’에서 성평등교육 추진실적이 없는 대학(20개교)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체적인 국립대학의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 역시 성평등교육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①젠더의식교육, ②진로설계지도, ③직무능력훈련, ④취업역량강화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평등교육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이성흠(2010)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부와³⁾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발·배포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과 면대면 강의기법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면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 모두 성평등의식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대면 강의가 온라인 강의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학의 성평등교육 중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행되었다. 안상수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남자 대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피해 당사자인 여성에게서 찾는 경향은 예방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영란 외(2013)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8.1%였다. 그러나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간의 성희롱 인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이루어져 온 성희롱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부문은 신설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과학기술 부문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2.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

1)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교수직의 불균형적인 성별 분포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2003년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공립대학 여교수 임용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16).

특히, 교육부는 2007년부터 2단계 여성교수 임용목표제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각 대학의 성평등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거의 부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비록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서의 성평등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언하자면, 이와 같은 교육부의 성평등정책이 추진된 이후 국립대학은 교육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성평등교육을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시행함으로써 대학 내 학생들에게 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김수경, 2016).

또한 성희롱예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의 정비, 성희롱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관 성희롱, 성폭력예방종합대책(2005. 10)」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작·발간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 교수·학생용 성희롱예방교육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CD를 개발·보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학 성희롱예방교육 영상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대학들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학내 규정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고 성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 체계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아울러, 각 대학 성희롱 전담부서의 상담실무자를 중심으로 정보교류 및 자문활동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혜숙, 2010).

한편,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성평등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한 이래 매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의 성평등교육정책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성평등교육정책 전담부서 체제가 사라지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정해숙 외, 2013).

2013년 이후 대학교육에서의 성평등적 운영강화와 관련된 교육부의 추진과제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제1차(2015~201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성평등 관련 교양강좌 운영 및 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 대한 성평등교육(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등)을 지원한다.

둘째, 취업률, 학생선발, 신입생, 재학생, 연구비 수해 실적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의무화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의 성평등 교과목 개설 및 강사비 지원 등 예비교원(대학생)의 성평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학교와 대학에서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3월 5일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분야 대책은 ①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②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조직적 은폐,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실시, ③ 2018년 하반기부터 대학정보공시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항목 반영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8).

위의 계획에 의해 대학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현황은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academyinfo.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모일간지가 각 대학에 안내한 교육부의 대학 정보공시지침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만 ‘O, X’로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되었으며, 현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다.

대학에서 실제교육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나 교수·학생의 참여율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대학 홈페이지에 성폭력예방 동영상만 올려놓아도 정보공시 사이트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X’로 표시 할 대학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O’ 표시할 정보를 미투운동의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⁵⁾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대학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관부처 과제에 초점을 맞춰 대학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경력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산업체와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을 지원한다.

둘째,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을 지원한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여성과학기술 인재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등에 여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셋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원) 교과과정에 성인지 정책 이해와 실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5) <https://blog.naver.com/zzinopak/221237496627>(중앙일보, 대학 성폭력예방교육 실태 공개한다더니, 눈가리고 아웅, 2018. 3.22.)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되었다. 본 계획 중에서는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대응 강화과제가 일부 추가되었다. 추가된 과제를 살펴보면,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예방을 위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통해 대학생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대학생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자 대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2월~3월 OT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또한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상담실) 설치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핫라인 구축,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 연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체계이다.

이어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대학 내 여성폭력예방교육 개선을 위해 ①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 반영, ②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양과목 및 특강 활성화 권장, ③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을 위한 자체 인식 개선 활동(동아리 등) 강화 권장, ④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권장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대학 내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앞서 교육부의 대학 성평등 관련 정책에서 이미 언급된 추진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우 부족하며, 교육부에 권장하거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서울시

최근 대학에서는 단독방, 학과 MT 등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나 연인 간의 지나친 통제, 불법카메라 촬영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안심서울, 여성안심 캠퍼스’ 사업을 첫 시행하였다(서울시, 2016). ‘안심서울, 여성안심 캠퍼스’ 사업은 성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2,3,4년제) 및 대학생(대학원생) 모임을 대상으로 1,162명(총 30회) 교육이 이루어졌다(서울시 내부자료, 2016).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데이트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춰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1,056명)을 대상으로 총 29회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 내의 성평등의식 확산과 학내 성폭력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 캠퍼스’를 지정하고 지난 11월 22일 5개 대학(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성대)과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①신입생, 재학생 대상 대학폭력예방교육실시, ②학내 데이트·성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③데이트 성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등이다. 아울러, 최근 교환학생(중국, 베트남 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및 성인식 차이로 인해 학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 2017).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사업은 2018년부터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여 데이트 폭력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대학 문화 및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학생 대상 데이트 폭력예방교육 규모는 작년보다 2배 이상(2,000명, 50회) 확대되었으며, 2017년 MOU를 진행한 대학을 대상으로 성평등 토크콘서트, 성평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조자경, 2018).

한편,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성차별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교육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와 대학교의 성평등교육 강화가 세부과제에 포

함되어 있다. 특히, 대학 내 성평등의식 확산과 성폭력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 캠퍼스 지정을 확대하여 MOU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교육대상이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직원 및 교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 2018a).

3. 시사점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에서의 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 내 성평등 교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대학별로 성평등교육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교원 및 예비교원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수, 대학교 직원, 시간강사에 대한 성평등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지원한다. 또한 교육대 및 사범대 교직과목에 성평등 관련 내용 편성 운영 등 예비교원(대학생)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여성교원 확대 지원과 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수정·보완되면서 추가된 과제는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이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고자 대학 정보 공시 항목에 젠더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등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6년부터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사업을 통해 대학생 대상 테이트 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퍼스를 지정하여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은 성평등교육이 교양

과목에 포함되도록 권장하는 것과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학 내에서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를 통해 성평등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서울 지역 대학들이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에서 성평등교육이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대학 정규과정에서 개설된 성평등교육을 어느 정도 수강하고 있는지, 교육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대학생 성평등의식 관련 연구들은 특정지역(지방) 또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성평등의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국한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을 성역할 고정관념에 한정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통념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교육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의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의식

1. 조사개요

1) 조사설계

대학생 성평등의식 조사를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설계를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을 대학 학제에 따라 대학교(4년제)와 전문대학(2~3년제)으로 대분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대학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대학교(4년제)는 일반대, 여대, 특수대, 신학대로 구분하고, 전문대학(2~3년제)은 일반대와 여대로 범주화하였다.⁶⁾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소속된 조사원이 실사과정에 투입되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8년 5월 2일 ~ 6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 표 III-1 ■ 2017 서울시 소재 대학 현황

구분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2/3년제)
합계	43	9(13)
일반대	25	5
특수대(교육, 예술, 체육, 육사)	5	-
여자대	6	4
신학대	7	-
기능대(폴리텍 대학)	-	(1)
전공대(예술대)	-	(3)

자료 : 2018 공시대상 대학 목록(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재구성.

6)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에 분교가 있는 대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기능대, 2년제 전공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 규모는 1,000명이다. 본 조사를 위해서 모집단에 대해 대학 학제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1차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2차 분류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학생 성별(남학생 51.6%, 여학생 48.4%) 분포에 따라 진행되었다.

【표 III-2】 2017년 기준 전국 및 서울시 대학생 현황

구분	전국			서울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총계	2,769,522	1,633,014	1,136,508	560,323	288,933	271,390
대학교	2,050,619	1,210,690	839,929	499,021	259,664	239,357
전문대학	677,721	399,475	278,246	57,653	27,089	30,564
교육대학	15,839	4,851	10,988	1,592	357	1,235
산업대학	25,343	17,998	7,345	2,057	1,823	234

자료 : 교육통계(<http://kess.kedi.re.kr/index.>)

성별에 대해 단순 비례 할당 시 여자대학 할당 표본에서 남성 표본이 추출되지 않아 조사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의 경우 적정 조사 샘플 수 확보를 위해 강제표본 할당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표본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대학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대상자는 아래 【표 III-3】 과 같이 최종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내에서 성별, 학년, 전공 등에 대한 할당을 진행하여 편향된 표본이 추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 Ⅲ-3】 표본 구성표

권역	대학유형	학제	대학교명	표본수		
				남자	여자	총계
도심권	남녀공학	4년제	성균관대학교	29	17	46
	남녀공학	4년제	동국대학교	28	17	45
	여자대학교	4년제	숙명여자대학교	0	20	20
	여자대학교	2-3년제	숭의여자대학교	0	20	20
동남권	남녀공학	4년제	가톨릭대학교	15	13	28
	남녀공학	4년제	한국체육대학교	14	14	28
	남녀공학	4년제	경희대학교	25	17	42
	남녀공학	4년제	고려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4년제	한국외국어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4년제	건국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4년제	한양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4년제	국민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2-4년제	인덕대학교	39	16	55
	남녀공학	4년제	세종대학교	25	16	41
	남녀공학	4년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	16	42
	여자대학교	4년제	서울여자대학교	0	20	20
	여자대학교	2-4년제	한양여자대학교	0	20	20
	여자대학교	4년제	성신여자대학교	0	20	20
서남권	남녀공학	4년제	중앙대학교	22	21	43
	남녀공학	4년제	서울대학교	22	21	43
	남녀공학	2-4년제	동양미래대학교	27	24	51
	남녀공학	4년제	송실대학교	23	21	44
서북권	남녀공학	4년제	연세대학교	19	14	33
	남녀공학	4년제	홍익대학교	19	14	33
	남녀공학	4년제	경기대학교	19	14	33
	남녀공학	4년제	명지대학교	19	14	33
	남녀공학	4년제	서강대학교	20	15	35
	남녀공학	2-3년제	명지전문대학	6	14	20
합계	4개 권역 28개 대학			522	478	1000

2) 주요 조사항목 및 측정도구

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 Gender Equalitarianism Scale : KGES)이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문항은 1999년 개발된 이후 수차례 개정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각종 성평등 관련 의식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검사 척도는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젠더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태도,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행위 규범에 대한 태도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김영희·강혜원, 2009; 안상수 외, 2016).

기존의 성평등의식조사 관련 선행 연구들은 성평등의식이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치중되어 있어 요즘 대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평등의식 범위를 확장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조사항목 설계는 안상수 외(2011)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과 2016년 개정작업을 거친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 척도를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형욱 외(2016)의 경기도민 성평등의식 및 정책수요조사와 2016년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문항을 일부 발췌하였으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6 양성평등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성평등의식 관련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성평등의식과 성평등교육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평등 교과목 개설 및 이수현황, 성폭력예방교육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의 학교·가족·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경험 및 대응 방식, 대학 내 성폭력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척도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조사문항은 전문가 자문, 서면자문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 조사항목 구성현황과 관련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 **표 III-4**와 같다.

【 표 III-4 】 주요 조사항목 및 측정도구 신뢰도

구분	조사내용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성평등의식	성역할고정관념	7	.88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6	.664
	폭력에 대한 인식	8	.857
교육경험	성평등교과목 개설 및 수강현황	4	-
	성폭력예방교육 경험 및 교육방식	3	-
학교·가족·사회생활	성차별 경험,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수준	2	-
	학내 성폭력 피해경험 및 대응현황	7	-
	대학 성폭력 사건 해결과제 및 예방노력	2	-
일반사항	성별, 학제, 대학유형, 여학생 비율, 전공	8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1,006명) 중 남성은 51.9%, 여성이 48.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21세 미만 41.5%, 만21세 ~ 만24세 미만 40.7%, 만 24세 이상 17.8%이다. 학년별로는 대학교 1학년 25.6%, 2학년 26.5%, 3학년 26.4%, 4학년 21.5%이다. 또한 대학유형/학제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 90.1%, 여자대학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82.9%, 전문대학은 17.1%가 분포되어 있다.

한편, 전공별로는 인문 17.3%, 사회과학 12.3%, 경영/경제 19.9%, 생활과학/생명과학 6.6%, 자연과학 5.4%, 공과대학 22.1%, 사범대 2.2%, 예술/체육 12.6%, 자유전공/기타 1.6%이다. 학과 여학생 비율에 따라서는 30% 미만이 20.2%, 30% 이상 ~ 50% 미만 32.9%, 50% 이상 ~ 70% 미만 26.1%, 70% 이상이 20.8%를 차지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13.3%이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20.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 표 III-5 】 와 같다.

【 표 Ⅲ-5 】 대학생 성평등의식조사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중
전 체		1006	100.0
성별	남자	522	51.9
	여자	484	48.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41.5
	만 21세~만 24세 미만	409	40.7
	만 24세 이상	179	17.8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25.6
	대학교 2학년	267	26.5
	대학교 3학년	266	26.4
	대학교 4학년	215	21.5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90.1
	여자대학	100	9.9
학제	전문대학	172	17.1
	4년제 대학	834	82.9
전공	인문	174	17.3
	사회과학	124	12.3
	경영/경제	200	19.9
	생활과학/생명과학	66	6.6
	자연과학	54	5.4
	공과대학	222	22.1
	사범대	23	2.2
	예술/체육	127	12.6
	자유전공/기타	16	1.6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20.2
	30% 이상 50% 미만	331	32.9
	50% 이상 70% 미만	263	26.1
	70% 이상	209	20.8
성평등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134	13.3
	미수강	225	22.4
	개설여부 모름	647	64.3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이수	209	20.8
	미이수	797	79.2

2. 조사결과

1) 성평등의식

(1) 성역할 고정관념

가. 개요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III-6**과 같다. 먼저,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그렇지 않다 91.9%),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그렇지 않다 94.1%),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그렇지 않다 96.0%),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그렇지 않다 90.2%), 이성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 않다 91.4%)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그렇다 20.0%),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그렇다 13.4%)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남녀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과 내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전공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6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구분	응답비중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52.1	39.8	7.7	0.4	1.56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51.5	35.1	12.0	1.4	1.63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49.3	30.7	15.9	4.1	1.75

구분	응답비중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62.5	31.6	5.4	0.5	1.44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66.7	29.3	3.7	0.3	1.38
남자 교수가 여자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	57.9	32.3	9.2	0.6	1.53
이성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3	35.1	8.1	0.5	1.53

나. 세부 항목별 현황

① 직장생활

직장 생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97.7%)이 남성(86.5%)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21세 미만은 95.0%, 만21세~24세 미만 91.4%, 만24세 이상 86.0%로 연령이 높아짐에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7 】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2.1	39.8	7.7	0.4	1.56
성별	남자	522	39.8	46.7	13.0	0.4	1.74
	여자	484	65.3	32.4	1.9	0.4	1.37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8.9	36.1	4.8	0.2	1.46
	만 21세~24세 미만	409	49.6	41.8	8.1	0.5	1.59
	만 24세 이상	179	41.9	44.1	13.4	0.6	1.73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3.1	40.3	6.2	0.4	1.54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대학교 2학년	267	53.2	37.8	9.0	0.0	1.56
	대학교 3학년	266	48.9	42.5	7.5	1.1	1.61
	대학교 4학년	215	53.5	38.6	7.9	0.0	1.5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9.7	41.6	8.3	0.4	1.59
	여자대학	100	74.0	24.0	2.0	0.0	1.28
학제	전문대학	172	48.8	43.0	8.1	0.0	1.59
	4년제 대학	834	52.8	39.2	7.6	0.5	1.56
전공	인문/문과	174	61.5	34.5	4.0	0.0	1.43
	사회과학	124	58.1	37.1	4.0	0.8	1.48
	경영/경제	200	48.5	43.0	8.0	0.5	1.61
	생활과학/생명과학	66	45.5	42.4	12.1	0.0	1.67
	자연과학	54	48.1	38.9	13.0	0.0	1.65
	공과대학	222	47.7	40.1	11.3	0.9	1.65
	사범대	23	39.1	43.5	17.4	0.0	1.78
	예술/체육	127	52.0	44.1	3.9	0.0	1.52
	자유전공/기타	16	68.8	31.3	0.0	0.0	1.31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45.8	35.5	18.2	0.5	1.73
	30% 이상 50% 미만	331	44.1	48.0	7.6	0.3	1.64
	50% 이상 70% 미만	263	54.8	40.7	4.2	0.4	1.50
	70% 이상	209	67.5	30.1	1.9	0.5	1.35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59.7	37.3	2.2	0.7	1.44
	미수강	225	61.8	32.9	4.4	0.9	1.44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59.8	37.3	2.4	0.5	1.44
	미이수	797	50.1	40.5	9.0	0.4	1.60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한편,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31.4%가 ‘그렇다’ 고 응답했다(여성은 7.6%).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21.4%)이 여자대학(7.0%)보다 ‘그렇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20.9%)이 전문대(15.1%) 보다 높다. 또한 전공별로는 자연과학(29.7%), 사범대(26.0%), 공과대학(25.2%)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에

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서 남성 우선 채용과 남성 중심 승진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9.3	30.7	15.9	4.1	1.75
성별	남자	522	35.6	33.0	24.1	7.3	2.03
	여자	484	64.0	28.3	7.0	0.6	1.44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7.2	28.5	10.8	3.6	1.61
	만 21세~24세 미만	409	47.4	32.8	16.6	3.2	1.76
	만 24세 이상	179	35.2	31.3	26.3	7.3	2.06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3.9	28.7	12.8	4.7	1.68
	대학교 2학년	267	47.9	31.8	16.9	3.4	1.76
	대학교 3학년	266	46.2	32.7	15.4	5.6	1.80
	대학교 4학년	215	49.3	29.3	19.1	2.3	1.7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6.5	32.1	17.0	4.4	1.79
	여자대학	100	75.0	18.0	6.0	1.0	1.33
학제	전문대학	172	52.9	32.0	9.9	5.2	1.67
	4년제 대학	834	48.6	30.5	17.1	3.8	1.76
전공	인문/문과	174	55.2	28.2	14.4	2.3	1.64
	사회과학	124	60.5	25.8	12.1	1.6	1.55
	경영/경제	200	40.0	36.5	18.5	5.0	1.89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3.0	28.8	9.1	9.1	1.74
	자연과학	54	48.1	22.2	24.1	5.6	1.87
	공과대학	222	42.8	32.0	19.8	5.4	1.88
	사범대	23	43.5	30.4	21.7	4.3	1.87
	예술/체육	127	54.3	33.1	11.0	1.6	1.60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62.5	25.0	6.3	6.3	1.56
	30% 미만	203	40.9	31.0	21.2	6.9	1.94
	30% 이상 50% 미만	331	40.5	35.0	20.2	4.2	1.88
	50% 이상 70% 미만	263	52.9	30.4	13.3	3.4	1.67
	70% 이상	209	67.0	23.9	7.2	1.9	1.44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63.4	21.6	12.7	2.2	1.54
	미수강	225	53.8	28.9	14.7	2.7	1.66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0.3	27.8	7.2	4.8	1.56
	미이수	797	46.4	31.5	18.2	3.9	1.80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② 교육

다음으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의 13.4%가 ‘그렇다’ 고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6.6%만이 ‘그렇다’ 고 응답하여 13.1%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9 】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1.5	35.1	12.0	1.4	1.63
성별	남자	522	40.0	40.2	17.4	2.3	1.82
	여자	484	63.8	29.5	6.2	0.4	1.43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7.2	32.3	9.8	0.7	1.54
	만 21세~24세 미만	409	50.1	36.4	12.0	1.5	1.65
	만 24세 이상	179	41.3	38.5	17.3	2.8	1.82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3.9	33.7	11.2	1.2	1.60
	대학교 2학년	267	52.4	34.8	11.2	1.5	1.62
	대학교 3학년	266	49.6	35.7	12.8	1.9	1.67
	대학교 4학년	215	49.8	36.3	13.0	0.9	1.65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9.3	36.3	12.9	1.4	1.66
	여자대학	100	71.0	24.0	4.0	1.0	1.35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학제	전문대학	172	50.0	35.5	14.0	0.6	1.65
	4년제 대학	834	51.8	35.0	11.6	1.6	1.63
전공	인문/문과	174	56.9	32.8	9.8	0.6	1.54
	사회과학	124	49.2	37.9	12.9	0.0	1.64
	경영/경제	200	47.0	36.5	14.5	2.0	1.72
	생활과학/생명과학	66	45.5	36.4	16.7	1.5	1.74
	자연과학	54	50.0	27.8	16.7	5.6	1.78
	공과대학	222	49.1	37.8	11.3	1.8	1.66
	사범대	23	56.5	34.8	4.3	4.3	1.57
	예술/체육	127	59.1	30.7	10.2	0.0	1.51
	자유전공/기타	16	62.5	37.5	0.0	0.0	1.38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46.8	35.0	14.3	3.9	1.75
	30% 이상 50% 미만	331	44.4	38.4	16.0	1.2	1.74
	50% 이상 70% 미만	263	51.7	39.9	8.0	0.4	1.57
	70% 이상	209	67.0	23.9	8.6	0.5	1.43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56.0	35.8	7.5	0.7	1.53
	미수강	225	56.9	30.2	12.0	0.9	1.57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2.2	32.1	5.3	0.5	1.44
	미이수	797	48.7	35.9	13.8	1.6	1.68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 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 표 III-10 ■ 과 같이 여성(94.2%)이 남성(86.4%) 보다 더욱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 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10 】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7.9	32.3	9.2	0.6	1.53
성별	남자	522	45.6	40.8	12.8	0.8	1.69
	여자	484	71.1	23.1	5.4	0.4	1.35
연령	만 21세 미만	418	63.9	28.2	6.9	1.0	1.45
	만 21세~24세 미만	409	54.8	35.0	10.0	0.2	1.56
	만 24세 이상	179	50.8	35.8	12.8	0.6	1.63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7.4	33.7	8.1	0.8	1.52
	대학교 2학년	267	58.4	31.5	9.4	0.7	1.52
	대학교 3학년	266	54.9	34.2	10.2	0.8	1.57
	대학교 4학년	215	61.4	29.3	9.3	0.0	1.48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5.1	34.3	10.0	0.6	1.56
	여자대학	100	83.0	14.0	2.0	1.0	1.21
학제	전문대학	172	58.1	33.1	7.6	1.2	1.52
	4년제 대학	834	57.8	32.1	9.6	0.5	1.53
전공	인문/문과	174	69.5	21.3	8.0	1.1	1.41
	사회과학	124	59.7	34.7	5.6	0.0	1.46
	경영/경제	200	52.5	37.0	10.0	0.5	1.59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4.5	31.8	13.6	0.0	1.59
	자연과학	54	55.6	31.5	13.0	0.0	1.57
	공과대학	222	54.1	35.1	9.5	1.4	1.58
	사범대	23	52.2	34.8	13.0	0.0	1.61
	예술/체육	127	57.5	33.1	9.4	0.0	1.52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68.8	31.3	0.0	0.0	1.31
	30% 미만	203	47.8	36.9	14.8	0.5	1.68
	30% 이상 50% 미만	331	49.5	38.4	11.5	0.6	1.63
	50% 이상 70% 미만	263	63.5	30.4	5.3	0.8	1.43
성평등 교과목	70% 이상	209	73.7	20.6	5.3	0.5	1.33
	수강	134	70.1	24.6	4.5	0.7	1.36
성폭력 예방교육	미수강	225	65.3	29.3	4.4	0.9	1.41
	이수	209	70.3	23.4	5.7	0.5	1.36
	미이수	797	54.6	34.6	10.2	0.6	1.57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③ 가정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1%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96.5%, 남성 91.9%가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43.3%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구분을 찬성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28.3%만이 이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2016년 청소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대학생의 성역할 인식이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이수연 외, 2016).

【표 Ⅲ-11】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62.5	31.6	5.4	0.5	1.44
성별	남자	522	52.1	39.8	7.3	0.8	1.57
	여자	484	73.8	22.7	3.3	0.2	1.30
연령	만 21세 미만	418	69.9	26.3	3.6	0.2	1.34
	만 21세~24세 미만	409	55.7	36.4	7.3	0.5	1.53
	만 24세 이상	179	60.9	33.0	5.0	1.1	1.46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64.3	30.6	4.7	0.4	1.41
	대학교 2학년	267	64.8	28.1	7.1	0.0	1.42
	대학교 3학년	266	57.5	36.1	5.3	1.1	1.50
	대학교 4학년	215	63.7	31.6	4.2	0.5	1.41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60.0	33.4	6.0	0.6	1.47
	여자대학	100	85.0	15.0	0.0	0.0	1.15
학제	전문대학	172	62.2	33.1	4.7	0.0	1.42
	4년제 대학	834	62.6	31.3	5.5	0.6	1.44

7) ‘2014 청소년 생활시간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초 4-6학년·중·고등학생 대상)’,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9-24세)’ 등 총 14개 조사를 통합하여 청소년들의 전반적 시간 활용 및 의식 변화를 진단한 통계이다. 인구와 가족, 건강과 교육, 경제활동, 문화와 여가, 안전과 의식 범주 등의 하위 항목 27개에 대해 2014년과 2004년을 비교하였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공	인문/문과	174	66.7	25.3	8.0	0.0	1.41
	사회과학	124	68.5	27.4	4.0	0.0	1.35
	경영/경제	200	57.0	36.5	5.5	1.0	1.51
	생활과학/생명과학	66	66.7	25.8	6.1	1.5	1.42
	자연과학	54	64.8	35.2	0.0	0.0	1.35
	공과대학	222	58.6	35.1	5.4	0.9	1.49
	사범대	23	60.9	34.8	4.3	0.0	1.43
	예술/체육	127	62.2	32.3	5.5	0.0	1.43
	자유전공/기타	16	75.0	25.0	0.0	0.0	1.25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6.2	37.9	5.4	0.5	1.50
	30% 이상 50% 미만	331	58.9	34.1	6.6	0.3	1.48
	50% 이상 70% 미만	263	60.5	32.7	5.7	1.1	1.48
	70% 이상	209	77.0	20.1	2.9	0.0	1.26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72.4	22.4	4.5	0.7	1.34
	미수강	225	66.7	28.4	4.4	0.4	1.39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77.0	19.1	3.3	0.5	1.27
	미이수	797	58.7	34.9	5.9	0.5	1.48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어서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는 항목에 대해 96.0%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 표 III-12 ■ 와 같이 남성 93.5%, 여성 98.8%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 표 III-12 ■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66.7	29.3	3.7	0.3	1.38	
성별	남자	522	57.1	36.4	6.1	0.4	1.50
	여자	484	77.1	21.7	1.0	0.2	1.24
연령	만 21세 미만	418	72.7	23.2	3.8	0.2	1.32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만 21세~24세 미만	409	60.1	36.4	3.2	0.2	1.44
	만 24세 이상	179	67.6	27.4	4.5	0.6	1.38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65.9	29.1	4.7	0.4	1.40
	대학교 2학년	267	68.9	27.7	3.4	0.0	1.34
	대학교 3학년	266	62.4	31.2	5.6	0.8	1.45
	대학교 4학년	215	70.2	29.3	0.5	0.0	1.30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64.3	31.2	4.1	0.3	1.40
	여자대학	100	88.0	12.0	0.0	0.0	1.12
학제	전문대학	172	63.4	33.1	3.5	0.0	1.40
	4년제 대학	834	67.4	28.5	3.7	0.4	1.37
전공	인문/문과	174	75.3	20.7	4.0	0.0	1.29
	사회과학	124	67.7	29.0	3.2	0.0	1.35
	경영/경제	200	62.5	33.0	4.0	0.5	1.43
	생활과학/생명과학	66	66.7	33.3	0.0	0.0	1.33
	자연과학	54	66.7	27.8	5.6	0.0	1.39
	공과대학	222	63.1	31.1	5.0	0.9	1.44
	사범대	23	65.2	30.4	4.3	0.0	1.39
	예술/체육	127	65.4	32.3	2.4	0.0	1.37
	자유전공/기타	16	81.3	18.8	0.0	0.0	1.19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9.1	34.0	6.4	0.5	1.48
	30% 이상 50% 미만	331	61.0	34.4	4.2	0.3	1.44
	50% 이상 70% 미만	263	66.2	30.0	3.4	0.4	1.38
	70% 이상	209	83.7	15.8	0.5	0.0	1.17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72.4	24.6	2.2	0.7	1.31
	미수강	225	73.3	24.4	1.8	0.4	1.29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80.4	17.7	1.4	0.5	1.22
	미이수	797	63.1	32.4	4.3	0.3	1.42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④ 연애

‘이성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4%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95.1%)이 남성(88.1%) 보다 더욱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 이성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6.3	35.1	8.1	0.5	1.53
성별	남자	522	46.0	42.1	11.3	0.6	1.66
	여자	484	67.4	27.7	4.5	0.4	1.38
연령	만 21세 미만	418	62.4	30.1	7.2	0.2	1.45
	만 21세~24세 미만	409	52.3	38.6	8.6	0.5	1.57
	만 24세 이상	179	50.8	39.1	8.9	1.1	1.60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5.4	35.7	8.5	0.4	1.54
	대학교 2학년	267	57.3	34.1	8.6	0.0	1.51
	대학교 3학년	266	55.3	36.5	7.5	0.8	1.54
	대학교 4학년	215	57.2	34.4	7.4	0.9	1.52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4.0	36.9	8.7	0.4	1.56
	여자대학	100	77.0	20.0	2.0	1.0	1.27
학제	전문대학	172	55.2	39.5	5.2	0.0	1.50
	4년제 대학	834	56.5	34.3	8.6	0.6	1.53
전공	인문/문과	174	59.8	33.3	6.9	0.0	1.47
	사회과학	124	60.5	33.1	6.5	0.0	1.46
	경영/경제	200	51.0	39.0	9.0	1.0	1.6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4.5	33.3	12.1	0.0	1.58
	자연과학	54	57.4	27.8	14.8	0.0	1.57
	공과대학	222	55.0	37.4	6.8	0.9	1.54
	사범대	23	56.5	34.8	4.3	4.3	1.57
	예술/체육	127	55.9	35.4	8.7	0.0	1.53
	자유전공/기타	16	75.0	25.0	0.0	0.0	1.25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4.2	35.0	10.3	0.5	1.57
	30% 이상 50% 미만	331	49.5	40.2	9.7	0.6	1.61
	50% 이상 70% 미만	263	54.4	37.3	8.0	0.4	1.54
	70% 이상	209	71.3	24.9	3.3	0.5	1.33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64.2	29.1	6.0	0.7	1.43
	미수강	225	60.4	33.3	5.8	0.4	1.46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1.2	31.6	6.7	0.5	1.46
	미이수	797	55.0	36.1	8.4	0.5	1.54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 요인별 차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대학 유형, 대학 학제,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 경험별로 차이분석을 실행하였다. 변수별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t검정, ANOVA, 사후비교분석을 병행하여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III-14**와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01$), 대학 유형별로는 남녀공학이 여자대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0001$). 그러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01$). 그러나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대학 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성별고정관념 - 요인별 차이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df	p.	
성별	남자	522	1.72	0.56	11.290 ***	1,004	0.000	
	여자	484	1.36	0.42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1.58	0.53	6.092 ***	1,004	0.000	
	여자대학	100	1.24	0.36				
대학 학제	전문대	172	1.54	0.50	-0.196	1,004	0.844	
	4년제	834	1.55	0.54				
교육 경험	성평등교과목	수강	134	1.42	0.50	-0.723	357	0.470
		미수강	225	1.46	0.51			
	성폭력에 방교육	이수	209	1.39	0.46	-4.661 ***	1004	0.000
		미이수	797	1.58	0.54			

*p<0.05, **p<0.01, ***p<0.0001

(2)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가. 개요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을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III-15】와 같다. 먼저,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그렇다 92.3%),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그렇다 80.4%)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그렇다 67.8%), 성평등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그렇다 64.3%)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30.3%는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참조). 또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도 남성 응답자의 3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응답자의 46.7%는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8】 및 【표 III-20】참조).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여자대학이 남

녀공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III-15 】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구분	응답비중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5	15.1	49.8	30.6	3.07
나와 유사한 경력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 후 복직하여 나보다 먼저 승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있다.	4.1	20.2	47.7	28.0	3.00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6.7	25.5	52.1	15.7	2.77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4	6.3	43.9	48.4	3.39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같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2	16.2	53.8	24.8	2.98
성평등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5.5	30.2	52.0	12.3	2.71

나. 세부 항목별 현황

먼저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여성은 9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69.7%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30.3%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가사 및 육아에서의 남성 참여 저조(27.4%)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Ⅲ-16 】 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5	15.1	49.8	30.6	3.07
성별	남자	522	6.7	23.6	56.5	13.2	2.76
	여자	484	2.1	6.0	42.6	49.3	3.39
연령	만 21세 미만	418	3.6	11.7	50.2	34.4	3.16
	만 21세~24세 미만	409	5.9	15.9	46.0	32.3	3.05
	만 24세 이상	179	3.4	21.2	57.5	17.9	2.90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4	14.3	52.3	27.9	3.03
	대학교 2학년	267	4.5	13.1	47.6	34.8	3.13
	대학교 3학년	266	3.8	18.4	49.2	28.6	3.03
	대학교 4학년	215	4.2	14.4	50.2	31.2	3.08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6	16.1	51.5	27.7	3.02
	여자대학	100	3.0	6.0	34.0	57.0	3.45
학제	전문대학	172	6.4	14.5	54.1	25.0	2.98
	4년제 대학	834	4.1	15.2	48.9	31.8	3.08
전공	인문/문과	174	4.0	9.2	49.4	37.4	3.20
	사회과학	124	3.2	12.9	42.7	41.1	3.22
	경영/경제	200	4.0	17.0	50.5	28.5	3.04
	생활과학/생명과학	66	7.6	9.1	47.0	36.4	3.12
	자연과학	54	1.9	7.4	48.1	42.6	3.31
	공과대학	222	5.9	21.6	53.2	19.4	2.86
	사범대	23	4.3	4.3	47.8	43.5	3.30
	예술/체육	127	4.7	18.9	52.0	24.4	2.96
	자유전공/기타	16	0.0	18.8	56.3	25.0	3.06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6.9	22.7	53.7	16.7	2.80
	30% 이상 50% 미만	331	2.7	15.1	48.3	33.8	3.13
	50% 이상 70% 미만	263	4.2	13.3	54.0	28.5	3.07
	70% 이상	209	5.3	10.0	43.1	41.6	3.21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0.7	6.7	38.8	53.7	3.46
	미수강	225	4.0	10.7	47.6	37.8	3.19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3.3	10.5	54.5	31.6	3.14
	미이수	797	4.8	16.3	48.6	30.4	3.05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어서 ‘나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한 후 복직하여 나보다 먼저 승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 74.2%, 여성은 77.4%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25.8%(여성은 22.6%)는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였다.

【 표 III-17 】 나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한 후 복직하여 나보다 먼저 승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1	20.2	47.7	28.0	3.00
성별	남자	522	3.4	22.4	48.9	25.3	2.96
	여자	484	4.8	17.8	46.4	31.0	3.04
연령	만 21세 미만	418	4.3	19.6	46.4	29.7	3.01
	만 21세~24세 미만	409	4.2	17.8	50.4	27.6	3.01
	만 24세 이상	179	3.4	26.8	44.7	25.1	2.92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3.1	22.5	49.2	25.2	2.97
	대학교 2학년	267	3.4	20.6	41.2	34.8	3.07
	대학교 3학년	266	6.0	18.0	51.9	24.1	2.94
	대학교 4학년	215	3.7	19.5	48.8	27.9	3.01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1	20.6	48.0	27.3	2.98
	여자대학	100	4.0	16.0	45.0	35.0	3.11
학제	전문대학	172	4.1	15.7	56.4	23.8	3.00
	4년제 대학	834	4.1	21.1	45.9	28.9	3.00
전공	인문/문과	174	5.2	18.4	40.2	36.2	3.07
	사회과학	124	3.2	23.4	41.1	32.3	3.02
	경영/경제	200	3.5	22.5	51.0	23.0	2.94
	생활과학/생명과학	66	3.0	30.3	51.5	15.2	2.79
	자연과학	54	0.0	24.1	50.0	25.9	3.02
	공과대학	222	5.0	14.0	54.5	26.6	3.03
	사범대	23	4.3	21.7	52.2	21.7	2.91
	예술/체육	127	4.7	18.9	43.3	33.1	3.05
자유전공/기타	16	6.3	25.0	50.0	18.8	2.81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4	19.7	48.8	26.1	2.96
	30% 이상 50% 미만	331	3.3	22.7	52.9	21.1	2.92
	50% 이상 70% 미만	263	2.7	17.9	43.7	35.7	3.13
	70% 이상	209	5.7	19.6	43.5	31.1	3.00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3.0	17.9	44.8	34.3	3.10
	미수강	225	2.7	20.0	46.2	31.1	3.06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3.8	15.3	48.3	32.5	3.10
	미이수	797	4.1	21.5	47.6	26.9	2.97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한편, 남성 응답자의 46.7%가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 증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1세 미만은 29.0%, 만21세~24세 미만 30.3%, 만 24세 이상은 44.2%가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8 】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6.7	25.5	52.1	15.7	2.77	
성별	남자	522	11.3	35.4	45.8	7.5	2.49
	여자	484	1.7	14.9	58.9	24.6	3.06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3	23.7	54.3	16.7	2.83
	만 21세~24세 미만	409	5.4	24.9	52.1	17.6	2.82
	만 24세 이상	179	12.8	31.4	46.9	8.9	2.52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8	26.7	52.3	15.1	2.77
	대학교 2학년	267	6.7	28.1	47.6	17.6	2.76
	대학교 3학년	266	6.0	24.1	55.3	14.7	2.79
	대학교 4학년	215	8.4	22.8	53.5	15.3	2.76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7.3	26.3	52.4	14.0	2.73
	여자대학	100	1.0	19.0	49.0	31.0	3.10
학제	전문대학	172	2.9	25.0	59.3	12.8	2.82
	4년제 대학	834	7.4	25.7	50.6	16.3	2.76
전공	인문/문과	174	10.9	19.0	43.7	26.4	2.86
	사회과학	124	6.5	24.2	50.0	19.4	2.82
	경영/경제	200	7.0	29.5	50.5	13.0	2.7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4.5	25.8	50.0	19.7	2.85
	자연과학	54	3.7	25.9	57.4	13.0	2.80
	공과대학	222	8.1	27.0	54.1	10.8	2.68
	사범대	23	0.0	26.1	65.2	8.7	2.83
	예술/체육	127	2.4	28.3	56.7	12.6	2.80
자유전공/기타	16	0.0	12.5	87.5	0.0	2.88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6.9	28.1	54.7	10.3	2.68
	30% 이상 50% 미만	331	5.4	24.2	53.5	16.9	2.82
	50% 이상 70% 미만	263	10.6	29.7	47.1	12.5	2.62
	70% 이상	209	3.3	20.1	53.6	23.0	2.96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3.7	11.9	52.2	32.1	3.13
	미수강	225	7.6	24.4	50.2	17.8	2.78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8.6	24.9	50.2	16.3	2.74
	미이수	797	6.1	25.7	52.6	15.6	2.78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 88.3%, 여성 9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11.7%, 여성은 3.3%가 남녀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1.4	6.3	43.9	48.4	3.39
성별	남자	522	1.7	10.0	55.3	33.0	3.20
	여자	484	1.0	2.3	31.6	65.1	3.6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1.7	5.3	40.7	52.4	3.44
	만 21세~24세 미만	409	1.7	5.9	45.7	46.7	3.37
	만 24세 이상	179	0.0	9.5	47.5	43.0	3.34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1.9	6.2	43.0	48.8	3.39
	대학교 2학년	267	2.2	7.1	42.3	48.3	3.37
	대학교 3학년	266	0.8	5.3	48.1	45.9	3.39
	대학교 4학년	215	0.5	6.5	41.9	51.2	3.4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1.3	6.5	46.6	45.6	3.36
	여자대학	100	2.0	4.0	20.0	74.0	3.66
학제	전문대학	172	1.2	5.8	46.5	46.5	3.38
	4년제 대학	834	1.4	6.4	43.4	48.8	3.40
전공	인문/문과	174	2.9	4.6	37.4	55.2	3.45
	사회과학	124	0.8	4.0	40.3	54.8	3.49
	경영/경제	200	1.0	6.5	47.5	45.0	3.37
	생활과학/생명과학	66	3.0	4.5	45.5	47.0	3.36
	자연과학	54	0.0	9.3	38.9	51.9	3.43
	공과대학	222	1.4	9.0	49.1	40.5	3.29
	사범대	23	0.0	0.0	52.2	47.8	3.48
	예술/체육	127	0.8	6.3	42.5	50.4	3.43
자유전공/기타	16	0.0	6.3	37.5	56.3	3.5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1.5	10.3	49.3	38.9	3.26
	30% 이상 50% 미만	331	0.6	6.3	47.4	45.6	3.38
	50% 이상 70% 미만	263	1.5	4.6	48.7	45.2	3.38
	70% 이상	209	2.4	4.3	27.3	66.0	3.57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0.0	2.2	29.1	68.7	3.66
	미수강	225	1.8	4.0	41.8	52.4	3.4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1.0	4.3	40.7	54.1	3.48
	미이수	797	1.5	6.8	44.8	46.9	3.37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같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는 항목에 대해 여성은 92.0%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66.3%에 불과해 남성 3명 중 1명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20 】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같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2	16.2	53.8	24.9	2.98
성별	남자	522	8.6	25.1	55.6	10.7	2.68
	여자	484	1.4	6.6	51.9	40.1	3.3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3.6	11.0	58.6	26.8	3.09
	만 21세~24세 미만	409	5.6	17.1	50.6	26.7	2.98
	만 24세 이상	179	7.8	26.3	49.7	16.2	2.74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4.7	14.0	58.5	22.9	3.00
	대학교 2학년	267	4.5	15.0	53.6	27.0	3.03
	대학교 3학년	266	6.0	17.7	52.6	23.7	2.94
	대학교 4학년	215	5.6	18.6	49.8	26.0	2.96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5	17.2	55.6	21.6	2.93
	여자대학	100	2.0	7.0	37.0	54.0	3.43
학제	전문대학	172	3.5	9.3	66.9	20.3	3.04
	4년제 대학	834	5.5	17.6	51.1	25.8	2.97
전공	인문/문과	174	6.3	10.9	49.4	33.3	3.10
	사회과학	124	3.2	14.5	50.0	32.3	3.11
	경영/경제	200	6.5	18.0	54.0	21.5	2.91
	생활과학/생명과학	66	6.1	19.7	45.5	28.8	2.97
	자연과학	54	0.0	14.8	59.3	25.9	3.11
	공과대학	222	7.2	20.7	54.5	17.6	2.82
	사범대	23	0.0	13.0	56.5	30.4	3.17
	예술/체육	127	3.1	15.0	60.6	21.3	3.00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자유전공/기타	16	0.0	6.3	75.0	18.8	3.13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6.9	20.7	55.2	17.2	2.83
	30% 이상 50% 미만	331	4.2	18.1	58.3	19.3	2.93
	50% 이상 70% 미만	263	5.7	16.0	52.1	26.2	2.99
	70% 이상	209	4.3	9.1	47.4	39.2	3.22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0.7	11.2	44.0	44.0	3.31
	미수강	225	7.6	15.1	49.8	27.6	2.97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2	16.3	48.8	28.7	3.00
	미이수	797	4.9	16.2	55.1	23.8	2.98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성평등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는 문항에 대해 남성의 67.8%가 ‘그렇다’ 고 답변하였으며, 여성도 60.5%만이 이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동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표 III-21 】 성평등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5	30.2	52.0	12.3	2.71	
성별	남자	522	3.8	28.4	57.1	10.7	2.75
	여자	484	7.2	32.3	46.5	14.0	2.67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5	26.8	55.3	12.4	2.75
	만 21세~24세 미만	409	6.8	32.3	49.4	11.5	2.66
	만 24세 이상	179	2.2	33.5	50.3	14.0	2.76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8	26.7	54.3	13.2	2.75
	대학교 2학년	267	6.0	27.7	55.1	11.2	2.72
	대학교 3학년	266	5.3	32.3	50.4	12.0	2.69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대학유형	대학교 4학년	215	4.7	34.9	47.4	13.0	2.69
	남녀공학	906	4.7	29.4	54.3	11.6	2.73
	여자대학	100	12.0	38.0	31.0	19.0	2.57
학제	전문대학	172	4.1	25.0	61.0	9.9	2.77
	4년제 대학	834	5.8	31.3	50.1	12.8	2.70
전공	인문/문과	174	9.2	27.6	46.0	17.2	2.71
	사회과학	124	7.3	38.7	43.5	10.5	2.57
	경영/경제	200	5.0	29.5	52.5	13.0	2.74
	생활과학/생명과학	66	7.6	37.9	42.4	12.1	2.59
	자연과학	54	7.4	25.9	55.6	11.1	2.70
	공과대학	222	3.2	27.0	60.4	9.5	2.76
	사범대	23	4.3	26.1	60.9	8.7	2.74
	예술/체육	127	2.4	29.1	55.9	12.6	2.79
	자유전공/기타	16	0.0	43.8	43.8	12.5	2.69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4	26.6	59.1	8.9	2.71
	30% 이상 50% 미만	331	2.1	26.9	60.7	10.3	2.79
	50% 이상 70% 미만	263	7.2	34.2	45.2	13.3	2.65
	70% 이상	209	8.6	34.0	39.7	17.7	2.67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8.2	35.1	44.0	12.7	2.61
	미수강	225	5.8	30.2	48.4	15.6	2.74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5.7	28.7	47.4	18.2	2.78
	미이수	797	5.4	30.6	53.2	10.8	2.69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 요인별 차이분석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대학 유형, 대학 학제,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 경험별로 차이분석을 실행하였다. 변수별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t검정, ANOVA, 사후비교분석을 병행하여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III-22**와 같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p < 0.0001$), 대학 유형별로는 여자대학이 남녀공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p < 0.0001$). 그러나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01$). 그러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간의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평등 교과목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성폭력예방교육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22 】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 요인별 차이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df	p.	
성별	남자	522	2.81	0.44	-13.734 ***	1,004	0.000	
	여자	484	3.18	0.41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2.96	0.46	-5.318 ***	1,004	0.000	
	여자대학	100	3.22	0.50				
대학 학제	전문대	172	3.00	0.44	0.353	1,004	0.724	
	4년제	834	2.98	0.48				
교육 경험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3.21	0.39	3.642 ***	357	0.000
		미수강	225	3.03	0.49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3.04	0.47	1.849	1004	0.065
		미이수	797	2.97	0.47			

* $p < 0.05$, ** $p < 0.01$, *** $p < 0.0001$

(3) 폭력에 대한 인식

가. 개요.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과 통념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 표 III-23 】 과 같다. 먼저,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 94.4%),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그렇지 않다 91.6%),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그렇지 않다 90.7%),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그렇지 않다 90.2%)는 항목에 대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렇지 않다 80.1%),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그렇지 않다 81.4%),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그렇지 않다 72.9%)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을 묻는 8가지 질문 대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드러냈다. 여성과 남성의 인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장 가부장적인 사고를 4점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은 평균 1.78점, 여성은 1.4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가부장적 성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3 ■ 폭력에 대한 인식 - 전체

(단위: %, 점)

구분	응답비중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54.7	36.9	8.2	0.3	1.54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44.0	28.9	24.5	2.6	1.86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50.9	30.5	17.4	1.2	1.69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4.5	35.6	13.7	6.2	1.82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55.2	35.5	8.4	0.9	1.55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54.8	35.1	9.4	0.7	1.56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62.8	31.6	5.0	0.6	1.43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48.1	42.1	9.5	0.3	1.62

나. 세부 항목별 현황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

의 86.9%, 여성은 96.5%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성 13.1%, 여성 1.5%는 같은 질문에 동의했다.

Ⅲ 표 Ⅲ-24 Ⅲ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4.7	36.9	8.2	0.3	1.54
성별	남자	522	44.6	42.3	12.6	0.5	1.69
	여자	484	65.5	31.0	3.3	0.2	1.38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7.9	34.0	7.9	0.2	1.50
	만 21세~24세 미만	409	52.1	39.9	7.8	0.2	1.56
	만 24세 이상	179	53.1	36.9	9.5	0.6	1.58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1.6	38.4	9.7	0.4	1.59
	대학교 2학년	267	57.3	34.8	7.5	0.4	1.51
	대학교 3학년	266	52.3	39.5	8.3	0.0	1.56
	대학교 4학년	215	58.1	34.4	7.0	0.5	1.50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2.2	38.6	8.9	0.2	1.57
	여자대학	100	77.0	21.0	1.0	1.0	1.26
학제	전문대학	172	45.3	47.1	6.4	1.2	1.63
	4년제 대학	834	56.6	34.8	8.5	0.1	1.52
전공	인문/문과	174	63.2	29.9	6.3	0.6	1.44
	사회과학	124	60.5	29.0	10.5	0.0	1.50
	경영/경제	200	49.0	42.5	8.5	0.0	1.6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9.1	30.3	7.6	3.0	1.55
	자연과학	54	55.6	29.6	14.8	0.0	1.59
	공과대학	222	51.4	40.5	8.1	0.0	1.57
	사범대	23	73.9	21.7	4.3	0.0	1.30
	예술/체육	127	43.3	49.6	7.1	0.0	1.64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75.0	25.0	0.0	0.0	1.25
	30% 미만	203	46.3	40.4	13.3	0.0	1.67
	30% 이상 50% 미만	331	49.5	41.7	8.2	0.6	1.60
	50% 이상 70% 미만	263	58.9	33.1	8.0	0.0	1.49
	70% 이상	209	65.6	30.6	3.3	0.5	1.39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71.6	23.9	4.5	0.0	1.33
	미수강	225	64.0	30.7	5.3	0.0	1.41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4.6	30.1	4.8	0.5	1.41
	미이수	797	52.1	38.6	9.0	0.3	1.57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남성의 3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도 무려 17.1%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21세 미만 24.4%, 만 21세~24세 미만 28.1%, 24세 이상 30.8%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32.0%)가 4년제 대학(26.0%)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표 III-25 】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4.0	28.9	24.5	2.6	1.86
성별	남자	522	33.5	30.3	31.6	4.6	2.07
	여자	484	55.4	27.5	16.7	0.4	1.62
연령	만 21세 미만	418	45.0	30.6	22.5	1.9	1.81
	만 21세~24세 미만	409	44.7	27.1	25.7	2.4	1.86
	만 24세 이상	179	40.2	29.1	26.3	4.5	1.95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39.9	31.8	25.6	2.7	1.91
	대학교 2학년	267	44.9	28.1	24.0	3.0	1.85
	대학교 3학년	266	43.2	29.7	24.1	3.0	1.87
	대학교 4학년	215	48.8	25.6	24.2	1.4	1.78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1.6	29.6	25.9	2.9	1.90
	여자대학	100	66.0	23.0	11.0	0.0	1.45
학제	전문대학	172	33.1	34.9	29.1	2.9	2.02
	4년제 대학	834	46.3	27.7	23.5	2.5	1.82
전공	인문/문과	174	52.9	20.7	23.6	2.9	1.76
	사회과학	124	47.6	31.5	20.2	0.8	1.74
	경영/경제	200	40.0	33.0	23.0	4.0	1.91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3.0	24.2	21.2	1.5	1.71
	자연과학	54	50.0	27.8	20.4	1.9	1.74
	공과대학	222	38.3	28.8	29.3	3.6	1.98
	사범대	23	69.6	13.0	17.4	0.0	1.48
	예술/체육	127	33.9	37.0	28.3	0.8	1.96
	자유전공/기타	16	37.5	31.3	25.0	6.3	2.0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35.0	24.6	34.5	5.9	2.11
	30% 이상 50% 미만	331	42.9	32.0	22.4	2.7	1.85
	50% 이상 70% 미만	263	45.6	29.7	22.8	1.9	1.81
	70% 이상	209	52.6	27.3	20.1	0.0	1.67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67.2	20.1	11.9	0.7	1.46
	미수강	225	48.4	27.6	20.9	3.1	1.79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54.5	23.9	20.1	1.4	1.68
	미이수	797	41.3	30.2	25.6	2.9	1.90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75.4%, 여성 87.8%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24.6%는 ‘그렇다’ 고 답변하였으며 여성도 12.2%나 됐다.

【 표 III-26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0.9	30.5	17.4	1.2	1.69
성별	남자	522	42.1	33.3	22.4	2.1	1.84
	여자	484	60.3	27.5	12.0	0.2	1.52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2.6	29.9	17.2	0.2	1.65
	만 21세~24세 미만	409	50.4	32.0	15.9	1.7	1.69
	만 24세 이상	179	48.0	28.5	21.2	2.2	1.78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48.1	31.4	20.2	0.4	1.73
	대학교 2학년	267	52.1	30.3	16.9	0.7	1.66
	대학교 3학년	266	48.5	33.5	16.2	1.9	1.71
	대학교 4학년	215	55.8	26.0	16.3	1.9	1.6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8.8	32.0	17.9	1.3	1.72
	여자대학	100	70.0	17.0	13.0	0.0	1.43
학제	전문대학	172	39.5	35.5	23.8	1.2	1.87
	4년제 대학	834	53.2	29.5	16.1	1.2	1.65
전공	인문/문과	174	58.6	24.7	14.4	2.3	1.60
	사회과학	124	61.3	22.6	15.3	0.8	1.56
	경영/경제	200	47.5	35.0	17.5	0.0	1.7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6.1	30.3	13.6	0.0	1.58
	자연과학	54	51.9	33.3	13.0	1.9	1.65
	공과대학	222	44.1	33.3	19.8	2.7	1.81
	사범대	23	56.5	21.7	21.7	0.0	1.65
	예술/체육	127	42.5	35.4	22.0	0.0	1.80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56.3	25.0	18.8	0.0	1.63
	30% 미만	203	41.9	32.0	22.7	3.4	1.88
	30% 이상 50% 미만	331	47.4	35.0	17.2	0.3	1.70
	50% 이상 70% 미만	263	55.1	28.9	14.4	1.5	1.62
성평등 교과목	70% 이상	209	59.8	23.9	16.3	0.0	1.56
	수강	134	67.2	22.4	10.4	0.0	1.43
성폭력 예방교육	미수강	225	59.6	24.9	15.1	0.4	1.56
	이수	209	62.2	24.4	12.9	0.5	1.52
	미이수	797	47.9	32.1	18.6	1.4	1.73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데 전체의 80.1%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25.9%는 ‘그렇다’ 고 답변하였으며, 여성도 13.5%가 동의하였다. 또한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7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4.5	35.6	13.7	6.2	1.82
성별	남자	522	32.7	41.4	18.6	7.3	2.00
	여자	484	57.2	29.3	8.5	5.0	1.6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47.4	34.9	12.2	5.5	1.76
	만 21세~24세 미만	409	44.3	35.0	13.7	7.1	1.84
	만 24세 이상	179	38.5	38.5	17.3	5.6	1.90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42.2	39.9	12.8	5.0	1.81
	대학교 2학년	267	48.7	31.8	13.5	6.0	1.77
	대학교 3학년	266	42.5	37.2	12.8	7.5	1.85
	대학교 4학년	215	44.7	33.0	16.3	6.0	1.8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1.8	37.1	14.6	6.5	1.86
	여자대학	100	69.0	22.0	6.0	3.0	1.43
학제	전문대학	172	40.1	37.8	15.7	6.4	1.88
	4년제 대학	834	45.4	35.1	13.3	6.1	1.80
전공	인문/문과	174	55.2	27.0	11.5	6.3	1.69
	사회과학	124	53.2	29.0	14.5	3.2	1.68
	경영/경제	200	42.0	42.5	11.5	4.0	1.78
	생활과학/생명과학	66	47.0	27.3	13.6	12.1	1.91
	자연과학	54	44.4	37.0	13.0	5.6	1.80
	공과대학	222	36.5	36.5	18.9	8.1	1.99
	사범대	23	56.5	30.4	4.3	8.7	1.65
	예술/체육	127	36.2	44.9	12.6	6.3	1.89
학과	자유전공/기타	16	43.8	43.8	12.5	0.0	1.69
	30% 미만	203	35.5	35.0	21.2	8.4	2.02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여학생 비율	30% 이상 50% 미만	331	37.8	42.0	14.8	5.4	1.88
	50% 이상 70% 미만	263	50.6	31.9	10.6	6.8	1.74
	70% 이상	209	56.5	30.6	8.6	4.3	1.61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58.2	26.1	12.7	3.0	1.60
	미수강	225	52.9	28.4	13.3	5.3	1.71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55.0	23.9	12.4	8.6	1.75
	미이수	797	41.8	38.6	14.1	5.5	1.83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한편,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는 항목에 여성의 9.9%가 ‘그렇다’ 고 답변한 반면 남성은 8.8%만 이에 동의하였다. 교육경험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그렇다’ 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I-28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5.2	35.5	8.4	0.9	1.55
성별	남자	522	53.5	37.7	8.4	0.4	1.56
	여자	484	57.0	33.1	8.5	1.4	1.54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5.7	34.4	9.3	0.5	1.55
	만 21세~24세 미만	409	54.8	37.4	6.4	1.5	1.55
	만 24세 이상	179	54.7	33.5	11.2	0.6	1.58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1.2	37.2	10.9	0.8	1.61
	대학교 2학년	267	53.9	37.8	7.5	0.7	1.55
	대학교 3학년	266	57.5	34.2	6.8	1.5	1.52
	대학교 4학년	215	58.6	32.1	8.8	0.5	1.51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4.6	36.2	8.4	0.8	1.55
	여자대학	100	60.0	29.0	9.0	2.0	1.53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학제	전문대학	172	51.2	39.5	8.7	0.6	1.59
	4년제 대학	834	56.0	34.7	8.4	1.0	1.54
전공	인문/문과	174	59.2	32.8	6.3	1.7	1.51
	사회과학	124	65.3	29.0	3.2	2.4	1.43
	경영/경제	200	47.5	42.0	10.5	0.0	1.63
	생활과학/생명과학	66	60.6	34.8	4.5	0.0	1.44
	자연과학	54	51.9	27.8	18.5	1.9	1.70
	공과대학	222	57.2	34.2	7.7	0.9	1.52
	사범대	23	43.5	39.1	17.4	0.0	1.74
	예술/체육	127	47.2	42.5	10.2	0.0	1.63
	자유전공/기타	16	68.8	18.8	12.5	0.0	1.44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50.2	36.9	11.8	1.0
30% 이상 50% 미만		331	52.3	39.3	7.6	0.9	1.57
50% 이상 70% 미만		263	63.9	29.3	6.5	0.4	1.43
70% 이상		209	53.6	35.9	9.1	1.4	1.58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71.6	22.4	6.0	0.0	1.34
	미수강	225	60.9	33.3	5.8	0.0	1.4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5.6	29.2	3.3	1.9	1.42
	미이수	797	52.4	37.1	9.8	0.6	1.59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9%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16.5%는 ‘그렇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1세 미만은 7.9%, 만21세~24세 미만 10.0%, 만 24세 이상 15.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29 】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54.8	35.1	9.4	0.7	1.56
성별	남자	522	43.3	40.2	15.5	1.0	1.74
	여자	484	67.1	29.5	2.9	0.4	1.37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7.9	34.2	7.7	0.2	1.50
	만 21세~24세 미만	409	54.5	35.5	9.0	1.0	1.56
	만 24세 이상	179	48.0	36.3	14.5	1.1	1.69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55.0	37.2	7.4	0.4	1.53
	대학교 2학년	267	52.8	36.0	10.5	0.7	1.59
	대학교 3학년	266	56.8	33.1	9.8	0.4	1.54
	대학교 4학년	215	54.4	34.0	10.2	1.4	1.59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53.0	35.9	10.4	0.8	1.59
	여자대학	100	71.0	28.0	1.0	0.0	1.30
학제	전문대학	172	54.7	35.5	9.9	0.0	1.55
	4년제 대학	834	54.8	35.0	9.4	0.8	1.56
전공	인문/문과	174	56.9	32.8	8.6	1.7	1.55
	사회과학	124	63.7	28.2	7.3	0.8	1.45
	경영/경제	200	51.5	39.5	8.5	0.5	1.58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4.5	33.3	12.1	0.0	1.58
	자연과학	54	55.6	31.5	13.0	0.0	1.57
	공과대학	222	52.3	35.6	11.3	0.9	1.61
	사범대	23	56.5	30.4	13.0	0.0	1.57
	예술/체육	127	53.5	38.6	7.9	0.0	1.54
자유전공/기타	16	43.8	50.0	6.3	0.0	1.63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46.3	36.5	16.7	0.5	1.71
	30% 이상 50% 미만	331	48.9	42.3	7.9	0.9	1.61
	50% 이상 70% 미만	263	62.7	27.8	8.4	1.1	1.48
	70% 이상	209	62.2	31.6	6.2	0.0	1.44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67.9	25.4	6.0	0.7	1.40
	미수강	225	62.7	31.1	5.8	0.4	1.44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66.5	28.2	4.3	1.0	1.40
	미이수	797	51.7	36.9	10.8	0.6	1.60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또한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4.4%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98.0%, 남성 91.2%가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 표 III-30 】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62.8	31.6	5.0	0.6	1.43
성별	남자	522	52.3	38.9	7.9	1.0	1.57
	여자	484	74.2	23.8	1.9	0.2	1.28
연령	만 21세 미만	418	66.3	28.9	4.1	0.7	1.39
	만 21세~24세 미만	409	61.9	33.3	4.6	0.2	1.43
	만 24세 이상	179	57.0	34.1	7.8	1.1	1.53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62.8	32.6	4.3	0.4	1.42
	대학교 2학년	267	61.0	31.1	6.7	1.1	1.48
	대학교 3학년	266	64.3	32.3	3.4	0.0	1.39
	대학교 4학년	215	63.3	30.2	5.6	0.9	1.44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60.6	33.3	5.4	0.7	1.46
	여자대학	100	83.0	16.0	1.0	0.0	1.18
학제	전문대학	172	59.9	35.5	4.7	0.0	1.45
	4년제 대학	834	63.4	30.8	5.0	0.7	1.43
전공	인문/문과	174	67.8	28.7	3.4	0.0	1.36
	사회과학	124	71.8	22.6	4.0	1.6	1.35
	경영/경제	200	57.5	35.5	7.0	0.0	1.5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59.1	34.8	6.1	0.0	1.47
	자연과학	54	68.5	27.8	1.9	1.9	1.37
	공과대학	222	56.3	38.7	4.1	0.9	1.50
	사범대	23	87.0	13.0	0.0	0.0	1.13
	예술/체육	127	59.8	30.7	8.7	0.8	1.50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81.3	18.8	0.0	0.0	1.19
	30% 미만	203	49.3	40.9	9.4	0.5	1.61
	30% 이상 50% 미만	331	58.6	34.4	5.7	1.2	1.50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50% 이상 70% 미만	263	69.2	27.0	3.4	0.4	1.35
	70% 이상	209	74.6	23.9	1.4	0.0	1.27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79.1	18.7	2.2	0.0	1.23
	미수강	225	74.2	23.6	2.2	0.0	1.28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73.7	23.4	2.4	0.5	1.30
	미이수	797	60.0	33.8	5.6	0.6	1.47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14.2%(여성은 4.9%)는 성폭력 신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표 Ⅲ-31 】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 체		1006	48.1	42.1	9.5	0.3	1.62
성별	남자	522	35.2	50.6	13.8	0.4	1.79
	여자	484	62.0	33.1	4.9	0.0	1.43
연령	만 21세 미만	418	52.4	40.2	7.4	0.0	1.55
	만 21세~24세 미만	409	47.7	42.8	9.3	0.2	1.62
	만 24세 이상	179	39.1	45.3	15.1	0.6	1.77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48.1	43.4	8.5	0.0	1.60
	대학교 2학년	267	49.4	40.4	10.1	0.0	1.61
	대학교 3학년	266	45.5	43.2	11.3	0.0	1.66
	대학교 4학년	215	49.8	41.4	7.9	0.9	1.60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45.4	44.2	10.3	0.2	1.65
	여자대학	100	73.0	24.0	3.0	0.0	1.30
학제	전문대학	172	44.8	43.0	12.2	0.0	1.67
	4년제 대학	834	48.8	42.0	9.0	0.2	1.61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전공	인문/문과	174	53.4	35.6	9.8	1.1	1.59
	사회과학	124	56.5	37.9	5.6	0.0	1.49
	경영/경제	200	41.0	47.5	11.5	0.0	1.71
	생활과학/생명과학	66	48.5	42.4	9.1	0.0	1.61
	자연과학	54	37.0	42.6	20.4	0.0	1.83
	공과대학	222	45.0	44.1	10.8	0.0	1.66
	사범대	23	60.9	30.4	8.7	0.0	1.48
	예술/체육	127	51.2	44.9	3.9	0.0	1.53
	자유전공/기타	16	50.0	43.8	6.3	0.0	1.56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37.4	43.8	18.7	0.0	1.81
	30% 이상 50% 미만	331	44.1	45.6	10.3	0.0	1.66
	50% 이상 70% 미만	263	50.6	43.0	5.7	0.8	1.57
	70% 이상	209	61.7	34.0	4.3	0.0	1.43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59.0	35.1	6.0	0.0	1.47
	미수강	225	58.2	37.3	4.0	0.4	1.47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209	58.4	36.8	4.3	0.5	1.47
	미이수	797	45.4	43.5	10.9	0.1	1.66

※ 사례수 3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 요인별 차이분석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대학 유형, 대학 학제, 성평등 교과목 및 성폭력예방교육 경험별로 차이분석을 실행하였다. 변수별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t검정, ANOVA, 사후비교분석을 병행하여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III-32와 같다.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01$), 대학 유형 및 학제별로는 남녀공학이 여자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0001$),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성폭력 관련 통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또한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폭력 관련 통념은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01$). 즉, 성평등 교과목과 성폭력예방교육은 모두 성폭력 관련 통념을 해소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2 폭력에 대한 인식 - 요인별 차이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df	p.
성별	남자	522	1.78	0.55	9.972 ***	1,004	0.000
	여자	484	1.47	0.45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1.66	0.52	5.565 ***	1,004	0.000
	여자대학	100	1.36	0.44			
대학 학제	전문대	172	1.71	0.49	2.060 *	1,004	0.040
	4년제	834	1.62	0.53			
교육 경험	성평등 교과목	수강	134	1.41	-2.077 *	357	0.039
		미수강	225	1.51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	209	1.49	-4.398 ***	1004	0.000
		미이수	797	1.67			

* $p < 0.05$, ** $p < 0.01$, *** $p < 0.0001$

2) 교육경험

(1) 성평등 교과목 수강 경험

가. 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생들의 성평등 교과목 수강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성평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였다. 성평등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에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과목 예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평등 관련 교과목은 대학에서 교양과정 또는 전공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설되어 있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으며 ‘개설되어 있지 않다’에 9.8%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에 54.5%가 응답하여 성평등 관련 교과목의 개설 여부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실제 성평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교과목이 매우 적어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 유형 및 학제 등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설되어 있다’ 는 응답은 여자 대학(45.0%)이 남녀공학(34.7%)에 비해 높았으며, 4년제 대학(39.6%)이 전문대학(16.9%)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성평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모르는다는 응답은 남성(60.3%)이 여성(4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 성평등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개설되어 있다	개설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006	35.7	9.8	54.5
성별	남자	522	30.8	8.8	60.3
	여자	484	40.9	11.0	48.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30.1	11.5	58.4
	만 21세~24세 미만	409	38.9	9.5	51.6
	만 24세 이상	179	41.3	6.7	52.0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26.4	12.8	60.9
	대학교 2학년	267	31.5	11.6	56.9
	대학교 3학년	266	40.6	6.8	52.6
	대학교 4학년	215	46.0	7.9	46.0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34.7	9.7	55.6
	여자대학	100	45.0	11.0	44.0
학제	전문대학	172	16.9	20.9	62.2
	4년제 대학	834	39.6	7.6	52.9
전공	인문/문과	174	41.4	6.3	52.3
	사회과학	124	50.0	5.6	44.4
	경영/경제	200	42.5	9.5	48.0
	생활과학/생명과학	66	28.8	9.1	62.1
	자연과학	54	38.9	5.6	55.6
	공과대학	222	26.6	10.4	63.1
	사범대	23	56.5	0.0	43.5

구분		사례 수	개설되어 있다	개설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과 여학생 비율	예술/체육	127	15.7	22.8	61.4
	자유전공/기타	16	50.0	6.3	43.8
	30% 미만	203	21.7	12.8	65.5
	30% 이상 50% 미만	331	39.6	11.2	49.2
	50% 이상 70% 미만	263	38.8	6.8	54.4
	70% 이상	209	39.2	8.6	52.2

나. 성평등 교과목 수강 경험

대학에 성평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359명) 중 성평등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37.3%이며,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은 62.7%를 차지하였다. 즉, 전체 조사대상 학생(1,006명) 중 13.3%(134명)만이 교양교과 또는 전공교과 중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의 평균 이수 교과목은 1.2개이다.

성평등 교과목 수강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5.5%)이 남성(27.3%)보다 18.2%p 더 많이 수강했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여자대학(51.1%)이 남녀공학(35.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대학교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37.0%)이 전문대학(41.4%)보다 성평등 교과목 이수 현황이 낮았다. 전공별로는 공과대학(27.1%)과 경영/경제(28.2%) 분야 학생들의 성평등 교과목 이수 현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4 】 성평등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평등교과목 수강 여부		평균 과목수 (개)	
		수강한 적이 있다	수강한 적이 없다		
전 체	359	37.3	62.7	1.2	
성별	남자	161	27.3	72.7	1.2
	여자	198	45.5	54.5	1.2
연령	만 21세 미만	126	24.6	75.4	1.1

구분	사례 수	성평등교과목 수강 여부		평균 과목수 (개)	
		수강한 적이 있다	수강한 적이 없다		
	만 21세~24세 미만	159	47.2	52.8	1.2
	만 24세 이상	74	37.8	62.2	1.2
학년	대학교 1학년	68	22.1	77.9	1.0
	대학교 2학년	84	36.9	63.1	1.1
	대학교 3학년	108	38.9	61.1	1.1
	대학교 4학년	99	46.5	53.5	1.4
대학유형	남녀공학	314	35.4	64.6	1.2
	여자대학	45	51.1	48.9	1.2
학제	전문대학	29	41.4	58.6	1.0
	4년제 대학	330	37.0	63.0	1.2
전공	인문/문과	72	34.7	65.3	1.1
	사회과학	62	45.2	54.8	1.4
	경영/경제	85	28.2	71.8	1.2
	생활과학/생명과학	19	57.9	42.1	1.0
	자연과학	21	71.4	28.6	1.1
	공과대학	59	27.1	72.9	1.2
	사범대	13	38.5	61.5	1.0
	예술/체육	20	35.0	65.0	1.1
	자유전공/기타	8	37.5	62.5	1.7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44	31.8	68.2	1.1
	30% 이상 50% 미만	131	38.2	61.8	1.2
	50% 이상 70% 미만	102	38.2	61.8	1.2
	70% 이상	82	37.8	62.2	1.2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대학생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주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기구(양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에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비정규교과)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년(2017년 5월 ~ 2018년 4월) 동안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성평등 교과목(정규

교과) 이외에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8%이며, 교육이수 횟수는 평균 1.6회이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9.2%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 21.5%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대학교 1학년(30.6%), 2학년(19.1%), 3학년(18.0%), 4학년(14.4%)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21.5%)가 4년제(20.6%) 보다 이수율이 높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20.8%)은 성평등 교과목 이수율(13.3%) 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Ⅲ-35 ■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경험		교육이수 (회)	
		있다	없다		
전 체	1006	20.8	79.2	1.6	
성별	남자	522	20.1	79.9	1.7
	여자	484	21.5	78.5	1.5
연령	만 21세 미만	418	25.8	74.2	1.7
	만 21세~24세 미만	409	17.6	82.4	1.6
	만 24세 이상	179	16.2	83.8	1.5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30.6	69.4	1.7
	대학교 2학년	267	19.1	80.9	1.5
	대학교 3학년	266	18.0	82.0	1.6
	대학교 4학년	215	14.4	85.6	1.7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19.9	80.1	1.6
	여자대학	100	29.0	71.0	1.6
학제	전문대학	172	21.5	78.5	1.6
	4년제 대학	834	20.6	79.4	1.6
전공	인문/문과	174	26.4	73.6	1.7
	사회과학	124	25.0	75.0	1.7
	경영/경제	200	17.0	83.0	1.6
	생활과학/생명과학	66	9.1	90.9	1.2

구분	사례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경험		교육이수 (회)	
		있다	없다		
	자연과학	54	33.3	66.7	1.4
	공과대학	222	17.6	82.4	1.6
	사범대	23	13.0	87.0	1.3
	예술/체육	127	22.0	78.0	1.6
	자유전공/기타	16	25.0	75.0	2.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14.8	85.2	1.6
	30% 이상 50% 미만	331	18.1	81.9	1.5
	50% 이상 70% 미만	263	24.0	76.0	1.8
	70% 이상	209	26.8	73.2	1.6

성폭력예방교육 진행 방법은 외부 전문 강사 강의(53.6%)가 가장 많았으며, 내부 직원 강의(32.5%), 사이버 교육(28.2%), 책자 등 홍보물 배포(22.0%) 순이다.

표 III-36 | 성폭력예방교육 진행 방법- 중복 응답

진행 방법	비중(단위: %)
내부 직원 강의	32.5
외부 전문 강사 강의	53.6
사이버 교육	28.2
책자 등 홍보물 배포	22.0
기타	2.4

3) 학교·가족·사회생활

(1) 학내 성평등 정도

대학 내 성평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83.8%(대체로 평등 70.7% + 매우 평등 13.1%)가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91.0%가 대학이 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76.0%가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유형별 보면, 여자대학(92.0%)이 남녀공학(82.8%) 보다 평등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제에 따라서는 전문대학(93.6%)이 4년제 대학(81.8%) 보다 더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 III-37 】 학내 성평등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평등하지 않다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	대체로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4점 평균
전 체		1006	2.1	14.1	70.7	13.1	2.95
성별	남자	522	0.8	8.2	74.5	16.5	3.07
	여자	484	3.5	20.5	66.5	9.5	2.82
연령	만 21세 미만	418	1.9	12.7	70.8	14.6	2.98
	만 21세~24세 미만	409	2.4	14.7	71.1	11.7	2.92
	만 24세 이상	179	1.7	16.2	69.3	12.8	2.93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1.2	8.5	72.1	18.2	3.07
	대학교 2학년	267	2.2	14.6	72.3	10.9	2.92
	대학교 3학년	266	1.5	13.2	72.2	13.2	2.97
	대학교 4학년	215	3.7	21.4	65.1	9.8	2.81
대학유형	남녀공학	906	2.2	14.9	71.7	11.1	2.92
	여자대학	100	1.0	7.0	61.0	31.0	3.22
학제	전문대학	172	0.0	6.4	77.3	16.3	3.10
	4년제 대학	834	2.5	15.7	69.3	12.5	2.92
전공	인문/문과	174	5.2	17.2	64.4	13.2	2.86
	사회과학	124	1.6	20.2	69.4	8.9	2.85
	경영/경제	200	1.5	13.5	73.5	11.5	2.95
	생활과학/생명과학	66	3.0	7.6	75.8	13.6	3.00
	자연과학	54	0.0	7.4	85.2	7.4	3.00
	공과대학	222	0.5	10.8	72.1	16.7	3.05
	사범대	23	0.0	17.4	65.2	17.4	3.00
	예술/체육	127	3.1	17.3	64.6	15.0	2.91
학과 여학생 비율	자유전공/기타	16	0.0	6.3	81.3	12.5	3.06
	30% 미만	203	2.5	10.3	72.9	14.3	2.99
	30% 이상 50% 미만	331	2.1	14.2	72.2	11.5	2.93
	50% 이상 70% 미만	263	2.7	17.9	68.8	10.6	2.87
	70% 이상	209	1.0	12.9	68.4	17.7	3.03

현재 대학이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성평등 실현이 어려운 이유로 남성 위주의 학교 문화 및 관행(28.2%), 교수 및 강사의 남성 중심적 의식(27.7%), 성차별 피해구제 및 성평등 제도 미흡(19.0%), 전통적 성역할 구분에 따른 역할 분담(11.0%)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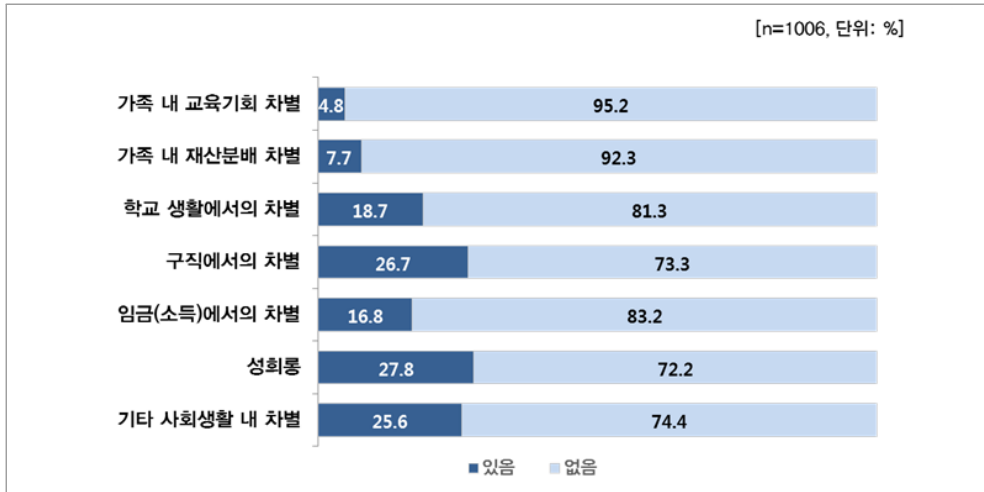
■ 표 III-38 ■ 대학에서 성평등 실현이 어려운 이유

구분	비중(단위: %)
전 체	163명
학교문화와 관행이 남자교수나 남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28.2
교수 및 강사들이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27.7
학내 활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활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3.7
해외 탐방·교환학생·인턴 체험 등의 기회가 남학생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1.9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1.0
여학생의 리더십이 남학생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0.6
학교 전체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들에 비해 적기 때문에	1.8
실제 성차별이 있어도 여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6.1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나 성평등을 정착시킬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19.0

(2) 성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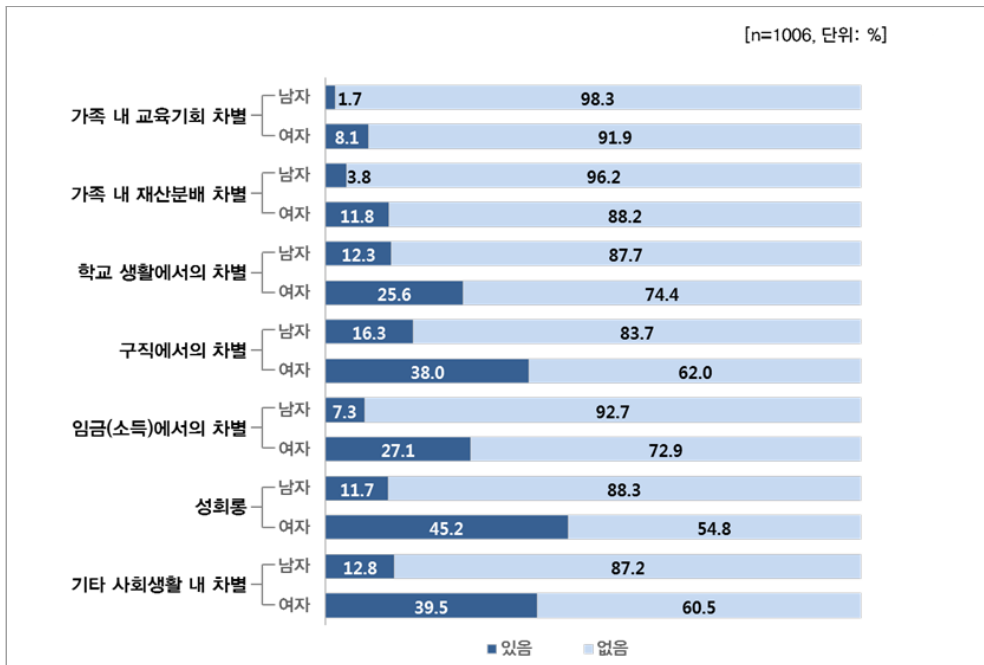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 가족, 사회생활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별로 차별 경험을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9.4%가 한 번 이상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유형은 아래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희롱(27.8%), 구직에서의 차별(26.7%), 기타 사회생활 내 차별(25.6%), 학교 생활에서의 차별(18.7%), 임금(소득)에서의 차별(16.8%), 가족 내 재산분배 차별(7.7%), 가족 내 교육기회의 차별(4.8%) 순이며, 성희롱과 구직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성차별 경험 - 전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45.2%가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남성도 응답자의 11.7%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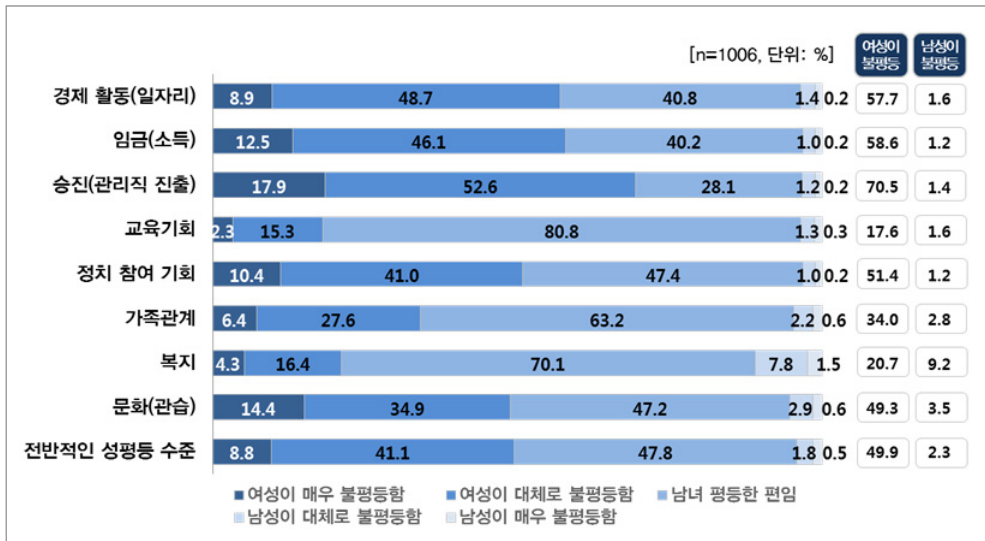
【그림 III-2】 성차별 경험 유형 - 성별



(3)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에 대해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남녀 평등하다는 응답은 교육기회(80.8%) 항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복지(70.1%), 가족관계(63.2%), 정치참여기회(47.4%), 문화(관습)(47.2%), 경제활동(일자리)(40.8%), 임금(소득)(40.2%), 승진(관리직 진출)(2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진(관리직 진출) 부분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7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여성이 불평등하다(49.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남녀 평등한 편이라는 응답도 47.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2.1%p 더 많으나 남녀 평등하다는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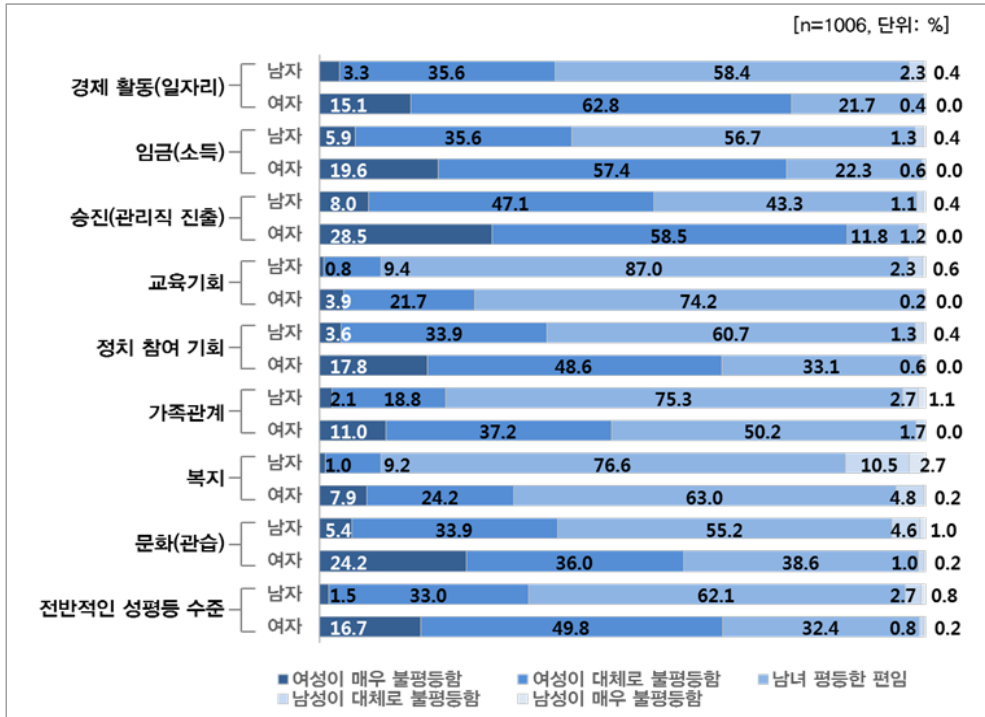
【그림 III-3】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전체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그림 III-4】와 같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승진(관리직 진출) 부분을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과반수 이상 남녀 평등한 편이라는 응답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문화(관습)(60.2%), 정치 참여 기회(66.4%), 승진(관리직 진출)(87.0%), 임금(77.0%), 경제활동(일자리)(77.9%) 분야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

해서 여성은 남녀평등한 편이라는 응답이 32.4%에 불과하였으며, 66.5%가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62.1%가 남녀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5%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4 |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성별



(4) 성폭력 경험

가. 학내 성폭력 경험

지난 1년(2017년 5월~ 2018년 4월) 동안 학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0.3%가 한번 이상 대학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피해 횟수는 2.5회이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가벼운 신체 접촉(18.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폄평·별명사용(18.6%), 가벼운 성적 농담(18.2%)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도 1.6%를 차지하고 있다.

【 표 III-39 】 성폭력 피해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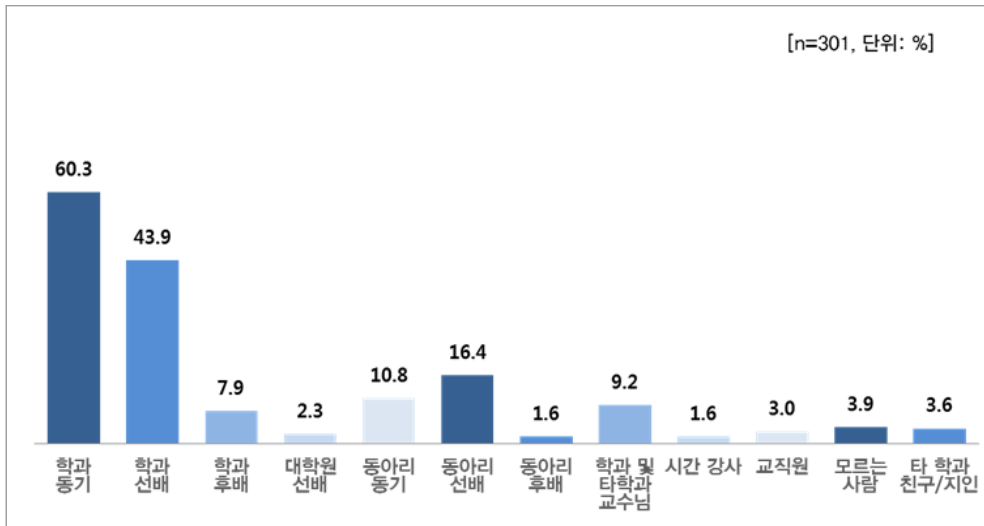
(단위: %, 회)

구분		있음	없음	평균 피해 회수
가벼운 성적 농담(섹시하다는 표현 등)	전체	18.2	81.8	2.5
	남자	9.2	90.8	2.3
	여자	27.9	72.1	2.6
짤은 농담 (음담패설 등)	전체	8.2	91.8	2.6
	남자	5.9	94.1	2.2
	여자	10.5	89.5	2.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폼평, 별명 사용	전체	18.6	81.4	2.5
	남자	10.3	89.7	2.3
	여자	27.5	72.5	2.6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공개적 질문	전체	8.3	91.7	2.4
	남자	6.9	93.1	2.1
	여자	9.9	90.1	2.6
가벼운 신체 접촉 (어깨 두드리기, 손만지기 등)	전체	18.8	81.2	2.2
	남자	10.3	89.7	2.0
	여자	27.9	72.1	2.3
심한 신체 접촉 (엉덩이, 가슴, 껴안기 등)	전체	4.1	95.9	1.8
	남자	2.9	97.1	1.2
	여자	5.4	94.6	2.1
야한 잡지, pc 화면, 이메일 등으로 성적 사진을 보여주거나 노출	전체	2.8	97.2	2.5
	남자	1.7	98.3	1.7
	여자	3.9	96.1	2.8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전체	1.1	98.9	1.5
	남자	0.4	99.6	1.0
	여자	1.9	98.1	1.7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전체	1.6	98.4	2.0
	남자	1.0	99.0	1.2
	여자	2.3	97.7	2.4

나.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는 학과동기(60.3%), 학과선배(43.9%), 동아리 선배(16.4%), 동아리 동기(10.8%), 학과 및 타학과 교수(9.2%), 학과 후배(7.9%)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의 성폭력 가해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로 학과 내에서 동기 및 선배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Ⅲ-5 ■ 성폭력 가해자 유형(중복응답)



다. 성폭력 피해 시 대응 형태

한편, 성폭력 피해 시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응답자는 42.6%에 그쳤으며,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4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대응 유형을 살펴보면,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여성이 46.0%, 남성은 35.1%이다. 반면,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여성이 44.5%, 남성은 58.5%로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0】 성폭력 피해 시 대응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에 대학 내 성폭력상담센터에 알렸다	당시에는 대응을 못하고 학과/동아리 내에서 비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전 체	305	42.6	48.9	2.3	6.2	
성 별	남자	94	35.1	58.5	2.1	4.3
	여자	211	46.0	44.5	2.4	7.1

성폭력 피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2.0%)가 가장 많았으며,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1.1%),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성폭력 피해 시 소극적 대응 이유

구분	비중
전 체	n=175, 100%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2.0
소리 내면 남이 알아봐	2.9
술이나 잠에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1.7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2.3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나 상해를 입을 것 같아서	1.7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1.1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4.0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17.1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8.0
농담이라 크게 불쾌하지 않아서	7.4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0.6
주변에서 민감하다는 반응이 돌아와서	1.1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98.7%) 학생들이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42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05	1.3	98.7
성별	남자	94	1.1	98.9
	여자	211	1.4	98.6
연령	만 21세 미만	123	0.8	99.2
	만 21세~24세 미만	133	2.3	97.7
	만 24세 이상	49	0.0	100.0
학년	대학교 1학년	57	3.5	96.5
	대학교 2학년	81	0.0	100.0
	대학교 3학년	88	1.1	98.9
	대학교 4학년	79	1.3	98.7
대학유형	남녀공학	284	1.4	98.6
	여자대학	21	0.0	100.0
학제	전문대학	35	0.0	100.0
	4년제 대학	270	1.5	98.5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를 이용한 경우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0%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5%는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건이 잘 처리되었다’ 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 표 III-43 ■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건처리 전문성 결여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19.9%), 교내 성폭력상담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17.3%), 교내 성폭력 상담기구 부재(11.3%) 등이다. 대학 학제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는 교내 성폭력 상담소 부재(28.6%), 여자대학은 사건처리 전문성 부족(47.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Ⅲ-43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미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개인 정보 유출 우려	교내 성폭력 상담기 구부재	교내 성폭력 상담 기구 미인지	낮은 사건 처리 전문성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농담 으로 생각 해서	기타
전 체		301	19.9	11.3	17.3	25.6	11.6	4.3	10.0
성별	남자	93	17.2	10.8	17.2	20.4	18.3	6.5	9.7
	여자	208	21.2	11.5	17.3	27.9	8.7	3.4	10.1
연령	만 21세 미만	122	23.0	13.1	18.9	19.7	11.5	4.9	9.0
	만 21세~24세 미만	130	17.7	10.0	17.7	30.8	13.8	2.3	7.7
	만 24세 이상	49	18.4	10.2	12.2	26.5	6.1	8.2	18.4
학년	대학교 1학년	55	29.1	14.5	16.4	14.5	14.5	5.5	5.5
	대학교 2학년	81	19.8	12.3	14.8	27.2	12.3	2.5	11.1
	대학교 3학년	87	14.9	10.3	20.7	25.3	13.8	6.9	8.0
	대학교 4학년	78	19.2	9.0	16.7	32.1	6.4	2.6	14.1
대학 유형	남녀공학	280	20.0	12.1	17.1	23.9	12.5	4.6	9.6
	여자대학	21	19.0	0.0	19.0	47.6	0.0	0.0	14.3
학제	전문대학	35	17.1	28.6	17.1	14.3	8.6	5.7	8.6
	4년제 대학	266	20.3	9.0	17.3	27.1	12.0	4.1	10.2
전공	인문/문과	64	23.4	7.8	17.2	26.6	12.5	1.6	10.9
	사회과학	40	22.5	15.0	17.5	15.0	12.5	10.0	7.5
	경영/경제	51	13.7	13.7	11.8	37.3	5.9	3.9	13.7
	생활과학/생명과학	25	12.0	16.0	16.0	28.0	20.0	4.0	4.0
	자연과학	14	7.1	21.4	0.0	28.6	0.0	14.3	28.6
	공과대학	61	26.2	11.5	19.7	23.0	11.5	1.6	6.6
	사범대	4	25.0	0.0	50.0	0.0	0.0	0.0	25.0
	예술/체육	38	18.4	5.3	26.3	23.7	15.8	5.3	5.3
	자유전공/기타	4	25.0	0.0	0.0	25.0	25.0	0.0	25.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48	25.0	14.6	25.0	25.0	6.3	2.1	2.1
	30% 이상 50% 미만	102	13.7	17.6	10.8	30.4	10.8	5.9	10.8
	50% 이상 70% 미만	92	21.7	6.5	20.7	19.6	18.5	6.5	6.5
	70% 이상	59	23.7	5.1	16.9	27.1	6.8	0.0	20.3

※ 사례수 20개 미만은 분석에서 제외함.

라. 대학 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할 문제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수의 성폭력 및 성희롱(41.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데이트 폭력(27.2%), 학생 간의 성폭력(26.6%)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의 성폭력 및 성희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대학(59.0%)이 남녀공학(39.0%)보다 20%p 높았으며, 4년제 대학(42.8%)이 전문대(32.0%)보다 10.8%p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I-44 】 대학 내 발생 성폭력 사건 관련 시급히 해결할 문제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의 성폭력 및 성희롱	데이트 폭력	없음	모두	기타
전 체		1006	26.6	41.0	27.2	1.2	1.3	2.7
성별	남자	522	26.2	41.6	26.1	1.9	1.3	2.9
	여자	484	27.1	40.3	28.5	0.4	1.2	2.5
연령	만 21세 미만	418	29.7	37.3	29.7	0.7	1.0	1.7
	만 21세~24세 미만	409	24.2	45.2	24.7	1.2	2.0	2.7
	만 24세 이상	179	25.1	39.7	27.4	2.2	0.6	5.0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29.1	38.8	30.2	0.8	0.4	0.8
	대학교 2학년	267	28.8	38.2	27.0	0.7	1.9	3.4
	대학교 3학년	266	24.1	44.7	24.4	2.3	1.1	3.4
	대학교 4학년	215	24.2	42.3	27.4	0.9	1.9	3.3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27.9	39.0	28.0	1.2	1.4	2.4
	여자대학	100	15.0	59.0	20.0	1.0	0.0	5.0
학제	전문대학	172	26.7	32.0	37.2	1.2	1.2	1.7
	4년제 대학	834	26.6	42.8	25.2	1.2	1.3	2.9
전공	인문/문과	174	23.6	43.7	25.9	0.0	2.3	4.6
	사회과학	124	29.8	41.9	26.6	0.0	0.8	0.8
	경영/경제	200	28.0	39.0	28.0	1.0	0.5	3.5
	생활과학/생명과학	66	30.3	37.9	22.7	1.5	1.5	6.1
	자연과학	54	22.2	50.0	20.4	0.0	1.9	5.6
	공과대학	222	27.5	36.9	30.2	2.3	1.8	1.4
	사범대	23	17.4	39.1	43.5	0.0	0.0	0.0

구분	사례 수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의 성폭력 및 성희롱	데이트 폭력	없음	모두	기타	
	예술/체육	127	24.4	44.9	27.6	2.4	0.0	0.8
	자유전공/기타	16	37.5	37.5	12.5	6.3	6.3	0.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26.6	40.4	29.1	1.5	1.5	1.0
	30% 이상 50% 미만	331	27.5	39.9	27.2	1.2	1.2	3.0
	50% 이상 70% 미만	263	31.6	36.9	25.1	1.5	1.5	3.4
	70% 이상	209	19.1	48.3	28.2	0.5	1.0	2.9

마. 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이 주력해야 할 노력

학교 내 성폭력예방을 위해 대학이 주력해야 할 예방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성폭력 발생 시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 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 강화(23.2%),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15.7%), 정규 교과목내 성평등 관련 교과목 신설(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45 】 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이 주력해야 할 노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정규 교과목 내 성평등 관련 교과목 신설	성폭력 예방 캠페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기타	
전 체	1006	23.2	14.5	11.7	31.8	15.7	3.1	
성별	남자	522	23.4	13.0	14.2	28.0	17.4	4.0
	여자	484	22.9	16.1	9.1	36.0	13.8	2.1
연령	만 21세 미만	418	25.8	13.6	11.0	32.3	13.9	3.3
	만 21세~24세 미만	409	22.2	14.9	13.2	31.1	16.1	2.4
	만 24세 이상	179	19.0	15.6	10.1	32.4	19.0	3.9

구분	사례 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정규 교과목 내 성평등 관련 교과목 신설	성폭력 예방 캠페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기타	
학년	대학교 1학년	258	25.2	14.0	12.8	31.4	14.7	1.9
	대학교 2학년	267	24.0	13.9	11.2	30.0	16.1	4.9
	대학교 3학년	266	23.7	13.5	13.2	28.9	18.0	2.6
	대학교 4학년	215	19.1	17.2	9.3	38.1	13.5	2.8
대학 유형	남녀공학	906	22.8	14.6	12.6	31.0	16.0	3.0
	여자대학	100	26.0	14.0	4.0	39.0	13.0	4.0
학제	전문대학	172	30.8	12.2	16.9	20.9	16.3	2.9
	4년제 대학	834	21.6	15.0	10.7	34.1	15.6	3.1
전공	인문/문과	174	21.8	13.8	7.5	37.4	14.4	5.2
	사회과학	124	21.8	15.3	12.1	29.8	18.5	2.4
	경영/경제	200	16.5	15.5	12.5	33.5	20.5	1.5
	생활과학/생명과학	66	28.8	24.2	12.1	19.7	12.1	3.0
	자연과학	54	20.4	18.5	9.3	37.0	13.0	1.9
	공과대학	222	27.9	9.9	16.2	28.4	14.0	3.6
	사범대	23	39.1	17.4	8.7	21.7	13.0	0.0
	예술/체육	127	25.2	13.4	10.2	34.6	12.6	3.9
	자유전공/기타	16	12.5	18.8	6.3	37.5	25.0	0.0
학과 여학생 비율	30% 미만	203	24.6	16.7	18.2	27.1	13.3	0.0
	30% 이상 50% 미만	331	20.8	19.0	15.4	24.8	16.3	3.6
	50% 이상 70% 미만	263	26.2	9.5	7.2	36.1	16.7	4.2
	70% 이상	209	21.5	11.5	5.3	42.1	15.8	3.8

3. 시사점

대학생의 성평등의식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과 내에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인문/사회과학 전공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남녀공학이 여자대학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험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여자대학이 남녀공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경험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간의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 및 학제별로는 남녀공학이 여자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성폭력 관련 통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폭력 관련 통념은 성평등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폭력 관련 통념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들의 성평등교육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학생(1,006명) 중 13.3%(134명)만이 교양교과 또는 전공교과 중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의 평균 이수 교과목은 1.2개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성평등 교과목(정규교과) 이외에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0.8%이며, 교육이수 횟수는 1.6회이다. 반면,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79.2%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은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문대(21.5%)가 4년제(20.6%) 보다 이수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교과목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전체 응답자의 49.4%가 학교·가족·사회생활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한 번 이상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차

별 유형은 성희롱(27.8%), 구직에서의 차별(26.7%), 기타 사회생활 내 차별(25.6%), 학교 생활에서의 차별(18.7%), 임금(소득)에서의 차별(16.8%), 가족 내 재산분배 차별(7.7%), 가족 내 교육기회의 차별(4.8%) 순이며, 성희롱과 구직에서의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45.2%가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남성도 응답자의 11.7%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전체 응답자의 30.3%가 대학 내에서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피해 횟수는 2.5회이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가벼운 신체 접촉(18.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별명사용(18.6%), 가벼운 성적 농담(18.2%)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도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학과동기(60.3%), 학과선배(43.9%), 동아리 선배(16.4%), 동아리 동기(10.8%), 학과 및 타학과 교수(9.2%), 학과 후배(7.9%)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의 성폭력 가해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로 학과 내에서 동기 및 선배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건처리 전문성 결여(2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19.9%), 교내 성폭력상담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17.3%), 교내 성폭력 상담기구 부재(11.3%) 등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교과목과 성폭력예방교육이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성평등 교과목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 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성평등 교과목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대부분 1시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평등의식 함양에는 시간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다. 반면, 성평등 교과목은 교양과정 또는 전공과정에서 최소 1학기 이상 진행된다. 또한 성평등 교과목은 특성상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 수행을 당연시 여기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본 실태조사결과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21.5%)가 4년제 대학(20.6%) 보다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은 전문대가 4년제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수율과 교육효과성이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향후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강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전체 응답자의 30.3%가 대학 내에서 한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 중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센터, 학생생활상담소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사건처리의 전문성 부족과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어 대학 내 성평등기구의 역할 제고 및 전문성 보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

1.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현황
2. 성평등교육 비정규교과 운영현황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

1.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현황

1) 조사개요

대학 교육은 크게 정규 교과과정과 비정규교과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 교과 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활동으로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된다. 비정규교과 과정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학 내의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총칭한다(김수경, 2016).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 또한 정규 교과과정과 비정규교과과정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젠더의식 강화교육, 진로설계지도, 직무능력 훈련, 취업역량강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대학 정규과정을 중심으로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젠더의식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성평등 교과목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성평등 교과목은 여성학, 페미니즘, 젠더, 섹슈얼리티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52개 대학으로⁹⁾ 대학별 학제 및 유형에 따라 4년제 일반대, 4년제 특수대, 4년제 여자대, 4년제 신학대¹⁰⁾와 일반 전문대 및

8) 여대생의 다양한 진로 대안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여대생의 사회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과 취업, 여성과 창업, 여성커리어 개발, 여성리더십 등의 교과목은 성평등교육에서 제외하였다.

9) 지방에 분교가 있으며 서울 지역에 분교가 위치한 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 전공대, 사내대학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총신대학교는 작년부터 현재(2018. 6. 7.기준)까지 ‘총신대 사태(학생들의 총장사퇴 요구, 수업거부,

여자 전문대로 범주화하였다.

표 IV-1 조사대상 대학

구분	대학현황
4년제 일반대학 (25개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4년제 특수대학 (5개교)	서울교육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4년제 여자대학 (6개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년제 신학대학 (7개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 KC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일반 전문대학 (5개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삼육보건대학교, 서일대학교, 인덕대학교
여자 전문대학 (4개교)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승의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2일에서 6월 7일까지이며,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교육과정 중 성평등 교과목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학별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성평등 교과목 개설현황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성평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어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¹¹⁾

주요 분석자료는 아래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요람과 교육과정 안내(편람)이다. 31개 대학이 자체 홈페이지에 대학요람을 통해 학사규정과 대학 교육 과정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5개 대학은 교육과정 편람이 별도로 공개되어 있었다. 또한 1개 대학은 별도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강의계획안 조치가 가능하였다.

농성)가 발생하여 학내분류에 따른 학사운영 과행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사 행정 및 대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과정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11) 단순히 '여성'을 교과목 제목에 포함시키거나 교육대상을 여학생으로 한정한 경우 성평등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조사는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평등 교과목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최근 교육과정(2018년, 2017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과년도(2016년, 2015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조사대상 자료의 시점이 동일하지 않은 대학이 일부 있다. 또한 교과목명만 게시되고 있고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없어 성평등 관련 교과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요람, 교육과정 편람 등에 교과목명과 교과목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및 개요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였다. 요람 및 교육과정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가 별도로 정비되지 않은 대학(14개)은 학과별 전공과목 현황, 기초교양대학(교양학부, 교양교육원 등) 교육과정 현황, 학사 및 수강신청 안내에 공지된 교육과정, 강의시간표 등을 조사하였다.

Ⅰ 표 IV-2 Ⅰ 대학별 분석자료

분석자료	해당 대학
대학 요람 (31개 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KC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명지전문대학 ¹²⁾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수요목, 교육과정표) 안내(편람) (5개 대학)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사안내 (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강의계획안 조회) (1개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학과별 전공과목 현황 기초교양대학(교육원) 교육과정 현황 학사공지사항, 강의시간표 (14개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성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서일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2)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 현황

(1) 4년제 일반대학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은 총 25개이다. 이중 22개 대학은 요람 및 교육과정 안내(편람) 를 통해 공개된 전체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요람 및 교육과정 안내(편람) 등이 없는 3개 대학은 학과별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성공회대학교는 학과별 홈페이지 및 학사행정시스템을 조사하였으며, 한성대학교는 교양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초 교양과정과 학과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8년 교과과정을 검토하였다.

아래 **표 IV-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마다 다양한 주제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 대상 젠더의식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별로 여성학과 페미니즘 관련 과목을 교양과정 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대학에서 여성학을 개설하였고, 5개 대학에서는 페미니즘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성과 문학, 여성과 사회, 현대사회와 젠더, 성의 역사, 서양사 속의 젠더, 젠더와 법, 한국여성사, 철학과 여성 등의 교양과목이 운영되고 있었다.

성평등교육 관련 전공교과는 인문, 사회계열 분야에서 주로 개설되어 있었다. 인문 분야에서는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과 젠더, 여성과 문학 등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며, 여성들의 작품 연구를 통해 여성주의적 비평 안목을 함양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 정치학, 종교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젠더사회학, 성의 사회학, 성과 문화, 성과 정치, 기독교 윤리와 여성해방, 미디어와 젠더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이에 비해 공대, 자연계열 분야에서는 성평등 관련 연계 전공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성평등 교과목 개설 현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대학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대학교는 교양과정에 성평등교육 관련 교과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명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전공교과에 성평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2) 명지전문대학은 대학요람이라는 용어 대신 대학안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3개 대학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다양한 성평등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전공분야에서 성평등 교과목이 다수 개설된 대학은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이다. 특히 서강대학교는 여성학 연계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4년제 일반대학 중 가장 많은 성평등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에도 다양한 성평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어서 대학별로 특징이 있는 성평등 교과목을 각 대학의 요람 등에 소개된 교과목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대학교는 ‘제2의 성’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과목은 시몬드 보부아르의 저서인 「제2의 성(1949)」의 심도 있는 독해를 중심으로 여성을 남성의 ‘타자’로 규정해온 젠더의 역사를 통찰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 주요 논제들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의 ‘기술과학과 섹슈얼리티’는 과학기술학 융합전공(문과대학)의 전공 필수과목이다. 본 교과는 과학과 지식에 관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접근, 성차 연구와 젠더 개념의 형성, 과학의 은유와 성규범, 성역할, 성정체성의 형성, 생산기술, 가사 기술, 생식 기술, 성형 기술에서의 성 문제 등을 다루면서, 젠더/섹슈얼리티의 관점으로 기술과학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학과의 ‘여성교육론’은 현재 여성교육의 문제점과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교육학 및 사회학, 철학 등 기타 유관 학문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과이다.

동국대학교는 공과대학 공통과정으로 ‘공감과 소통의 공학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교과목명만으로는 성평등 교과목으로 보기 어려운 강좌이다. 본 교과는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공학지식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기술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감성, 창의성, 협업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과대학 남녀 학생들이 공학과 젠더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루면서 다각적인 공학적 이해를 함양하는 과정으로 공과대학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의 ‘유럽의 젠더연구(유럽문화 전공과목)’는 유럽에서 젠더 개념이 대두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사적, 학문적 의미를 영미권,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사회의 성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종교학 전공과목인 ‘종교와 젠더’는

세계의 종교 전통들이 남녀의 성적 차이를 어떻게 보며, 여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여성학적,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성평등 사회의 구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는 교과목이다.

서울대학교는 ‘주제로 읽는 고전: 성과 사랑’을 교양과정에 개설하고 있다. 본 강좌는 성의 구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성의 차이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성의 차이가 어떻게 차별로 발전하면서 고착화되는지, 차별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철학, 심리학, 생물학, 정치학, 역사, 여성학 등의 고전을 선별해 읽는 과정에서 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적 에너지가 발현된 형태로서 ‘사랑(eros)’의 역사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는 학습한다. 이어서 ‘과학기술과 젠더’는 과학기술학(연계전공과정) 전공교과로 과학기술을 젠더 정체성/젠더 구조/젠더 상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젠더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명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담론 등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과학기술과 젠더가 만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의 ‘유교문화와 여성’은 교양교과로 여성의 관점에서 과거의 유교문화를 성찰하고, 유교문화 속에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와 이 가치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담론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관계와 젠더(국제관계학과)’ 강좌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거나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과는 달리 새롭게 국제관계의 해석을 시도하는 교과목이다.

표 IV-3 | 4년제 일반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자료
가톨릭대학교	교양과정	여성학, 한국사회의 성과 문화, 제2의 성	2016~2017 가톨릭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국사학(한국사속의 여성과 소수자), 종교학과(여성신학), 영성문화트랙(여성신학), 영미언어문화학부 ¹³⁾ (영미문학과 여성),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사회학(성의 사회학)	
건국대학교	교양과정	페미니즘과 성, 여성과 법률, 여성학, 성과 문학	2018 건국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영어영문학과(영미시와 성의식) ¹⁴⁾	
경희대학교	교양과정	젠더·섹슈얼리티·문학, 젠더와 역사: 평등과 차이의 정치, 종교문화와 여성, 젠더·가족·일, 페미니즘미학과 예술, 구별의 정치학: 인종·계급·성	후마니타스 칼리지 홈페이지 교과목 소개(배분이수교과: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사회학과(젠더사회학), 한국어학과(한국여성문화), 영어학부(젠더와 영미문학)	
고려대학교	교양과정	문학과 여성, 여성과 사회, 독일여성문학, 한국전통사회 가족 및 여성의 역사, 여성학, 중국여성사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교양 교과목 교수요목(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정부행정학부(여성복지론), 인문학(영미문학과 젠더), 의료인문학(영미문학과 젠더, 젠더와 사회), 영어영문학과(영미문학과 젠더), 사회학과(젠더-국가와 정책, 젠더와 사회, 몸과 섹슈얼리티), 일어일문학과(동아시아젠더론), 사회복지학(여성복지론), 한국사학과(한국여성사), 미디어학부(여성과 미디어), 서어서문학과(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연구, 스페인 문학과 여성), 패션디자인 및 머천다이징(여성과 미디어), 과학기술융합전공(기술과학과 섹슈얼리티), 공공사회학전공(여성복지론), 교육학과(여성교육론)	
광운대학교	교양과정	여성과 남성 ¹⁵⁾ , 성의 심리학 ¹⁶⁾	2016~2017 광운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미디어 영상학부(미디어와 젠더)	
국민대학교	교양과정	현대사회와 여성	2017 국민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자료
	17)		
	전공 과정	사회학과(성과 사회),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동국대학교	교양 과정	현대사회와 젠더	2018학년도 교과과정 안내서 (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정치행정학부 북한학전공(북한사회와 여성),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공과대학 공통(공감과 소통의 공학교육), 영화영상학과(예술과 젠더),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페미니즘과 영문학), 창의적 사회디자인 연계전공(예술과 젠더), 입법코디네이터 연계전공(예술과 젠더)	
명지대학교	교양 과정 18)	여성과 정치, 여성과 심리 ¹⁹⁾	2015 명지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정치외교학과(여성정치론),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아동학과(가족과 젠더)	
삼육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과 현대사회(feminism) ²⁰⁾	2017 삼육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 13) 영미언어문화학부에 ‘언어와 젠더’ 교과목이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명을 보면 성평등교육 과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목 설명을 살펴보면 ‘영어학개론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영통사론, 영어음운론, 영어의미론, 영어문체론 중에서 대표적인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영어학 연구의 방법을 모색한다’ 고 설명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14) 영미시 작품들에서 남녀 성의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특히 여성 시인들의 작품에서 시인들의 여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현대 페미니즘의 여러 주장들과 관련지어 연구한다(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 조사 내용).
- 15) 본 강좌는 개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성역할, 성차, 성차별,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16) 성에 관한 이슈, 담론, 사회문화적 통념 등을 토론하면서 성의 사회적·정치적·문화·심리적 함의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교과이다.
- 17) ‘성과 법률’ 이 교양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명을 보면 성평등교육 과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목 설명을 살펴보면, ‘법률 문제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나 특히 남녀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장차 건전한 이성교제를 기대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고 기술되어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18) 이외에도 성평등 관련 유사 교과목으로 여성·소수자·공동체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본 강좌는 삶의 시각을 사회적 약자, 혹은 주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른 소수자적인 집단이나 개인의 관점에서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자료
상명대학교	교양과정	한국여성의 역사, 성과 문화, 공학도를 위한 젠더·가족·일, 젠더와 문화, 문화텍스트로 읽는 젠더이슈	2018 상명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없음	
서강대학교	교양과정	성의 역사	2018 서강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유럽문화전공(유럽의 젠더연구, 독일문학과 성담론, 프랑스 문학과 여성21), 영미어문전공(성과 문학, 여성 문학), 일본문화전공(일본사회와 여성), 사회학 전공(성과 사회, 여성학 이론), 중국문화전공(젠더와 중국사회), 사학전공(한국여성사, 성과 역사), 종교학전공(종교와 젠더), 국문학전공(여성문학의 사적 이해22), 철학전공(여성철학), 미국문화전공(젠더세미나), 스타트업(Entrepreneurship)전공(중국문화 속의 여성), 여성학 연계전공(현대사회와 여성, 여성학 개론, 성평등 인간학, 여성학 이론 연구, 여성학 연구방법론, 여성과 일, 유교문화와 여성, 여성과 문학, 역사에서의 여성, 여성과 정치, 종교와 성이데올로기, 여성심리학, 남성문화연구, 여성신학, 여성과 대중문화, 한국여성사, 여성과 법률, 서양여성사, 여성학 고전강독, 여성학 특강, 성과 사랑, 상담과 젠더, 근대 사회의 대두와 여성, 여성학 이론, 공공인재전공(여성과 법률), 동아시아학 연계전공(한국여성사)	

바라보는 시간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현재의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이해관계와 방향에서 바라보려는 수업이다.

- 19) 여성의 성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고정관념이 여성의 심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여성의 역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성성과 몸에 대한 여성심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피는 교과이다.
- 20)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새로운 인식을 통해 양성평등적 공존과 협동 그리고 개인적 가치에 바탕을 둔 다양성의 존중을 모색하면서 인간이해에 대한 유연성 발달을 목표로 한다.
- 21) ‘프랑스 문학과 여성’은 프랑스 여성문학의 개관과 실제 작품의 독서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여성주의의 대두에 기여한 프랑스 여성주의 문학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그 현실적인 반영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소개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 포함시켰다. 반면, 유럽문화 전공과목에 ‘독일 문학과 여성’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본 교과목은 ‘독일 여성문학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개관하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자료
서경대학교	교양과정	없음	2015 서경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철학(페미니즘과 여성철학)	
서울대학교	교양과정	여성과 문학, 페미니즘 미학과 예술, 서양사 속의 젠더, 성의 철학과 성윤리, 젠더와 법, 페미니즘의 이해, 섹슈얼리티와 성평등, 주제로 읽는 고전: 성과 사랑	2016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편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²³⁾	연계전공 유럽지역학(성과 문화, 역사 속의 여성과 여성문화),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서양사학과(역사 속의 여성과 여성문화), 정치외교학부(성과 정치), 사회학과(성과 사회), 인류학과(성과 문화), 연계전공 과학기술학(과학기술과 젠더), 법학부(법여성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과정	여성학	기초교육학부 홈페이지-교양선택 교과목
	전공과정	없음	2017~20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과정	여성학의 이해, 여성문학의 역사적 전개, 성과 사회, 유교문화와 여성	2018 서울시립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철학과(여성철학), 국제관계학과(국제관계와 젠더),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빅데이터분석(국제관계와 젠더), 철학-동아시아 문화학(여성철학)	
성공회대학교	교양과정	여성·평화·생명, 젠더로 보는 문학, 젠더로 세상읽기, 인권과 평화-여성, 여성운동사, 일상의 페미니즘	-학과별 홈페이지 교육과정(교과목 해설 미포함) -학사행정시스템(2017년도 개설교과 중 젠더교과과목 검색)
	전공과정	영어학과(영미문학과 여성), 신학과(여성신학, 기독교 여성사), 사회학과(계급 젠더 에스니시티, 젠더사회학, 성의사회학), NGO 연계전공(젠더와 정책, 성의사회학: 섹슈얼리티-문화와 역사)	

여 잉에보르크 하흐만, 가브리엘레 보만, 크리스타 볼프 등 독일어권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고 교과목을 설명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22) 여성주의 시각에서 한국 문학의 역사적인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사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이다.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자료
성균관대학교	교양과정	여성의 역사와 문학·예술, 여성과 사회,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남성	2017 성균관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사회학과(성의 사회학), 글로벌리더학부(여성과 국정관리),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행정학과(여성과 국정관리), 영어영문학과(영미여성문학), 프랑스어문학과(프랑스문화와 젠더, 프랑스여성작가 연구, 프랑스 여성문학), 소비자가족학과(가족과 젠더), 국어국문학과(한국문학과 젠더), 독어독문학과(문학과 젠더), 비교문화 학사과정연계전공(성과 사랑의 문화론, 영미여성문학, 문학과 젠더, 페미니즘이론세미나), 글로벌문화 콘텐츠전공:학사과정 연계전공(한국문학과 젠더), 사학과(서양여성과 일상생활의 역사)	
세종대학교	교양과정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여성학, 성과 문화	2018 세종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영어영문학전공(영미여성문학 ²⁴⁾)	
숭실대학교	교양과정 ²⁵⁾	여성학	2017~2018 숭실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영어영문학과(젠더, 스페이스, 빅토리아소설 ²⁶⁾),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연세대학교	교양과정 ²⁷⁾	성의 역사, 성과 문화적 재현, 남녀평등과 인간화, 페미니즘의 이해, 나의 일상과 페미니즘, 성평등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2018 연세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과정	국어국문학과(고전문학과 젠더), 영어영문학과(페미니즘문학비평), 노어노문학과(러시아의 여성성담론), 사학(중국역사와 여성, 서양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 신과대학(기독교윤리와 여성해방),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사회학(성과 사회, 몸의 사회학: 성의 사회학적 구조), 아동·가족학(가족과 젠더), 문화인류학(성과 문화), 철학(여성의 철학), 글로벌행정학전공(여성정책론, 다문화·젠더·발전문제), 한국 및 동아시아학 연계전공(가족과 젠더), 리더십 교과과정(페미니즘문학비평, 성과 사회, 페미니즘의 이해, 성의 역사), 비교문학(성과 문화적 재현,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자료
		페미니즘의 이해), 문화비평학(성과 문화적 재현, 페미니즘의 이해, 성과 사회, 성과 문화)	
중앙대학교	교양과정	섹슈얼리티와 문화	2016~2017 중앙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철학과(페미니즘 철학), 사회학과(현대사회와 여성,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몸과 섹슈얼리티, 젠더사회학),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과정	젠더와 법, 한국여성사, 여성과 사회, 문학과 성, 한국가족여성사	학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수업 자료실): 2018 현행 교과과정(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철학과(페미니즘과 철학), 국제학 전공(Race, Culture and Gender in U.S. Media), 법학과(성과 법), 정치외교학과(여성정치), 방송·영상·뉴미디어전공(성과 미디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젠더와 문화), 한국예술종합학교(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 입문), 한국학과(젠더와 근대한국사회, 한국사회와 젠더연구입문)	
한성대학교	교양과정	성과 사회	상상력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기초교양교육과정 소개(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역사문화콘텐츠 트랙(중세유럽의 전쟁, 섹슈얼리티, 질병)	학과별 홈페이지 교과목 소개(교과목 해설 미포함)
한양대학교	교양과정	성과 문화, 성과 인간의 대화	2015~2016 한양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사회학과(성의 사회학), 사학과(미디어와 트랜스내셔널 젠더의 역사), 독어독문학과(젠더와 문학), 미디어문화전공(미디어로 읽는 여성사)	2016~2018 학과별 홈페이지 교과목 현황(교과목 해설 미포함)
홍익대학교	교양과정	철학과 여성, 여성학, 여성과 법률, 성과 사회, 여성과 공학	2017 홍익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과정	없음	

23) 영어영문학과에 ‘여성문학의 전통’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는 ‘여성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공부함으로써 영문학 전통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24) 19, 20세기 주요 영미 여류 작가들의 대표 작품을 통해 여성주의적 비평 안목 함양을 목표로 하고

(2) 4년제 특수대학, 여자대학 및 신학대학

가. 4년제 특수대학

4년제 특수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5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는 각각의 2017년 요람을 확인하였고, 추계예술대학교는 학사안내를 통해 공지된 2018년 교과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서울교육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최근 요람 및 교과과정 해설서가 별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소개 홈페이지, 학과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목 편성 및 개설과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학요람 및 개설과목 현황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정규교과에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양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여성과 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 입문, 여성과 예술), 한국체육대학교(결혼과 양성평등)이다. 전공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연계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며, 1개 교과(영상이론과: 영화와 페미니즘)를 개설하고 있다.

추계예술대학교의 ‘여성과 예술(교양교과)’은 여성이 미술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1970년대 린다 노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 예

있다.

- 25) ‘성의 담론과 이해’ 교과목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는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성의 문제는 무엇이며 성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있게 행위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성의 학술적 이론과 실제 문제들의 탐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교과목 목표가 젠더의식 함양과 거리가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26) 교과목 해설을 보면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즈, 샤롯데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조지 엘리엇 등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영국사회와 영국인 특유의 정서, 도덕관과 가치관, 중산층의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를 특징짓는 리얼리즘 문학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젠더, 스페이스와 같은 현대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27) 교양과정에 ‘문학과 성’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목 해설에 따르면 ‘고대 동서양 문학으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학작품에서 소재로 채택된 것은 사랑문제였으며, 그 사랑의 이면에는 성문제가 핵심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성담론이 활기를 띄게 되면서 성문학은 이제 당당히 하나의 장르로 굳어져가고 있으며, 작품전체가 성문제 묘사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은 아닐지라도 대개의 문학작품에는 성적 요소가 끼어들어 있다.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폐쇄적 성교육만을 받았으므로 성문학을 바른 안목으로 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강좌를 통해 성과 성문학을 바로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술가는 없었는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촉발된 본격적인 페미니즘 미술사의 흐름을 짚어 보면서 주요 작가, 작품, 사회적 구조를 분석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화와 페미니즘’ 강좌는 영상이론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는 현대 영화연구에서 주요 토픽인 시네 페미니즘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표적인 페미니즘 작품과 페미니즘 텍스트 비평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기호학, 정신분석학, 이데올로기 비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성 운동사,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진단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과목이다.

표 IV-4 | 4년제 특수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서울 교육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교육과정 소개 홈페이지: 교육과정 해설, 학기별 교육과정 운영기준, 과정별 과목구성, 교육과정 신/구 대비표(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교과목 소개(교과목 해설 미포함)
추계 예술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과 예술	-교양학부 홈페이지 교과목 소개(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학사안내(교과과정):2018년도 추계예술대학교 교과과정(교과목 해설 미포함)
한국예 술종합 학교	교양 과정	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 입문, 예술과 여성	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영상이론과(영화와 페미니즘)	
한국 체육 대학교	교양 과정	결혼과 양성평등	2017 한국체육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육군 사관 학교	교양 과정	없음	-교과과정(교육훈련) 소개 홈페이지:교과목 편성(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개설과목(교과목 해설 미포함)

나. 4년제 여자대학

4년제 여자대학은 총 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은 최근 대학 요람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조사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는 홈페이지(학사안내 메뉴)에 교과과정 및 교과목 현황, 강의계획안이 공개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요람은 없으나 교양학부와 단과대학별로 교과과정 일람표가 게시되어 있어 정규교과 운영 현황 분석이 가능하였다.

4년제 여자대학은 전반적으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이 고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다른 여자 대학에 비해 다수의 성평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별로 특징적인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명여자대학교의 ‘문화텍스트로 읽는 여성 콤플렉스(교양과정)’는 문화텍스트 이론과 심리학, 사회학의 융합적 교과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감정이 구성되고 관리되는 방식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목은 젠더화된 사회에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콤플렉스를 키워드로 분석하고, 여성 콤플렉스의 중심이 되는 정동(affects)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영문학부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교과목은 서구 제국주의와 남성 가부장제의 폭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억압구조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형성과정과 개념을 이해하고, 영어권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식민 페미니스트 텍스트를 통해 두 이론의 대화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스크린에 투영된 테크노컬처와 젠더’는 교양과정에 개설된 강좌로 테크노컬처의 다양한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인간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여성’ 역시 교양교과이다. 본 강좌는 근대적 발전주의, 화폐중심 경제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대안 경제 이론, 전지구적 상품화 속에 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성폭력, 젠더, 혐오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글로벌 여성 운동의 역사 속에서 재생산권, 월경권, 성적권리 등 아시아 여성 인권의 다양한 이슈와 저항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지리교육과에서 전공교과로 개설된 ‘페미니즘 지리학’은 페미니즘을 통해 현존하는 정치, 경제적인 공간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대안적인 시각 제시를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IV-5 | 4년제 여자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덕성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문학 속의 여성들, 여성학개론, 여성과 법률	교양학부 교양교과과정 일람 표(교과목 해설 미포함) 대학(단과대학별) 전공과정일 람표(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사회학과(여성과 남성), 문화인류학과(성과 문화),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동덕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28)	성과 사랑 ²⁹⁾ , 여성과 사회, 법여성학, 여성 과 문화, 여성과 휴머니즘 ³⁰⁾ , 한국근현대여 성사, 여성심리학(Gender Psychology) ³¹⁾	2017 동덕여자대학교 요람(교 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글로벌다문화학연계전공(국제이주와 젠더), 국문학과(한국문학과 여성), 국사학과(한국 여성사),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서울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학과 남성학, 한국의 여성과 역사	2018 서울여자대학교 요람(교 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영어영문학과(문학과 젠더), 사학과(서양여 성사), 기독교학과(기독교와 여성 ³²⁾), 사회복 지학과(여성복지론), 행정학과(여성복지와 정책), 언론정보학전공(미디어와 젠더 세미 나), 저널리즘전공(미디어와 젠더 세미나), 국사학과(한국여성사), 휴먼서비스 HOPE+ 현장전문가 양성사업단(여성복지론)	

- 28) 교양과정에 ‘여성과 노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명으로 보면 성평등 교과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목 해설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일과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며,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며, 재학 중에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고 기술되어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성상’ 교과도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는 학습목표를 ‘한국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 및 생활관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우리 역사 속의 위대한 여성들을 통해 배우고, 오늘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조건들에 대해서 탐구한다’ 고 기술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29) 여러 학문적 입장에서 성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성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표현 양상 속에서의 존재를 점검하고 여성학 관점에서 성의 개념 및 구조를 재정의하는 교과이다.
- 30) 휴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인간 권리 및 그 지위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간관에서 여성이 어떻게 잘못 이해되어 왔는가를 반성하고, 동서양의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교과이다.
- 31)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자아정체감, 인정발달과정, 부모되기 등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이 달리 경험하게 되는 성차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교과이다.
- 32)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성서 해석 역시 일부 특정 대목들이 남성들의 경험과 남성적 사고를 반영하여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성서를 여성의 시각에서 읽고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성서해석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대상
성신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문학과 여성, 젠더로 보는 사회	2017~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 육과정 편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33)	영어영문학(여성과 영문학 ³⁴), 프랑스어 문·문화학과(프랑스 문학과 여성), 중국어 문·문화학과(당시와 여성 ³⁵), 사학과(여성 사의 이해),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숙명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³⁶⁾	문화텍스트로 읽는 여성 콤플렉스, 여성학, 젠더로 읽는 여성, 젠더와 지속가능한 환경, 여성과 문화 ³⁷ , 여성과 법 이야기, 여성의 일과 직업, 미디어와 성	2018 숙명여자대학교 요람(교 육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38)	한국어문학부(여성문학론), 역사문화학과(한 국여성사), 일본학과(일본여성사), 정치외교 학과(여성과 정치), 사회심리학과(섹슈얼리 티연구, 여성심리학, 한국여성연구), 법학부 (법여성학, 여성관련법), 글로벌서비스학부 (개발과 젠더), 영어영문학부(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젠더·성·문학, 영미문화와 젠 더), 미디어학부(여성과 미디어), 비서학 전 공(여성학), 문화예술기획전공(여성문학론), 순천융합인문학전공(탈식민주의와 페미니 즘)	

- 33) 경제학과에 ‘여성과 경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본 교과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및 유사점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남녀 성별차이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고 기술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34) 문학의 소재로서, 중요한 독자로서 또 작가로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 그리고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교과이다.
- 35) 중국 서정시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당시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여성작가와 여성의 내면세계를 읊은 작품을 주로 품평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의식을 조명하는 교과이다.
- 36) 교양과정에 ‘신화와 여성문화’ 가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 해설을 살펴보면 ‘동서양 신화의 전반적 상상력을 여성이라는 테마로 다채롭게 재구성하는 수업’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치중된 신화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인문적 다양성을 함께 읽고, 이를 통해 여학생들의 상상력을 보다 심화시키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 37) 일상에서의 문화적 현상과 대중매체, 동화, 음악, 문학 등의 텍스트를 통해 여성 이미지의 시대적 흐름과 페미니즘 문화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대안적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과이다.
- 38) 전공교과의 성평등 교과목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중어중국학부의 ‘중국여성작가와 작품’, 독일언어·문화학과의 ‘독일어권여성문학’, 일본어학과의 ‘일본문학과 여성’, 영어영문학부의 ‘영미여성문학전통’ 등은 여성의 관점을 통해 여성문학을 문학사적으로 개관하고 대표작가와 작품을 분석하여 그녀들을 둘러싼 동시대의 특징적인 시대상, 사회, 문화, 위치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

구분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현황		분석대상
이화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과 사회정의, 젠더와 역사, 노동과 젠더, 법과 젠더, 성문화연구, 여성학, 영상이미지와 젠더, 스크린에 투영된 테크노컬처와 젠더, 여성의 몸과 창조적 움직임 ³⁹⁾ , 여성과 예술, 한국여성사, 글로벌시대의 아시아 여성	-학사안내(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 조회, 2018)
	전공 과정	국어국문학과(한국현대서사와 젠더, 언어와 젠더 ⁴⁰⁾), 독어독문학과(독일문화와 여성 ⁴¹⁾), 사학과(한국여성생활문화사 ⁴²⁾), 철학과(성의철학, 여성주의철학), 기독교학과(여성주의 목회상담, 여성신학의 제문제), 영어영문학부(여성학 문학, 여성문학연구), 교육학과(여성교육론, 지리교육(페미니즘지리학), 정치외교학과(정치와 젠더), 행정학(여성정책론), 경제학(성별 경제학), 사회학과(젠더와 사회),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심리학과(현대사회와 여성상담 ⁴³⁾),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미디어와 젠더), 공공리더십과정의(범여성학)	

하고자 하였다.

- 39) 여성학과 몸의 내면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몸학(Somatics)을 결합한 융복합 교과목이다.
- 40) 여성어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여성이 발화하는 언어와 남성이 발화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과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언어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본 강의는 이를 목표로 여성의 음운, 어휘, 통사 등의 특징을 정리하고, 실제 인종의 인식을 조사, 이를 이론과 접목시켜 여성/남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갖고자 하는 교과이다.
- 41) 독일의 1차, 2차 여성운동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주요 안건들이 오늘날 독일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한다. 나치시대,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서 ‘젠더’의 범주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문학과 영화, 예술 등 다양한 매체들과 최근의 연구 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페미니즘의 문제들을 보다 글로벌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 42) 한국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왔던 여성들의 생활, 관습, 그리고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사 발전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생활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가족 구조 속의 여성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교과이다.
- 43) 본 강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고, 이 주제들을 상담 및 심리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성찰해 본다. 이를 위하여 성, 젠더, 성역할 고정관념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성의 정체감 발달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며, 여성정체성의 의미를 여성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교과이다.

다. 4년제 신학대학

4년제 신학대학은 총 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⁴⁴⁾. 4개 대학(서울기독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KC대학교)은 2017년, 2018년 요람을 확인하였으며,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교과과정 소개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서울한영대학교는 2018년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학과별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신학대학교 중 3개 대학(감리교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KC대학교)에서 ‘여성학’을 교양과정 교과로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성서대학교는 ‘성문화연구’, 서울한영대학교는 ‘여성과 문화’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기독교대학교는 사회복지과의 전공교과인 ‘여성복지론’을 교양과정 교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 종교철학 등 전체 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어 4년제 신학대학교 중 비교적 소규모 대학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양과정에 여성학, 페미니스트 사상, 페미니즘과 기독교 등 3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신학전공 2개 교과(여성신학, 현대 페미니스트 윤리), 종교철학전공에 1개 교과(현대여성철학)가 개설되어 있어 신학대학교 중 가장 많은 성평등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6 | 4년제 신학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감리교 신학 대학교	교양 과정 45)	여성학, 페미니스트 사상, 페미니즘과 기독교	대학 교과과정 홈페이지: 전공별 교육과정(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신학전공(여성신학, 현대 페미니스트 윤리), 종교철학전공(현대여성철학)	
서울 기독교 대학교	교양 과정	전공연계교양(여성복지론)	2017 서울기독교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44) 서울 지역에 총 7개의 신학대학교가 있으나 총신대학교의 교육과정 분석이 제외되었다. 총신대학교는 작년부터 현재(2018. 6. 7.기준)까지 ‘총신대 사태(학생들의 총장사퇴 요구, 수업거부, 농성)’가 발생하여 학내분류에 따른 학사운영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사 행정 및 대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과정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장로회 신학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학	2017~2018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한국 성서 대학교 46)	교양 과정	성문화연구	2018 한국성서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KC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학	2018 KC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가족과 젠더), 상담심리학과(여성주의 상담)	
서울 한영 대학교	교양 과정	여성과 문화	-학과별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개(교과목 해설 미포함) -2018 규정집(학부 전공 및 교양과목, 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사회복지학과(여성복지론)	

45) 교양과정에 ‘성과 사랑, 여성과 종교, 여성과 사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과정에 ‘여성 교육개론(기독교교육학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세부교육내용 확인이 어려워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46) 한국성서대학교는 교양과목에 ‘성과 문화’ 이에도 성평등 교과목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사회정의, 여성과 현대사회’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교과목 해설서를 검토하였다. ‘여성과 사회정의’ 교과목의 해설을 살펴보면, ‘당신은 여자들의 세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랜 역사가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이 사회는 여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확신 없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학대당하고, 거부당하고, 유기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 피해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가는 부흥을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 자아로 존재할 이유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목은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과목이다’ 고 설명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과 사회정의’ 교과목은 ‘일, 연애, 임신, 출산, 낙태, 결혼, 돌봄 등 여성의 일과 삶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관계들을 사회정의를 주제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정의의 기본 개념들을 점검하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연애제도, 가족제도, 모성제도, 경제제도, 돌봄제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고 교과목을 설명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성서대학교의 ‘여성과 현대 사회’ 교과목 해설을 살펴보면, ‘여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여성과 현대사회 과목은 여성들의 탁월한 역할로 인해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및 환경적 해결책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중요성을 모색한다’ 고 교과목을 소개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삼육대학교의 ‘여성과 현대사회’ 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새로운 인식을 통해 양성평등적 공존과 협동

(3)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일반 전문대학(5개)과 여자 전문대학(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대학(삼육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은 2017년, 2018년 요람 및 교과과정 편람을 분석하였으며, 1개 대학(명지전문대학)은 2016년~2017년 대학안내(요람형태)에 수록된 전공과목과 교양교과목 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양과정을 검토하였다. 대학요람과 교과과정 안내 자료가 별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5개 대학(동양미래대학교, 서일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은 학과별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공과목과 교양과정 소개 홈페이지 및 학사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양과정 강의시간표 등을 조사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전문대학은 아래 ■표 IV-7 ■ 및 ■표 IV-8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년제 일반 대학 및 4년제 여자대학에 비해 정규교과에서 성평등 교과목 운영이 매우 저조하다. 전문대학 중 교양과정에서 성평등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명지전문대학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명지전문대학은 교양과정에서 1개 교과(여성과 사회), 전공과정은 2개 교과(문장강독, 여성교육론)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육보건대학교는 전공과정에서 1개 과목(노인케어창업과·여성복지론)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동양미래대학교와 서일대학교, 인덕대학교 등 3개 대학은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모두 성평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명지전문대학의 교양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여성과 사회’ 강좌는 생물학적인 성 차에 의한 지배가 유지 및 재생산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삶이 차별화·억압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성 차별적인 상황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서 인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인간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전공과정에 개설된 ‘문장강독’은 문예창작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젠더이론의 이론적 성과와 최근의 다양한 연구경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젠더 감수성을 키우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문장 쓰기 훈련을 하는 교과이다.

그리고 개인적 가치에 바탕을 둔 다양성의 존중을 모색하면서 인간이해에 대한 유연성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고 해설하고 있어 성평등 교과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대학별로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나 교과목 해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표 IV-7】 일반 전문대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동양 미래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2017년 1학기, 2학기 교양과목 강의시간표(수강신청 안내 공지 사항)
	전공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 개(교과목 해설 미포함)
명지 전문 대학	교양 과정	여성과 사회	교양교과목 소개 홈페이지 : 교 양 교육과정 개설 과목 및 교과 목 소개
	전공 과정	문예창작과(문장강독 : Reading Texts) 청소년교육복지과(여성교육론 ⁴⁷⁾)	2016~2017 대학안내(전공과정 및 교과목 해설 포함)
삼육 보건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2018 삼육보건대학교 요람(교과 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노인케어창업과(여성복지론)	
서일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서일광장:학사공지)2018 학사 관리 기준표 교양필수 대학지 정교과(18.2.9.) -(서일광장:학사공지)2017 1학 기, 2학기 교양교과(사이버강 좌) 중간고사 시간표
	전공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주요과목 소개 (교과과정 해설 포함)
인덕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2017 인덕대학교 요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여자 전문대학은 총 4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여자 전문대학은 주로 세무 회계, 실무 일본어·영어·중국어, 경영과, 유아 및 아동보육과, 항공과, 비서과, 간호 학과, 패션, 식품영양과 등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은 한 과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47)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현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며, 여성 스스로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표 IV-8 | 여자 전문대학 정규과정 중 성평등교과 운영 현황

구분	성평등교과 현황		분석대상
배화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2018학년도 각 과별(교양,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없음	
서울 여자 간호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⁴⁸⁾	2017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 교 교육과정 편람(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숭의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커리큘럼 안내 및 교육과정표 (커리큘럼 안내에 교과목 해설 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한양 여자 대학교	교양 과정	없음	-2017년 1~2학기 e러닝 교양과 목 개설 안내(교무·학사공지 사항) -2017년 2학기 자유선택교양 개 설과목 공지(교무·학사공지 사항) -2017년 2학기 자유선택교양 개 설과목 추가공지(교무·학사 공지사항) -2018 교육과정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포함, 교과과정 해설 미포함)
	전공 과정	없음	학과별 홈페이지 2018 교육과정 (전공 및 교양필수과목포함, 교 과과정 해설 미포함)

48) 교양과목에 '여성으로 살아가기'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편람에 교양과정에 대한 교과목 설명이 없어 성평등교육 교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전공과목은 교과목 해설이 포함되어 있음).

2. 성평등교육 비정규교과 운영현황

대학생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해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성평등 관련 기구(성폭력상담소,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등)를 중심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기반한 지위와 권력 관계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해당 문제가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폭력과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성찰하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은 대학에서 비정규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현황

서울시 소재 각 대학별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폭력예방교육 현황은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은 2014년~2016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게시하고 있으며, 2017년 자료는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래 ■ 표 IV-9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2014년 40.4%, 2015년 39.9%, 2016년 39.3%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대상없음, 미입력 등으로 처리된 학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의 경우 최대 95%까지 참여율이 나타나고 있어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년(2017년 5월~ 2018년 4월) 동안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0.8%로 전체 응답자의 79.2%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

수록 대학생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어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이 매우 저조한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52개 대학 중 성폭력예방교육 학생 참여율이 10% 이하인 학교가 2014년 8개 대학, 2015년 9개 대학, 2016년 9개 대학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대학도 2014년 1개 대학(동양미래대학교), 2015년 1개 대학(서울기독대학교)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율이 1~2%인 대학도 나타났다. 해당대학은 2014년 2개 대학(광운대학교, 서일대학교), 2015년 3개 대학(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2016년 4개 대학(명지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총신대학교)이다.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전문(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이 2014년 42개 대학, 2015년 31개 대학, 2016년 41개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은 2015년 11개 대학, 2016년도에는 9개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은 2014년 7개 대학에서, 2015년 6개 대학, 2016년 2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표 IV-9 서울시 소재 대학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연 번	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61%	(집합)전문강 사교육	81%	(집합)일반강 사교육	70%	(집합)일반강 사교육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86%	(집합)외부강 사교육	33%	(집합)전문강 사교육	17%	(집합)일반강 사교육
2	건국대학교	39%	(집합)외부강 사교육	44%	(집합)전문강 사교육	37%	(집합)전문강 사교육
3	경희대학교	18%	사이버교육	17%	사이버교육	23%	(집합)전문강 사교육
4	고려대학교	30%	(집합)외부강 사교육	26%	(집합)전문강 사교육	50%	(집합)전문강 사교육
5	광운대학교	2%	(집합)전문강 사교육	2%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집합)전문강 사교육
6	국민대학교	37%	(집합)전문강 사교육	40%	(집합)전문강 사 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7	동국대학교	6%	(집합)외부강	7%	(집합)전문강	9%	(집합)전문강

연 번	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사교육		사교육		사교육
8	명지대학교	4%	(집합)전문강 사교육	5%	(집합)전문강 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9	삼육대학교	52%	(집합)전문강 사교육	82%	(집합)전문강 사교육	7%	(집합)전문강 사교육
10	상명대학교	24%	(집합)외부강 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11	서강대학교	32%	(집합)전문강 사교육	53%	(집합)전문강 사교육	39%	(집합)전문강 사교육
12	서경대학교	31%	사이버교육	56%	(집합)일반강 사교육	47%	(집합)일반강 사교육
13	서울대학교	12%	(집합)전문강 사교육	35%	(집합)전문강 사교육	34%	(집합)전문강 사교육
14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22%	사이버교육	27%	(집합)시청각 교육	24%	(집합)전문강 사교육
15	서울시립대학 교	7%	(집합)외부강 사교육	20%	(집합)전문강 사교육	26%	(집합)전문강 사교육
16	성공회대학교	13%	(집합)전문강 사교육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42%	(집합)전문강 사교육
17	성균관대학교	36%	(집합)전문강 사교육	20%	(집합)전문강 사교육	28%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세종대학교	36%	(집합)시청각 교육+토론	27%	(집합)전문강 사교육	39%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송실대학교	28%	(집합)전문강 사교육	28%	(집합)일반강 사교육	10%	(집합)전문강 사교육
20	연세대학교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집합)전문강 사교육	75%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중앙대학교	80%	(집합)전문강 사교육	44%	(집합)전문강 사교육	36%	(집합)전문강 사교육
22	한국외국어대 학교	17%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23	한성대학교	23%	(집합)외부강 사교육	23%	(집합)전문강 사교육	6%	(집합)전문강 사교육
24	한양대학교	51%	(집합)외부강 사교육	64%	(집합)일반강 사교육	63%	(집합)전문강 사교육
25	홍익대학교	3%	(집합)외부강	40%	사이버교육	30%	(집합)전문강

연 번	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사교육				사교육
26	서울교육대학교	31%	(집합)외부강 사교육	2%	(집합)전문강 사교육	49%	(집합)전문강 사교육
27	추계예술대학교	69%	(집합)외부강 사교육	5%	(집합)일반강 사교육	5%	(집합)전문강 사교육
28	한국예술종합 학교	51%	(집합)외부강 사교육	45%	(집합)전문강 사교육	63%	(집합)전문강 사교육
29	한국체육대학교	65%	(집합)외부강 사교육	91%	(집합)일반강 사교육	59%	(집합)일반강 사교육
30	육군사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100%	(집합)내부직 원강의	100%	(집합)일반강 사교육
31	덕성여자대학교	31%	(집합)외부강 사교육	26%	(집합)일반강 사교육	1%	(집합)일반강 사교육
32	동덕여자대학교	40%	사이버교육	32%	사이버교육	31%	사이버교육
33	서울여자대학교	12%	(집합)전문강 사교육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34	성신여자대학교	66%	(집합)전문강 사교육	38%	(집합)전문강 사교육	51%	(집합)전문강 사교육
35	숙명여자대학교	84%	(집합)외부강 사교육	31%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집합)전문강 사교육
36	이화여자대학교	46%	(집합)전문강 사교육	13%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집합)전문강 사교육
37	감리교신학 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29%	(집합)내부직 원강의	27%	(집합)전문강 사교육
38	서울기독대학교	58%	(집합)외부강 사교육	0%	-	13%	(집합)전문강 사교육
39	장로회신학 대학교	96%	(집합)내부직 원강의	92%	(집합)내부직 원강의	91%	(집합)내부직 원강의
40	한국성서대학교	80%	(집합)외부강 사교육	69%	(집합)일반강 사교육	59%	(집합)일반강 사교육
41	서울한영대학교	88%	(집합)외부강 사교육	99%	(집합)일반강 사교육	90%	(집합)일반강 사교육
42	동양미래대학교	0%	-	17%	(집합)시청각 교육	2%	(집합)전문강 사교육

연 번	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43	명지전문대학	60%	(집합)시청각 교육+토론	68%	(집합)일반강 사교육	85%	(집합)전문강 사교육
44	삼육보건대학 교	91%	(집합)전문강 사교육	83%	(집합)전문강 사교육	80%	(집합)전문강 사교육
45	서일대학교	2%	(집합)전문강 사교육	7%	(집합)전문강 사교육	74%	(집합)전문강 사교육
46	인덕대학교	37%	(집합)전문강 사교육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25%	(집합)전문강 사교육
47	배화여자대학 교	81%	(집합)전문강 사교육	88%	(집합)전문강 사교육	71%	(집합)전문강 사교육
48	서울여자간호 대학교	15%	(집합)전문강 사교육	4%	(집합)전문강 사교육	23%	(집합)전문강 사교육
49	승의여자대학 교	70%	(집합)전문강 사교육	83%	(집합)전문강 사교육	70%	(집합)전문강 사교육
50	한양여자대학 교	43%	(집합)전문강 사교육	45%	(집합)시청각 교육	93%	(집합)시청각 교육
51	충신대학교	4%	(집합)외부강 사교육	75%	(집합)일반강 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52	KC대학교	70%	사이버교육	63%	내부직원 강의	66%	(집합)일반강 사교육
	평균	39.78%		39.9%		39.3%	

자료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⁴⁹⁾

2)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현황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서울시 소재 각 대학별 가정폭력예방교육 현황은 아래 **표 IV-10** 와 같다. 대학생의 가정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2014년 32.0%, 2015년 35.0%, 2016년 34.4%로 성폭력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저조하다.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이 매우 저조한 대학을 살펴보면, 학생 참여율이 10% 이하인 학교는 2014년 17개, 2015년 15개, 2016년 14개 대학이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대학은 2014년 4개(광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공회대학

49) 공공기관 실시정보검색(<https://shp.mogef.go.kr/shp/usr/result/publicInfo.do>)

교, 동양미래대학교), 2015년 3개(숭실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2016년 4개(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학생 참여율이 1~2%인 학교는 2014년 8개 대학(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일대학교, 총신대학교), 2015년 4개 대학(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2016년 4개 대학(광운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총신대학교)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전문(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은 2014년 27개 대학, 2015년 28개 대학, 2016년 30개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은 2015년 14개 대학, 2016년에는 14개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은 2014년 11개 대학에서, 2015년 5개 대학, 2016년 4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 표 IV-10 】 서울시 소재 대학별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연 번	학 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61%	(집합)전문 강사교육	81%	(집합)일반강 사교육	70%	(집합)일반강 사교육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86%	(집합)외부 강사교육	33%	(집합)일반 강사교육	17%	(집합)일반 강사교육
2	전국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44%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집합)전문강 사교육
3	경희대학교	18%	사이버교육	17%	사이버교육	32%	(집합)전문강 사교육
4	고려대학교	14%	(집합)외부 강사교육	13%	(집합)전문강 사교육	24%	(집합)전문강 사교육
5	광운대학교	0%	-	2%	(집합)전문강 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6	국민대학교	20%	(집합)전문 강사교육	43%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7	동국대학교	6%	(집합)외부 강사교육	5%	(집합)일반강 사교육	5%	(집합)일반강 사교육
8	명지대학교	4%	(집합)외부 강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0%	-
9	삼육대학교	44%	(집합)전문	57%	(집합)전문강	7%	(집합)전문강

연 번	학 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강사교육		사 교육		사교육
10	상명대학교	1%	(집합)외부 강사교육	1%	(집합)전문강 사교육	7%	(집합)전문강 사교육
11	서강대학교	21%	(집합)전문 강사교육	25%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집합)전문강 사교육
12	서경대학교	31%	사이버교육	56%	(집합)일반강 사교육	47%	(집합)일반강 사교육
13	서울대학교	10%	(집합)외부 강사교육	28%	(집합)일반강 사교육	25%	(집합)전문강 사교육
14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27%	(집합)시청각 교육	24%	사이버교육
15	서울시립대학교	0%	-	20%	(집합)전문 강사교육	17%	(집합)일반 강사교육
16	성공회대학교	0%	-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집합)전문강 사교육
17	성균관대학교	25%	사이버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26%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세종대학교	1%	(집합)내부 직원강의	27%	(집합)전문강 사교육	29%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숭실대학교	28%	(집합)전문 강사교육	0%	-	0%	-
20	연세대학교	1%	(집합)전문 강사교육	3%	(집합)전문강 사교육	71%	(집합)전문강 사교육
21	중앙대학교	78%	(집합)외부 강사교육	44%	(집합)전문강 사교육	36%	(집합)전문강 사교육
22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상없 음	미입력	21%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집합) 전문강사교 육
23	한성대학교	11%	(집합)외부 강사교육	23%	(집합)전문강 사교육	5%	(집합)전문강 사교육
24	한양대학교	51%	(집합)외부 강사교육	64%	(집합)일반강 사교육	63%	(집합)일반강 사교육
25	홍익대학교	2%	사이버교육	4%	사이버교육	2%	(집합)전문강 사교육
26	서울교육대학교	30%	사이버교육	2%	(집합)전문강	49%	(집합)전문강

연 번	학 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참 여 율	교 육 방 법
					사교육		사교육
27	추계예술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5%	(집합)일반강 사교육	5%	(집합)전문강 사교육
28	한국예술종합 학교	1%	(집합)내부 직원강의	45%	(집합)전문강 사교육	64%	(집합)전문강 사교육
29	한국체육대학교	46%	(집합)외부 강사교육	91%	(집합)일반강 사교육	40%	(집합)일반강 사교육
30	육군사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100%	(집합)내부직 원강의	100%	(집합)일반강 사교육
31	덕성여자대학교	31%	(집합)외부 강사교육	25%	(집합)내부직 원강의	0%	-
32	동덕여자대학교	4%	사이버교육	34%	(집합)일반강 사교육	28%	사이버교육
33	서울여자대학교	84%	(집합) 시청각교육 + 토론	4%	(집합)전문강 사교육	19%	(집합)전문강 사교육
34	성신여자대학교	1%	(집합)전문 강사교육	36%	(집합)전문강 사교육	33%	(집합)전문강 사교육
35	숙명여자대학교	81%	사이버교육	28%	(집합)전문강 사교육	18%	(집합)전문강 사교육
36	이화여자대학교	5%	(집합)전문 강사교육	5%	(집합)전문강 사교육	9%	(집합)전문강 사교육
37	감리교신학 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0%	-	0%	-
38	서울기독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0%	-	26%	(집합)일반강 사교육
39	장로회신학 대학교	96%	(집합)내부 직원강의	92%	(집합)내부직 원강의	91%	(집합)내부직 원강의
40	한국성서대학교	80%	(집합)외부 강사교육	69%	(집합)일반강 사교육	59%	(집합)일반강 사교육
41	서울한영대학교	30%	(집합) 시청각교육 +토론	99%	(집합)일반강 사교육	90%	(집합)일반강 사교육
42	동양미래대학교	0%	-	17%	(집합)시청각 교육	1%	(집합)시청각 교육
43	명지전문대학	60%	(집합)	68%	(집합)일반강	85%	(집합)전문강

연 번	학교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참여율	교육방법
			시청각교육 +토론		사교육		사교육
44	삼육보건대학교	91%	(집합)전문 강사교육	90%	(집합)전문강 사교육	76%	(집합)전문강 사교육
45	서일대학교	2%	(집합)전문 강사교육	7%	(집합)전문강 사교육	74%	(집합)전문강 사교육
46	인덕대학교	37%	(집합)전문 강사교육	30%	(집합)전문강 사교육	25%	(집합)전문강 사교육
47	배화여자대학교	81%	(집합)전문 강사교육	88%	(집합)전문강 사교육	71%	(집합)전문강 사교육
48	서울여자간호 대학교	6%	(집합)전문 강사교육	4%	(집합)전문강 사교육	23%	(집합)전문강 사교육
49	승의여자대학교	80%	(집합)전문 강사교육	79%	(집합)전문강 사교육	70%	(집합)일반강 사교육
50	한양여자대학교	대상 없음	미입력	45%	(집합)시청각 교육	93%	(집합)시청각 교육
51	총신대학교	1%	(집합)외부 강사교육	71%	(집합)일반강 사교육	1%	(집합)일반강 사교육
52	KC대학교	78%	사이버교육	33%	(집합)일반강 사교육	65%	(집합)일반강 사교육
	평균	32.0%		35.04%		34.4%	

자료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⁵⁰⁾

3. 시사점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성평등교육 현황은 정규교과와 비정규교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대학 정규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은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기구(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센터,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폭

50) 공공기관 실시정보검색(<https://shp.mogef.go.kr/shp/usr/result/publicInfo.do>)

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⁵¹⁾

먼저, 대학 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별로 정규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은 대학의 규모 및 대학 유형, 학제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 중 대규모 대학과 일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과목이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 중 소규모 대학과 4년제 특수대학, 신학대학 등은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매우 저조하였다. 전문대 역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평등 교과목은 주로 인문, 사회계열에 개설되어 있으며 공대, 자연계열 분야에서는 성평등 관련 강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주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드물었다.

셋째,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정규교과에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수업 연한이 짧고 전공과목 역시 직업능력 신장을 위한 전공 및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양과목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직무에 필요한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성평등 교과목이 거의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학의 학제 및 규모에 따른 성평등 교육 격차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차원에서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추진할 때 정규과정에 성평등 교과목 개설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서울시 소재 대학 중 여성학, 페미니즘 개론과 같은 과목이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 단독으로 개설된 대학은 13개 대학이며, 대부분의 강좌들이 젠더와 연결되어 융복합 교과목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평등 교과목은 주로 여성, 젠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성 등과 결합된 교과목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좌 명칭만으로는 성평등 교과목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목표 및 내용구성 등이 젠더의식 함양

51)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이외에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제5장에서 별도로 기술한다.

을 목적으로 계획된 강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젠더라는 명칭을 교과목에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목표나 교육개요를 살펴 본 결과, 성평등 교과목이 아닌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성담론의 이해, 여성과 노동, 여성과 현대사회, 성과 문화 등의 교과목은 대다수 대학에서 젠더의식 함양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목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로는 성평등 교과목과 무관한 강좌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대학별로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구성, 교수자의 여성주의적 관점, 관련 교과와 젠더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재해석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에서 성평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은 대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해마다 교육참여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대학 내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칙, 지침 등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주제별 특강 형태의 예방교육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V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현황 : 대학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1. 조사개요
2. 대학 내 성평등기구 현황
3. 대학 성평등기구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4. 상담 및 사건처리
5.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현황

- 대학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1. 조사개요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수립,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은 담당부서로 성평등상담소,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상담실 등의 성평등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각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기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성평등기구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사건처리, 폭력예방교육과 정규과정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젠더의식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성평등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제안 등 성평등기구 종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52개 대학의 성평등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⁵²⁾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2일 ~ 6월

52) 조사대상 대학에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등은 제외하였다.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성평등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사이
다.⁵³⁾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각 대학 내에 있는 성평등기구에 설문
조사 협조 요청 공문과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5개이며, 회수율은
66.3%이다. 아래 **표 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은 총
35개 대학이다.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88.6%(31개), 전문대는 11.4%(4
개)이다.

표 V-1 설문조사 참여 대학 현황

(단위: %, 곳)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례수
전체	31 (88.6)	4 (11.4)	35

또한 각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조사로써 충실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은 대학 유형
과 학제,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표 V-2 심층 면접 참여자

사례	면접일	대학 학제	상담 및 지원경력	종사자 지위
1	2018. 8. 10.	4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18년	상담원/정규직
2	2018. 8. 10.	4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2년	연구원/계약직
3	2018. 8. 13.	4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1년 9개월	연구원/계약직
4	2018. 8. 14.	4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9개월	상담원/계약직
5	2018. 8. 17.	2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2년	상담사/계약직
6	2018. 8. 20.	4년제	- 인터뷰 당시 학교 근무 5개월	과장/정규직

53) 전문상담사는 상담원, 연구원, 상담사 등으로 대학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내용 설계는 국가인권위원회(2012)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항목과 안태운 외(2017)가 경기도 대학 성폭력상담기구 실태조사에서 이용한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성평등교육 관련 조사 문항을 일부 추가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대학의 일반적 사항, 폭력예방교육 및 젠더의식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 상담 및 사건처리 현황, 정책제안 등이며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 V-3**과 같다.

표 V-3 설문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제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현황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2017년)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 최근 1년간(2017년)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황 -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상담 및 사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 - 학생 간 사건처리 시 어려움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교육 담당 직원 배치 현황 -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제안 사항

성평등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 조사내용은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 어려움, 성평등기구에서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교육 현황,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이다.



표 V-4 심층 면접 조사 내용

영역	세부내용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직위명, 종사자 지위, 상담기구명
성평등의식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상담	상담건수, 상담 종류, 상담방법
사건처리	사건처리 경험, 사건처리 시 어려움
성평등교육현황	폭력예방교육 교육현황,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교육진행 관련 어려움, 개선의견
상담기구의 학내 여건	인력, 학내 위상, 학교의 지원
상담종사자의 고충	고용안정성, 업무현황
정책제언	중앙정부, 서울시에 희망하는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2. 대학 성평등기구 현황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미정 외, 2015). 대학 성평등기구로서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주요 형태는 ①독립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 ②학생상담센터에 부설된 기구이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련 업무 담당 ③학내 행정기관(교무처, 학생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학의 60.0%가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설기구를 설치하거나 센터 내에서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독립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37.1%에 그치고 있으며, 교무처, 학생처 등 학내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보편적인 형태는 학생상담

센터 등에 부설된 기구이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래 **표 V-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에 참여한 대학 중 전문대학은 독립된 상담소가 설치된 대학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학생상담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의 41.9%는 독립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문대학에 비해 설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5 학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 현황

(단위: %, 곳)

구분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학생상담센터 등에 부설된 성폭력 상담기구 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련 업무 수행	학내 행정기관(교무처, 학생처)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병행	사례수
전체		37.1	60.0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41.9	54.8	3.2	31
	전문대학	0.0	100.0	0.0	4

한편,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직원이 배치된 대학은 31.4%에 그쳤으며, 57.1%의 대학은 일반 상담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도 11.5%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35.5%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전문대학은 별도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의 경우 일반상담사(100%)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 표 V-6 】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담당자 유무

(단위: %, 곳)

구분		성희롱·성폭력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이 지정됨	일반 상담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병행	일반 행정직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사례수
전체		31.4	57.1	11.5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35.5	51.6	12.9	31
	전문 대학	0.0	10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69.2	23.1	7.7	13
	없음	9.1	77.3	13.6	22

3. 대학 성평등기구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1)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추진 현황

최근 1년간(2017년) 대학 내 성평등기구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제외한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⁵⁴⁾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8.6%의 대학이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51.6%, 전문대학은 25.0%가 비정규 교과과정으로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였다.

54) 조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정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란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사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의 문제, 여성이 가사·양육을 전담하는 것의 문제, 직업 선택이나 직장 내에서 각종 성차별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 등을 의미합니다.’

【 표 V-7 】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2017년/단, 폭력예방교육 제외)
(단위: %, 곳)

구분		실시	미실시	사례수
전체		48.6	51.4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51.6	48.4	31
	전문 대학	25.0	75.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69.2	30.8	13
	없음	36.4	63.6	22

그러나 아래 【 표 V-8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폭력예방교육 제외)을 살펴보면, 5개 대학(A, C, D, G, J)은 폭력예방교육에 해당되며, 젠더감수성교육은 3개 대학(B, E, H)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2개 대학(F, I)은 폭력 예방교육과 젠더감수성교육을 모두 진행하였다. 한편, 4개 대학(L, M, P, Q)은 성평등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1개 대학(K)은 성상담실, 2개 대학(N, O)은 정신건강 캠페인을 운영하여 성평등과 관련성이 적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각 대학의 성평등기구에서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젠더감수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V-8 】 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프로그램(폭력예방교육 제외) 진행 현황

구분	세부프로그램
A대학	데이트 폭력 예방 특강, 현장실습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신입생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B대학	① 페미니스트 급진 정치학의 가능성(외부 단체와 공동주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사상과 계보 -왜 래디컬인가?: 제 2물결 이후의 래디컬 페미니즘 -젠더 개념과 젠더폭력, 집담회; 페미니스트 급진 정치학의 가능성 ② 2017 휴먼북 스토리



	<p>-관찰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p> <p>-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조크드요</p> <p>③ 학생회 임원을 위한 성인지적 리더십 워크숍</p> <p>④ 새터 기획단과 함께 젠더 감수성 키우기</p> <p>⑤ 학생회 임원 성평등 교육, LGBT의 이해</p>
C대학	<p>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연계;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p> <p>②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일정 연계;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p> <p>③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 오리엔테이션 연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p> <p>④ 성 건강 관련 교과목 연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p>
D대학	<p>축제 기간 중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음주고글, 생리 팔찌, 축제 주점 우수 포스터 콘테스트 등)</p>
E대학	<p>강서여성의 전화 주관으로 2017 젠더인문학 특강</p>
F대학	<p>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체험 활동, 여성주의 캠퍼스 강화</p>
G대학	<p>디지털 성범죄 아웃 대표 초빙; 2017 디지털 성범죄 out 강의</p>
H대학	<p>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과대별 성인지 교육 실시</p> <p>② 수업연계성 성인지교육 실시</p> <p>③ 중운위·확운위 등 학생자치회 단위 성인지 교육</p> <p>④ 동아리 성인지 교육, 농활 성인지 교육</p> <p>⑤ 에듀캠프 성인지 교육</p> <p>⑥ 각 단과대 학생회 성인지 교육</p>
I대학	<p>① 사회봉사단 창의캠프 참가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젠더 감수성 교육</p> <p>② 중앙동아리연합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젠더 감수성 교육</p> <p>③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모의상황 대응 훈련 교육</p> <p>④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젠더 감수성 교육</p> <p>⑤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젠더 감수성 교육</p> <p>⑥ 해외인턴십(홍콩/아일랜드/뉴질랜드) 파견 학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젠더 감수성 교육</p>
J대학	<p>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폭력예방교육</p>
K대학	<p>대동제 연계 열린 정상담실 운영</p>
L대학	<p>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만들기 세미나, 서포터즈 프로그램</p>
M대학	<p>양성평등 캠페인,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퍼포먼스, 흰장미 나눠주기</p>
N대학	<p>정신건강 특강; 넘어 그 선을 넘지 마오.</p>
O대학	<p>2017년 seoltech 성평등 상담센터 정신건강 캠페인</p>
P대학	<p>온라인 성인지 이벤트, 대학생의 성인식 토론</p>
Q대학	<p>양성평등 캠페인</p>

젠더감수성교육이 타 대학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된 3대학(B, H, D)은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로서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다. 또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 대학의 31.4%만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대학(68.6%)에서는 일반 상담사 또는 일반 행정직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학생상담, 사건처리, 행정처리, 교육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평등 관련 업무는 부수적인 직무에 해당된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학평가, 역량평가, 행정업무 등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담, 심리검사, 그 다음에 단체검사 실시하는 부분, 교육하는 부분들.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상담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개인상담, 개인 검사, 집단상담, 집단검사 해서 다 들어가구요. 그리고 자기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건 이제 저희가 강사 선정해서 그 부분은 하고요. 그 다음엔 임원 들하고 간담회, 총학생회 간담회랑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이라 해서 정신건강 특강이랑 자살예방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하는 거 강사 불러서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신건강 캠페인을 진행해요. 중앙자살예방센터랑 연계해서 우체통 캠페인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담 관련한 주제로 교직원 연수를 1년에 2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지원 업무로는 폭력예방교육 1년에 두 번 집합교육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4가지 폭력예방교육 하는 것들,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한테 동영상 배포해서 그 학생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고충상담 관련, 성고충 관련 상담 업무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어요. 학생상담은 일반 심리상담이 주예요. 그리고 성평등 관련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거죠(사례5 대학).

2)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1)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횟수 및 이수율 현황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은 앞서 IV장에서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추진실적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난해(2017년) 각 대학에서 추진한 성폭력예방교육 횟수, 예방교육 유형, 추진방법, 만족도가 높은 교육방식,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해(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횟수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 전체 65.7%의 대학에서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2.9%, 1회 14.3%, 2~3회 17.2%로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은 3.2%이며, 1~2회만 진행한 대학도 29.1%나 된다. 반면, 작년 한 해 동안 35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 대학도 있었다. 이 대학은 대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 모색과 지속적인 교육 결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입학식 때도 하고, 오티(OT) 때도 하고 축제 때도 해요. 기회만 있으면 해요. 외부에서 저희는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찾아 다녀요. 학생들은 제가 많이 교육하고, 예산이 있으면 외부에서 전문 강사들도 부르고. 예산이 없을 때는 제가 해요. 교생실습 나가는 학생과 봉사 나가는 학생들에게 다 연락해요. 폭력예방교육 하니까 시간 빠달라고. 교수들도 1년에 보통 5, 6번씩 해요. 방학 때 2번, 여름방학 2번, 겨울방학 2번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팀은 상을 주는 거야. 상장이 뭐냐면 금상, 은상, 동상, '이거 너희 동아리 방에다 붙여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신입생들이 왔을 때 '이 동아리 믿고 들어올 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온 동아리는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쿠폰을 주거든요. 학교라서 싸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2년 전부터 교육을 신청해요. 이렇게 하면서 동아리에서 성폭력 사건이 확 줄었어요. 또 하나는 총학생회에 출마할 학생들은 성폭력예방교육을 꼭 이수해서 확인증을 가져가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규정을 개정했어요. 성폭력 이수증은 제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학생회 입후보 하려면 저한테 강의를 꼭 들어야 해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총학생회 행사할 때 조금씩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육이수율도 높아지고 점점 사건도 낮아지는 거죠(사례1 대학).

【표 V-9】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횟수(2017년)

(단위: %, 곳)

구분		미실시	1회	2회	3회	4회 이상	사례수
전체		2.9	14.3	8.6	8.6	65.7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3.2	12.9	9.7	6.5	67.7	31
	전문 대학	0.0	25.0	0.0	25.0	5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0.0	0.0	7.7	0.0	92.3	13
	없음	4.5	22.7	9.1	13.6	50.0	22

지난해(2017)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10%~30%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 미만은 22.9%이며, 10% 미만도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 학제별로 보면, 70% 이상 이수율은 4년제 대학이 12.9%인 반면, 전문대학은 50%로 4년제 대학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교육대상자 수(학생 모집단)가 전문대학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0】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2017년)

(단위: %, 곳)

구분		10% 미만	10% ~ 30% 미만	30% ~ 50% 미만	50% ~ 70% 미만	70% 이상	무응답	사례수
전체		8.6	37.1	22.9	11.4	17.1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9.7	41.9	22.6	9.7	12.9	3.2	31
	전문대학	0.0	0.0	25.0	25.0	5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7.7	46.2	23.1	7.7	15.4	0.0	13
	없음	9.1	31.8	22.7	13.6	18.2	4.5	22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참여 강제제도가 없음(54.3%), 상담 외 업무과다(31.4%), 예산지원 부족(17.1%), 학생들의 무관심(14.3%),



강사섭외(8.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V-11】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시 가장 큰 어려움- 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예산지원 부족	강사 섭외	학생 참여 강제 제도 없음	학생들의 무관심	상담 외 업무 과다	기타	사례수
전체		17.1	8.6	54.3	14.3	31.4	5.7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19.4	9.7	54.8	16.1	29.0	6.5	31
	전문 대학	0.0	0.0	50.0	0.0	5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7.7	7.7	61.5	23.1	23.1	7.7	13
	없음	22.7	9.1	50.0	9.1	36.4	4.5	2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횟수와 이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예방교육실적 점검지표의 한계점이다. 현재 대학의 경우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은 직원이 90% 이상 참석한 경우 30점 배점(만점)이고, 학생은 90% 이상 참석하면 15점(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규자 및 비정규직은 70% 이상 참여한 경우 5점(만점)이 부여된다(여성가족부, 2017b)⁵⁵⁾. 이러한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교육담당자는 모집단이 대규모인 대학생 교육보다 모집단이 적고 교육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직원과 신규자 및 비정규직(특히, 시간강사)을 선택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교육은 소홀히 여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폭력예방교육은 개별 법률에 의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

55)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 방식은 직원이 90% 이상 참여한 경우 20점 배점(만점)이고, 학생은 90% 이상 참여한 경우 25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규자 및 비정규직은 70% 이상 참여한 경우 5점 만점이 부여된다.



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들에게는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들은 성폭력예방교육 횡수와 이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처럼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게 사실 대학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요. 개인한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생겼지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사례3 대학).

폭력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한테도 책임을 지워야 개인이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교통법규 어기면 운전자한테 과태료 부과하듯이. 요새 무료로 성폭력예방교육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수료 해오도록 해야죠. 기관에다 책임을 지워 놓으니 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렇게 계약직이 많은 조직에서 들겠어요? 안 들죠. 만약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면 학교 안에서 서로 강의 열어달라고 할 거예요. 제발 좀 전문강사 불러서 해달라고 하거나 자기 돈 털어서 강의 만들거나 온라인 강의 듣거나 할 텐데. 개인한테 책임을 안 지우니 어려운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정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듣게 하던지. 이런 법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대요. 계속 기관장 명의로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이 교육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학은 면피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되는 것뿐이지 진정하게 의식이 개선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아요(사례6 대학).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제도화에 따라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대학 교육현장에는 영향력을 미치고 못하고 있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의 교육참여율 제고 및 교육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2) 교육추진방법

폭력예방교육 유형을 살펴보면, 대규모 집합교육 97.1%, 소규모 집합교육 71.4%, 온라인 교육 51.4% 순이다. 이처럼 대학 현장에서 폭력예방교육은 대규모 집합교육 형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 표 V-12 】 전년도(2017년)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유형- 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폭력예방교육			사례수
		대규모 집합교육	소규모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97.1	71.4	51.4	35
학교 유형	4년제 대학	96.8	71.0	51.6	31
	전문 대학	100.0	75.0	5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100.0	92.3	84.6	13
	없음	95.5	59.1	31.8	22

성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은 74.3%이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운영하는 대학도 34.3%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신입생 대상 교육은 신입생 OT와 연계하여 1시간 교육이 지원되며, 교육현장에서는 대규모 집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집합교육은 대학 측에서는 교육이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육피로도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대학 중 11.4%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데이트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데이트 폭력예방교육은 30명~50명 단위로 학과별, 동아리 등 소그룹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2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 표 V-13 】 전년도(2017년) 성폭력예방교육 추진방법(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자체적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섭외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주관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신청진행	서울시여성가 족재단 주관 데이트 폭력예방교육 진행	기타 단체 주관 프로그램 신청하여 진행	무응답	사례수
전체		74.3	34.3	11.4	11.4	5.7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77.4	38.7	9.7	12.9	0.0	31
	전문 대학	50.0	0.0	25.0	0.0	5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84.6	30.8	15.4	23.1	0.0	13
	없음	68.2	36.4	9.1	4.5	9.1	22

(3) 만족도가 높은 교육방식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

지난해 실시한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중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방식은 전문강사교육(62.9%), 내부직원교육(14.3%), 시청각교육(8.6%), 일반강사교육(5.7%)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된 성폭력예방교육강사이며, 내부직원은 대부분 대학 성평등기구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이다. 이들 상담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성폭력예방 관련 전문강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강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 표 V-14 】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중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방식(2017년/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전문강사 교육 (집합)	일반강사 교육 (집합)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집합)	내부직원 교육 (집합)	기타	무응 답	사례수
전체		62.9	5.7	0.0	8.6	14.3	5.7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64.5	6.5	0.0	6.5	16.1	3.2	3.2	31
	전문 대학	50.0	0.0	0.0	25.0	0.0	25.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53.8	0.0	0.0	0.0	38.5	0.0	7.7	13
	없음	68.2	9.1	0.0	13.6	0.0	9.1	0.0	22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교육내용에는 관심을 보인다’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 ‘수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육내용에 무관심하다’ 14.3%,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8.6%로 대부분 학생들이 성폭력예방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85.7%) 학생들이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은 구성원 관계의 다양성과 행동반경의 복잡성 등으로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예방교육, 학생-학생간 성폭력예방교육, 총학생회 임원 대상 교육, 사건 발생시 구성원에 대한 2차 피해예방 등 대상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과 교육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송인자, 2016).

【 표 V-15 】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단위: %, 곳)

구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교육내용에는 관심	수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육내용에 무관심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교육내용에 반발	사례수
전체		8.6	77.1	14.3	0.0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9.7	80.6	9.7	0.0	31
	전문 대학	0.0	50.0	5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15.4	69.2	15.4	0.0	13
	없음	4.5	81.8	13.6	0.0	22

(4)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제재 조치 마련(45.7%), 기관장의 교육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22.9%), 교육전문기관의 교육지원(14.3%), 다양한 교육자료와 동영상 개발(11.4%), 소집단 교육을 위한 예산확대(2.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가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제재 조치 마련(48.4%)이며, 2순위는 기관장의 교육 중요성에 인식 제고(25.8%)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제재 조치 마련, 교육전문기관의 교육지원, 다양한 교육자료와 동영상 개발, 소집단 교육을 위한 예산확대가 각각 25.0%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4년제 대학은 소집단 교육을 위한 예산확대 요구가 전혀 없으나 전문대학은 2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V-16 】 성평등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곳)

구분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제재	교육 전문기관 교육지원	다양한 교육자료와 동영상 개발	소집단 교육을 위한 예산확대	기관장의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무응답	사례수
전체		45.7	14.3	11.4	2.9	22.9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48.4	12.9	9.7	0.0	25.8	3.2	31
	전문 대학	25.0	25.0	25.0	25.0	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53.8	23.1	7.7	0.0	7.7	7.7	13
	없음	40.9	9.1	13.6	4.5	31.8	0.0	22

4. 상담 및 사건처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은 개별면접상담(100.0%), 전화 상담(82.9%), 온라인상담(68.6%), 집단면접상담(48.6%) 순이다. 개별면접상담은 각 대학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전화상담이 뒤를 잇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의 특성상 집단면접상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표 V- 17 】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유형-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개별면접상담	집단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사례수
전체		100.0	48.6	82.9	68.6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100.0	48.4	83.9	67.7	31
	전문 대학	100.0	50.0	75.0	75.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100.0	69.2	84.6	69.2	13
	없음	100.0	36.4	81.8	68.2	22
전담 인력	전문상담원	100.0	63.6	81.8	54.5	11
	일반상담원	100.0	50.0	85.0	75.0	20
	일반행정직	100.0	0.0	75.0	75.0	4

대학 성평등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처리 관련 지원 업무는 사건접수(94.3%), 사건조사(94.3%), 피해자에 대한 각종 치료지원(71.4%), 법률자문(68.6%), 가해자 징계(62.9%) 등이다.

【표 V- 18】 사건 처리 관련 지원업무-중복응답

(단위: %, 곳)

구분		사건접수	사건조사	가해자 징계	피해자 각종 치료 지원	법률 자문	사례수
전체		94.3	94.3	62.9	71.4	68.6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93.5	93.5	64.5	71.0	74.2	31
	전문 대학	100.0	100.0	50.0	75.0	25.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92.3	92.3	46.2	69.2	84.6	13
	없음	95.5	95.5	72.7	72.7	59.1	22

최근 대학에서 진행한 상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담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한 질의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식절차 요건에 대한 문의가 28.6%이다. 또한 본인의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 의뢰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이 각각 17.1%로 나타났다.

【표 V- 19】 최근 진행한 상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내용

(단위: %, 곳)

구분		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	본인의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의뢰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식절차 요건에 대한 문의	무응답	사례수
전체		34.3	17.1	17.1	28.6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38.7	9.7	16.1	32.3	3.2	31

	전문 대학	0	75.0	25.0	0	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38.5	0	15.3	38.5	7.7	13
	없음	31.8	27.3	22.7	18.2	0	22

다음으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사건 관계 확인의 어려움(34.3%), 신고인의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20.0%), 사건성격의 모호성(14.3%), 피신고인의 비협조적인 태도(5.7%),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모호성(5.7%), 법적 절차진행(2.9%)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사건관계 확인의 어려움(38.7%)이 가장 컸으나 전문대는 신고인의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50.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사건 처리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곳)

구분	피신고인 비협조적태도	사건 관계 확인의 어려움	사건 성격의 모호성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모호성	법적 절차 진행	학교 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	신고인의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기타	무응답	사례 수
전체	5.7	34.3	14.3	5.7	2.9	0.0	20.0	11.4	5.7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6.5	38.7	16.1	6.5	0.0	16.1	9.7	6.5	31
	전문 대학	0.0	0.0	0.0	0.0	25.0	50.0	25.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7.7	46.2	23.1	0.0	0.0	0.0	15.4	7.7	13
	없음	4.5	27.3	9.1	9.1	4.5	31.8	9.1	4.5	22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활동 현황은 전체 조사대학의 51.4%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

8.6%가 답변하였다. 즉, 학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과반수 이상(60.0%)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이 무려 75.0%로 나타났다.

【 표 V-21 】 학내 상담센터의 상담활동 현황

(단위: %, 곳)

구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전체		8.6	51.4	31.4	5.7	2.9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9.7	54.8	25.8	6.5	3.2	31
	전문 대학	0.0	25.0	75.0	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15.4	61.5	7.7	7.7	7.7	13
	없음	4.5	45.5	45.5	4.5	0.0	22

전문대의 성평등기구에서 상담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이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내 상담센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4년제 대학에 비해 성평등기구의 위상, 전문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평등기구의 취약성은 학생들이 상담소 방문을 기피하게 되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학 내 상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대 학생상담센터 상담사 A씨는 학내 성평등기구의 취약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작년에도 사건 접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성인지 수준이 올라가면 상담과 사건 접수 등도 많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사건이 없다고 클린 하더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인진 몰라도 접수되는 사건은 많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만큼 전문대의 학생상담센터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의 위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4년제에 비해서 취약한 거죠. 대학에



서 상담센터 지원을 역량평가라는 지표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학교 내에서 그만큼 위상이나 지원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상담센터 직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문대 학생들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디펜스하고 보호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담실을 간다는 것 자체도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취약한 거예요. 취약해서 알리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피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전문대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요(사례5 대학).

한편, 조사대상자 중 31.4%는 상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 응답했으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응답도 5.7%를 차지하고 있다. 상담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서’ (37.1%),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낮아서’ (14.3%), ‘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이 별로 없어서’ (11.4%), ‘대학 측의 지원활동이 미흡하여’ (2.9%),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2.9%)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 학제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서’ (38.7%)가 가장 컸으나 전문대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낮아서’ (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V-22 】 상담활동이 저조한 이유

(단위: %, 꺾)

구분		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이 별로 없어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낮아서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대학 측의 지원 활동이 미흡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서	기타	무응답	사례 수
전체		11.4	14.3	2.9	2.9	37.1	11.4	25.7	35
대학 학제	4년제 대학	9.7	9.7	3.2	3.2	38.7	12.9	29.0	31
	전문 대학	25.0	50.0	0.0	0.0	25.0	0.0	0.0	4
독립된 성폭력 상담소	있음	7.7	7.7	0.0	7.7	30.8	15.4	38.5	13
	없음	13.6	18.2	4.5	0.0	40.9	9.1	18.2	22

5.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성평등기구 종사자들에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대한 제안사항 등을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개방형 의견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아래 표 Ⅴ-23 및 Ⅴ-24와 같이 설문지에 기입된 의견은 가급적 가공하지 않고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사한 의견을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들이 대학 측에 요구하는 세부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대학 성평등기구의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18)이 가장 많았다. 성평등기구에는 대부분 상담사 한 명이 상담, 사건처리, 교육운영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평등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9), 대학 당국의 의식변화(6), 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5), 독립된 성평등기구 설치(4), 교육콘텐츠 개발(3), 상담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3), 상담 공간 개선(2) 등이 제안되었다.

Ⅴ-2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측에 제안사항

구분	세부의견
성평등기구 전문인력 충원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충원: 상담사 한 명이 상담, 사건처리, 교육운영 등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활성화하고 운영하는데 한계. 각 업무별 분업화가 필요 - 전문 인력 확충 - 성 관련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예상할 수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관해 상시 응대할 인원이 필요하지만 고충상담원 이외의 별도 업무를 진행할 사람에 대한 제도의 부실 - 고충상담원 이외 업무 인력 확충 시급 - 지속적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정이 필요 -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 상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내실 있는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 업무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학교는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 -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해야 함 - 인력 보강 절실, 인원 부족으로 예방 교육 개발이 어려움 - 예방교육, 상담, 사건처리와 홍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원 보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이 가장 필요 - 성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상담사의 별도 배치 필요(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비상시적 일이기 때문에 일반 심리상담사가 평소 심리상담을 하다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별도의 성폭력 관련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지만 일반상담사가 성폭력 업무까지 병행하면 업무 과중으로 상담자가 소진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배정되어야 함 - 전문 인력 확충 - 전문가 선발 및 배치 필요 - 전문가를 선발하여 상담소의 안정된 환경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성평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 대학생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각 학교마다 교내 규정을 만들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강의를 매년 매학기 개설 - 의무 교육 제도 수립 - 가능한 다수의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내 제도 마련(비교과 이수 학점 등으로) -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 - 온/오프라인 교육이 필수·의무교육화가 필요, 수만 명의 학생/교직원을 상담원이 설득하여 80% 이상 교육해내기 어려움 - 학생 및 교원과 직원의 예방교육 의무화와 교육 참여 강제 방안 마련 - 교육 제도화 - 예방 교육의 양성화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 당국의 의식변화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기관장 및 고위직 구성원의 인식 개선 필요: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성평등의식 및 폭력예방교육 중요도의 인식 고취 필요,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함 - 대학 내 보직자 및 교수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학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 - 학교 당국의 의식 변화 필요와 성폭력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 가능한 없는 일처럼 처리하고 싶은 의식이 팽배함. - 대학 내 교수, 학생, 직원이라는 다양한 대상이 함께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 - 담당자 뿐 아니라 관리자의 적극적 노력과 교육 참여에 대한 격려 필요 - 학교장의 관심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지원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대상별 맞춤형, 토론식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 강의식 교육과 함께 집단 상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과 참관 활동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지원 - 예산과 인력의 지원 필요함 - 예산이 부족해서 자료집 인쇄에 차질이 있음
<p>독립된 성평등기구 설치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센터 설치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 필요 - 전문기구 설립 필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성평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본 업무에만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양성평등상담소 개설 필요
<p>교육콘텐츠 개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별 고유한 콘텐츠 연구와 개발 필요 -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교육 지원 활성화 - 다양한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필요
<p>상담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직원의 정규직화 - 상담원 처우 개선 필요 - 정규직 인력 배치 필요
<p>상담공간 개선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상담실의 업무 공간을 구별되게 두어야 함. 상담 전화 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처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 - 상담실이 대기실을 통해 들어가면 좋겠음. 상담 중 복도를 통해 불쑥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어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p>기타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나 외부 실습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대처, 사건 발생시 처리 절차를 브로셔로 제작 - 피해자에 공감하여 심의 일에 징계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 - 상담사 보호 시스템 필요함. 과중한 업무와 폭력 협박에 시달림 - 조사 및 처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위 부여 -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지가 있어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혼란스러워 함. 심의위원회의 기능 발휘와 구성원 보호를 위해 교육 필요

이어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 및 서울시에 요청하는 정책제안은 성평등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2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 내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역량강화(9), 자문기구 설치(7),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인력확충 및 지원(6), 상담사의 고용 안정화(4), 독립적인 성평등기구 설치(3), 기타(8) 순으로 응답하였다. 세부적인 정책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20)이다. 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8)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안되었다.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어 각 대학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면대면 교육방식으로 개별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등 교육 관련 콘텐츠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짧은 동영상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매해 신규 개발에 한계가 있어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교육의 무화(6)에 대한 의견도 제안되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률에 의해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만 개인에게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 교육의무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젠더감수성교육 등 성평등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관련 제도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식과 실행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강제적으로 기관장 대상 교육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교육방식 다양화에 대한 요구(4)도 제안되었다. 현재 대학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정규교과를 중심으로 전공 또는 교양과목과 연계하여 성평등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공모전이나 캠페인, 토크콘서트, 특강 등과 같이 교육방식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둘째, 성평등기구 전문인력(상담사)의 역량강화(9)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평등기구 전문인력(상담사)은 다양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폭력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담당자의 인식과 전문성에 의해 상담과 교육의 질이 좌우되므로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8)이다. 대학별 성평등기구 종사자(상담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 성평등기구 담당자들은 계약직으로 1~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어 사건처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 학생 역시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2차 피해를 겪는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저희 대학에서는 5년전에 사건 처리가 한 번 있고 없으니까.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어렵죠.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것들,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사례5 대학)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고, 이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죄목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상담해줄 수 있는 법률 상담가가 필요해요. 우리 상담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학에서도 예전에 변호사가 있긴 했었는데 계셨던 변호사 분들이 송무를 많이 안 해보셔서 오히려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절차는 겪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절차는 잘 모르니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알려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도 그렇구요. 국선 변호사를 쓰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쓰는 것도 있지만 집에 안 알리고 자기 돈 안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 변호사가 있었지만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인 간단한 것만 해줄 수 있지 경찰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불안해 하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경찰서 갔는데 ‘이거 사이버 수사대 가야해’.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를 갔더니 ‘이거 여청계인데 왜 여기로 보냈어. 여청계로 가’. 그러면 갈 때마다 남자 경찰관들이 많은데 자기 성폭력 촬영 건을 계속 틀었다는 거죠. 경찰관들이 ‘너 와서 나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 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고하러 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뭔가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2차 피해죠. 생전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갔다가 저리로 가라 했다가. 남자 경찰관 배정 받고. 자기가 나오는 동영상을 같이 봐야하고. 해명해야 하고 진술도 해야 하고. 본인이 거의 죽고 싶을 만큼 수치심이 들었던 거죠. 결국 해바라기센터로 갔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이첩되고. 그래서 결국 또 남자경찰관이 배정되었던 것 같아요(사례 6 대학).

넷째,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확충지원(6) 및 상담사의 고용안정화(4), 독립기구 설치(3)에 대한 의견이다. 이 부분은 대학 측에 대한 제안사항과도 중복되는 의견들이다. 현재 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은 대학마다 대부분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가 다양해서 독립된 기구가 설치된 대학이 아닌 경우 성평등 관련 업무는 거의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성평등 관련 상담과 관련 업무, 성평등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력 및 예산지원과 전담인력의 지위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 표 V-24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제안사항

구분	세부내용
성평등교육 교육개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교육은 법령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대상별 온라인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보급 필요 -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인식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필요 - 관련 콘텐츠의 무료 배포 사업 활성화 - 관련 동영상 자료 제작 및 보급 - 예방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 집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 함 - 콘텐츠 개발로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교육 의무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교육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자체 규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의무교육화와 교육과정 제정 필요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최근 미투 관련한 학교 측에 교육실적과 전담 기구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실적 및 전담 기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희롱 예방 차원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이러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필요 - 대학 내 교육제도 의무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제재 조치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의 점검 절차가 필요하고 필수·의무교육화 - 교육 제도화 - 각 교육기관에서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속성 있게 진행할

	<p>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이 필요(예산, 교육 진행자,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운영 지침 발송 등)</p>
<p>교육방식 다양화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이나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소규모 집단 교육 등을 확대 -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필요(토크콘서트, 특강, 캠프 등)하고 이에 대한 홍보 필수 - 이론적 교육보다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기 - 소규모 집단 교육의 확대
<p>기관장 교육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 기관장의 집체 교육 개설(강제)
<p>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역량강화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의 전문화를 위한 상담사 대상 교육 다양화 - 해당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현재 담당자의 인식과 전문성 등에 따라 교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 서비스 질이 매우 상이함 -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맞춤형 상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매년 실시되는 담당자 직무교육은 동일한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비슷한 내용을 교육받게 됨. 또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모집하여 양성하는 강사의 경우 대학에 특성화된 교육이 아닐뿐더러 양성과정에 지원하여도 경쟁률이 너무 심하여 교육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대학 실정에 맞는 강사양성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과정이 절실히 필요함 - 상담원조차 단순 교육과 심화 교육 정도로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상담사가 상담을 하여 실제 상담 영역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 - 사건 처리 및 상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전문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 전문 상담원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성평등 관련 상담사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재 조치 강화
<p>자문기구 설치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설치 -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자문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풀 구성이 필요 - 성폭력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문 기관 필요 - 사건 발생 시 전문가가 있는 자문 기구 필요 - 성폭력·성희롱 관련 전문 기관 및 전문가 배치 필요 -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 지원 형태로 수시 자문 기관 필요 - 대학 간 성평등 상담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상담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법률상담창구가 확충되어야 함
<p>성평등기구 전담인력(상담사) 인력 확충 지원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교육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방교육(교육 대상별 소규모 토론회 수업 등) 및 관련 업무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대학마다 안정적으로 보충 - 성폭력 상담실의 인력 확충 - 국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지원 필요 - 대학 내 인력 보강 절실 - 대학 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인력 및 제반 운영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 - 전문 인력 보충 필요
<p>상담사의 고용 안정화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의 고용 안정화 - 성폭력 상담사는 계약직으로 고용 안정화가 필요 -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업무 단절 및 손질을 막아야 함 - 상담원 신분의 안정화(고용 안정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인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업무 담당자의 지위 안정화 시급
<p>독립기구 설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상담센터에서 분리한 양성평등상담실의 독립 기구 필요 -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 전문 기관을 설치하는 데 지원이 필요 - 전문가가 배치된 독립적인 양성평등상담소가 개소되어야 함
<p>기타 (행정절차 개선 및 간소화 등)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상담원 외상 후 장애(트라우마) 치료비 지원 필요 -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과 교육부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 조건이 각기 달라 담당자의 일이 과잉되고 있음. 공문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따로 똑같은 것을 요구하여 업무과중(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공문서 업무중복으로 대학 상담사의 업무과중) - 대학교 내 시간강사 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대학에도 소속되지 않지만 평가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수율에 대한 기준이 모호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는 성희롱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 따라서 미투사건 등 매뉴얼 및 지침의 보완 필요 - 대학별 맞춤형 매뉴얼 공지(학생 대응 방안 등) -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카톡오픈채팅 TFT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자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 수집 후에 공론화/기사화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이슈에 대한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에 할당되는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대학별 신청 수요를 고려한 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 지원 필요

VI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방안

1. 중앙정부
2. 서울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 대학 내 성평등의식 강화 및 성평등교육 지원 정책 방안

1. 중앙정부

1) 교육부

(1) 대학별 성평등 교과목 추진현황 점검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1차(2015~2017) 및 제2차(2018~202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대학 내 성평등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대 및 사범대 교직과목에 성평등 관련 내용 편성 운영 등 예비교원(대학생)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성평등 교과목 현황과 비정규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성평등교육 경험의 교차분석을 통해 성평등 교과목 및 폭력예방교육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성평등교육 정규교과 운영현황 분석결과, 4년제 일반대 중 대규

모 대학과 일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4년제 소규모 대학(일반대), 특수대학, 신학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부분 대학에서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교대와 사범대의 전공교과 및 교직과목에서 별도로 개설된 성평등 교과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성평등 교과목은 대학생들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과목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교육부 차원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세부 교육내용, 교수자의 젠더 분야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각각 분리 표집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성평등 교과목은 여성학, 사회학, 문학 관련 전공 교·강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설학교 당국의 무지로 페미니즘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자들을 교·강사로 배치할 경우 실제 강의 내용은 여성주의적 관점과 무관하게 되며, 여성을 폄하하거나 생물학적 성차를 강화 또는 재생산하게 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이나영, 2011).

지금까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교과목 개설을 대학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학별로 성평등 교과목 개설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성평등 교과목 운영 관련 심층 분석 및 효과성 평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별 성평등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교과목이 학생들의 젠더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여성가족부

(1)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지표 개선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서울시 소재 각 대학별 대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2014년 32.0%, 2015년 35.0%, 2016년 34.4%이다. 성폭력예방교육 역시 평균 참여율은 2014년 40.4%, 2015년 39.9%, 2016년 39.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17년에는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2.9%이며, 이수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폭력예방교육이 개별 법령에 의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들에게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지표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특성상 정규교과 시간에 폭력예방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참여율은 매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대학은 학과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성이 강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매해 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은 각급학교 실적지표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지표는 대학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생 교육 참여율 배점을 높여야 한다. 2018년 각급학교 지표의 배점 구조는 직원 참여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V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폭력예방교육 지표 중 교육참여 배점(70점)은 직원 교육 배점이 64.3%(45점)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은 35.7%(25점)에 그치고 있다. 대학은 이와 같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교육 모집단이 대규모인 대학생 교육보다 모집단이 적고 교육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직원과 신규자·비정규직(특히, 시간강사)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참여 지표는 교육 모집단이 큰 학생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학생 교육 참여 배점이 현재 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표 VI-1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구분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참여(70)	10	10	20	25	5 (신규자3+ 비정규직2)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둘째, 부진기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역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진기관 해당 항목은 ①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기관장 교육 미이수, ③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이다. 그러나 학생 참여율이 부진한 대학에 대한 기준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평균 이수율은 30~4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에 포함 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가점사항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 실적 가점은 총 20점 배점으로 ①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②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③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④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⑤반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이다. 이와 같은 가점사항은 각급학교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 관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대학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성평등 교과목 개설이 저조하며,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13.3%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성평등 교과목 개설을 권장사항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가점사항에 성평등 교과목 개설수와 성평등 교과목 학생 이수율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교과목 개설 및 교육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 성평등기구의 전문성을 대학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난 한 해(2017년) 30.3%가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피해를 겪었을 때 대학 내 성평등기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에 불과하였다. 현재 대학 성평등기구는 학생들에게 유명무실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학내 성평등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처리의 전문성 부족(25.6%)이며,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19.9%)를 꼽고 있다. 대학 성평등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제고는 대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학 종사자들은 성평등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 성평등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대학 당국의 의식변화, 독립된 성평등기구 설치, 상담원 고용 안정화 및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은 성희롱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시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성평등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 **표 VI-2**와 같이 ‘고충상담기구 설치’ 평가항목을 ‘독립된 성평등기구 설치’로 개선하고, ①학생상담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성평등기구 설치, ②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관련 전문인력 배치, ④전담인력 고용형태 등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성희롱 방지조치

현행			개선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평가항목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 교육 이수	○, ×	-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총 2인 이상)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18년) 기관 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19년) 기관 고충상담원 1/2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 수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6~18년 교육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20년~)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포함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	좌동	좌동



고충상담창구 설치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권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은 제외	독립된 성평등기 구 설치	-학생상담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성평등기구 설치 여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관 련 전문인력 배 치 여부 -전담인력 고용형 태: 정규직 여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5조 사항 모두 반영시 인정	좌동	좌동

자료 : 2018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2) 대학(원) 신입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방식 개선

여성가족부는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대학(원)생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중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나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유형별 특수성과 학습권 침해와 같은 복합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이 지원하는 대학(원)생 교육은 2,3,4년제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이며, 교육시기는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기간(2월~3월)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개별 대학에 2회까지 교육지원이 가능하며, 전문강사에 의해 1시간 성폭력예방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②성폭력 피해 시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 ③데이트 폭력 및 스토키 등 피해 사례, 예방법, 대처방안 예시, ④성평등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액션플랜 나누기 등이 권장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대학(원)생 신입생 교육은 대학 내 성평등기구가 없거나 예방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원)생 신입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집합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대학은 천명 이상 신입생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재 대학별 성평등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97.1%가 대규모 집합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집체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기를 오리엔테이션 기간(2월~3월)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교육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규모 및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차등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원)생 신입생 교육지원은 각 대학마다 2회씩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규모 및 운영 형태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중에는 4년제 대규모 대학과 국립대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은 4년제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에 비해 교육예산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4년제 대규모 대학과 국립대학 보다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4년제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3) 대학생 성평등의식을 반영한 성폭력예방교육 추진

성폭력예방교육은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 대학 학제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이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생 성평등의식 실태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의 30.3%는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도 남성 응답자의 33.7%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46.7%는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고

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은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관점에서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과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성별과 대학 학제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관련 통념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제별로는 전문대가 4년제 대학 보다 성폭력 관련 통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차이를 반영하여 세부대상별 교육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학과 단위별로 성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는 학과동기(60.3%), 학과선배(43.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과 단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과 구성원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예방을 위해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2. 서울시

1) 교육내용 다각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연구

서울시는 데이트 폭력예방 및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데이트 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사업은 대학 내 성평등의식 확산과 성폭력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내용의 다각화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연구 등이 필요하다.

첫째,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데이트 폭력예방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MT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과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또한 최근에는 단톡방에서도 성희롱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권력, 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대학에서 발생한 사례, 성인지 감수성 기르기, 성평등한 대학 문화 만들기 액션플랜 등을 중심으로 대학생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식은 소규모 토론식 수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대, 사범대 등 예비교원(대학생)의 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특정 필수 교직 과목 수업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자격 취득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범대의 교육과정 내에 성평등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직과목 중 연계 가능한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교직이수자들에 대한 전략적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성평등 교과목과 연계 가능한 교직과목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이다. 본 교과는 유치원, 초, 중등학교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교육부는 2013년 교원자격검정 법령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취득

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입학자부터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본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에는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현재 각 대학에 개설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과목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로 교과목명이 편성되어 있다.

각 대학에 개설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는 전체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내용에 성희롱·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대학도 있었으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대학도 있다. 학교 성폭력은 일상에서의 성별고정 관념에 대한 성찰, 성폭력 발생의 구조적 맥락, 2차 피해의 심각성, 교사의 역할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교과는 대부분 교육학을 전공한 교·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대 및 사범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과 연계하여 ‘예비교원 맞춤형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예방교육은 토론회, 강의식 강의안이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생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과 연계한 ‘예비교원 맞춤형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교육콘텐츠 개발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사업의 성과분석 및 교육효과성 연구, 대학 성평등교육 모델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변호사(가칭)’시범 운영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문제이다. 대학 기구 종사자(상담원)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역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법률적인 절차를 몰라 2차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있어 성폭력 관련 자문기관 또는 전문가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변호사(가칭)' 지원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마을변호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이 1:1로 연결되어 있다.⁵⁶⁾ 해당 동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비용은 무료이다.⁵⁷⁾ 그러나 마을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가 아니므로 대학 성평등기구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의 지원대상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어려운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5).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6년부터 서울지역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교육지원기관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풀이 구축되어 있다. 본 사업의 강사풀에는 성폭력 관련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변호사를 중심으로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변호사(가칭)'로 위촉하여 성평등기구 종사자 및 피해 학생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변호사(가칭)'는 성평등기구 및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소송에 따른 절차와 방법, 소송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6) <http://gov.seoul.go.kr/archives/68718>(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일 2018. 8. 23.)

57) 2018. 2월 현재 424개동에 760명의 변호사 연결되어 있다.

58) http://www.help0365.or.kr/sub_1_1.php(서울해바라기센터홈페이지, 검색일 2018. 8. 23.)

3)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 대상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상담원)들은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생, 동아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부 직원에 의한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관련 전문강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 **표 VI-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표 VI-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현황

교육기관	교육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⁵⁹⁾ (16시간)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실무와 법적 쟁점 -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피해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 대학 성평등기구 역할과 과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전문과정(16시간) ⁶⁰⁾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 성희롱(성폭력) 상황 법적 인지 및 사례분석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기법 습득 및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력 증진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⁶¹⁾	- 여성학 - 여성주의 - 성폭력의 특성 및 사례연구 - 여성주의상담 등

59) <http://hrd.kcue.or.kr/>(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참가신청 안내, 2018. 5.) 검색일 2018. 8. 27.

60) <https://shp.mogef.go.kr/shp/front/anony/edu/anonyEduOmbudsman.do?menuNo=82050000>(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고충상담원교육) 검색일 2018. 8.27.

61) http://hotline.or.kr/education_apply/38155(한국여성의전화, 2018년 제3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검색일 2018. 8.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실무와 법적 쟁점,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학 성평등기구의 역할과 사건 처리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고충상담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여성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교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보다 교육시간이 길고 심화과정 형태이다. 그러나 위의 교육기관들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상담기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상담원)들은 대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의 특성과 방향, 교육대상 분석, 강의력 향상 관련 교과목을 구성하여 대학 성평등기구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외 50개 대학, 대학요람 및 교과과정 현황

김차선·정민·염순정·박정환(2016),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효과-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강창동(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8권 제2호

강희순·이은숙(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7호 제3호.

김남희·박유진·정현숙(2015), 「대학생의 성지식,성태도 및 성행동(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심리행동연구 제7권 제2호.

김미덕(2014), 「대학의 여성주의 교육과 남학생들의 저항」,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제17권1호.

김수경(2016),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10권 제3호.

김영희(2015),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진단 및 분석.

김영희·강혜원(2009), 「경기대생의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학 제16호.

김영희·문승태·강희순(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김원경(200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은주·김근면·최경원·김상숙·임지영(2014),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가정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김정아·구해경·현명호(2013),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통념과 공감능력 및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사회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김주현·최경혜·박복순·윤성자·김현주·장경실·최형진·김경희(201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와의 관계분석」, 근과절건강학회지 제24권 제3호.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2016), 2016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 우수사례 심포지엄.

- 교육부(2018), 보도자료(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
- 나윤경(2005),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성: 여자대학교와 남녀공학대학교를 경험한 여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2호.
- 나윤경·노주희(2013),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2013 여성학논집 제30집 2호.
- 박선미·송원영(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7권 2권.
- 배유경(201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화옥·최재희(2013),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 성폭력 경험의 관계 및 공격성의 매개 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3(1).
- 서울시(2016), 보도자료(서울시-고려대 등 5개 대학, 데이트 폭력근절 교육·캠페인).
- 서울시(2017), 보도자료(서울시, 대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신청하세요).
- 서울시(2018a),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 서울시(2018b),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운영계획」.
-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서울대학교 여교수회(2017)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정책: 현황 확 전망 (2017 다양성 정책 포럼 자료).
- 송인자(2016),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특성화 방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자료.
- 신상숙·배은경·남은경·이윤상·장다혜·김서화·오혜진(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심미영·안성아·이들녀(2014), 「대학생의 양성평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집 3호.
- 안상수·김인순·김금미(2016),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박성정·최윤정·김금미(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태윤·신정아(2017), 「경기도 대학생 성폭력예방 및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5),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6), 2016 양성평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17a), (보도자료)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발표(2017. 10. 10.).
- 여성가족부(2017b), 2017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2017c),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2018b), 2018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201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매뉴얼.
- 유문숙·박지원·유미애(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6권 제1호.
- 유혜숙(2016),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문」, 2016 한국교양교육학회계학술대회 발표문.
- 윤숙자·변은경(201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 윤은자·권혜진·김현정(2012a),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주관성」,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3호.
- 윤이경(2016), 「대학 내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3호.
- 윤진·양승연·박병금(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 이나영(2011), 「한국여성학의 위치성-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27권 4호.
- 이명신(2014), 「성희롱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제7권1호.
- 이미정·장미혜·김보화(2012),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장미혜·정수연·허은영(201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흠(2010),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유형이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8권 4호.
- 이수연·이혜림·강혜란·김미경·김하얀(2014),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란·김경미·최소은(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 이영애(201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중·소도시 대학생들에 대한 시계열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권 1호.
- 이은숙·강희순(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2014)»,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0권 제1호.
- 이혜숙(2013), 「대학사회 성평등 정책과 젠더정치-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 이혜숙(2017), 「남성중심적 대학, 성평등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대학학회 대학담론과 쟁점 통권 3호.
- 이화숙(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 임애정(2011), 「대학공간에 대한 권리와 여성-부산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 임채영 · 정소영 · 이명신(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5권.
- 장미혜 · 강민정 · 김난주 · 박건표(2014),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영은 · 성미영 · 권희경(2011),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과 교육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4호.
- 정소영 · 임채영 · 이명신(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집 4호.
- 정은숙(2015),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 정춘아 · 주용국(2017),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과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제9권 제2호.
- 정현미 · 장명선 · 한지영 · 이희진 · 이영희 · 박운진 · 김명숙(2015), 「성희롱 2차 피해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해숙 · 마경희 · 최윤정(2013), 「초중고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자경(2017a),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자경(2017b), 「2018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최종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자경(2018), 「2018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착수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덕경 · 최동숙 · 강기정 · 유을용 · 변미희(2004), 「중부지역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1호.
- 최문선(2011), 「사회과 예비교사의 젠더인식과 교사교육」, 사회과교육 제50권제1호.

- 최인숙·김정인(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 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0권 3호.
- 최지연·김동영·김효남·이경화·방정숙, 「초등예비교사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수준」, 한국실과교육협회 제22권 제2호.
- 추병식(2015), 「남녀 대학생 성 각본의 질적 분석: 이중기준의 유지와 균열」, 청소년문화포럼 42권.
- 하혜숙(2010a),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분석 연구-교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 하혜숙(2010b),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부정적 정서가 미치는 영향분석- 교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권 1호.
- 하혜숙·박성혁(2008),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사건 현황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 홍성수(2011),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가톨릭대) 제15집(일반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ho Ja Khyung

The recent sexual harassment/violence incidents in universities have become a chance for us to look back on the awareness level of gender equality in our society. In order to decrease the problems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in universit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City are reinforcing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However, for las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a restructuring problem with the degree course of Women's Studies, and the students who take Women's Studies as liberal arts, interdisciplinary course, and double major start numerically decreasing. Moreover, as universities organize the curriculum more focusing on employment,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not fully performed.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by concretely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us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focusing o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ity.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n top of conducting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university gender equality policy system,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lik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Seoul City. Also, to research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 survey on the actual awareness status of gender equalit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1,000 male and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fter that,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focusing o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established as regular curriculum, and the current status of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operated as non-curriculum program were analyzed. Lastly,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performed targeting gender equality organizations within universiti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ounseling & case processing related to sexual harassment/violence, current status of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current status of gender awareness educational program, difficulties in work process, and opin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violence and the vit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results of researching the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he gender role stereotype was more highly shown in men than women. As the age got higher, it was increased as well.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rcentage of female students in department was higher, and in humanities/social science major areas, the gender role stereotype was low.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showed the lower gender role stereotype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complete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However,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did no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lief of gender role stereotype. Regarding the perception of sexist social structure and gender equality policy,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 In each type of university, women's universities were higher than coeducational universities. Regarding each type of educational experience,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showed the significantly higher perception of sexist social structure and gender equality policy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complete the relevant subjec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between students who complete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and students who did not. Men showed higher

conven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than women. In terms of each university school system, junior colleges were higher than four-year-course universities.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relief of conven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Regarding the experience in taking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only 13.3% students out of the whole research subjects took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as liberal arts or major curriculum. Also, 20.8% students complete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besides the gender equality subjects(regular subjects) in the current universities for last one year. Overall, the completion rates of gender equality subject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were pretty low.

In terms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university students, women were higher than men in all the areas. About 45.2% of female student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s while about 11.7% of male respondent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s. Also, about 30.3% of the whole respondents experienced sexual violences at least once or more in universities for last one year. The average number of experience was 2.5 times. The sexual violence assailants were like classmates in the same department(60.3%), senior students in the same department(43.9%), senior students of club(16.4%), club mates(10.8%), professors in the same/other department(9.2%), and junior students in the same department(7.9%) in order.

However, in case when encountering such experiences above, only 1.3% students used the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Gender Equality Center, Student Life Counseling Center and etc.) in school. The main reasons for not using the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in school included a lack of expertise in case processing(25.6%), which was followed by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s(19.9%), no knowledge about the existence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organization in school(17.3%), and the absence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organization in school(11.3%).

Meanwhile,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operated as regular course in each university showed huge deviation in accordance with school size, type, and system. The gender equality subjects were variously operated in liberal arts and major course focusing on large-size universities and women's universities out of four-year-course universitie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subjects was very insufficient in small-size universities, four-year-course special universities, and theological universities out of four-year-course universities. Compared to four-year-course universities, junior colleges showed the poor level of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subjects in regular curriculum. Also, th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which would be the center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non-curriculum program in universities was low as well.

In the current status of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violence focusing on university gender equality organization, about 60.0% of the subject universities installed an attached organiz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violence or the relevant work was handled in the center. Only 37.1% universities had an independent counseling center, and in about 2.9% universities, the intramural administrative institutes like academic affairs office and students affairs office took in charge of the relevant work. Just 31.4% universities assigned additional staffs in charge of counseling and educ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violence while general counselors handled the work related to sexual harassment/violence in 57.1% universities. Moreover, in 11.5% universities, general administrative staffs handled the work.

The policy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supporting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universities could be viewed in the division in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City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inspect the gender equality subject in each university, establish the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improve the result checking-index of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improve the methods to support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new students of universities(graduate schools), and provide the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reflecting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Seoul City should diversify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current project 「Safe Seoul Gender-Equal Campus」 , develop/research the educational contents, execute a trial operation of lawyers for Safe Seoul Gender-Equal Campus(tentative name), and reinforce the competencies of employees of gender equality organizations within universities.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ID (실사관리번호)

※ NO (입력아이디)

대학생 성평등의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결과는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 본인 뿐만 아니라 귀하의 소속 대학의 명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성주류화지원센터 조자경 (02-810-5085)
▶ 조사수행 : (주)소프트하우스코리아 김현욱 연구원(070-7163-3290)

SQ1. 대학명		SQ2. 성명/연락처	/
SQ3. 대학 유형	1) <input type="checkbox"/> 남녀공학		2) <input type="checkbox"/> 여자대학
SQ4. 학제	1) <input type="checkbox"/> 2년제 대학		2) <input type="checkbox"/> 4년제 대학
SQ5. 학년	1)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1학년 3)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3학년		2)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2학년 4)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4학년
SQ6. 성별	1) <input type="checkbox"/> 남자		2) <input type="checkbox"/> 여자

A. 의식

1.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1-1. 다음은 귀하께서 성역할 및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대해 평소 갖고 계시는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해 각각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①	②	③	④
4)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5) 여자의 본분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남자 교수가 여자교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성별 능력 차이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7) 이성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사회 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인식

1-2. 다음은 사회구조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해 각각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의 가사·육아 책임이 현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나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한 후 복직하여 나보다 먼저 승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3) 경찰, 군인, 소방 등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①	②	③	④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야 한다.				
4)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근로자에게 동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민간 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과 같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성평등 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폭력에 대한 인식

1-3.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해 각각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2)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6)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B. 교육경험

2-1. 귀하의 학교에는 성평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

- ① 개설되어 있다 ②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 **성평등 관련 교과목** :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사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의 문제, 여성이 가사·양육을 전담하는 것의 문제, 직업 선택이나 직장 내에서 각종 성차별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교과목 예시〉

여성학 개론, 페미니즘의 이해, 미디어와 젠더, 역사 속의 여성과 여성문화, 젠더와 법, 과학기술과 젠더, 성(sexuality)과 정치, 가족과 젠더, 법여성학, 문학과 젠더, 성(sexuality)의 사회학적 구조 등

2-2. (2-1의 보기 ①에 응답한 경우) 여성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귀하는 그 강좌를 수강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수강한 적이 있다(개 과목 수강) ② 수강한 적이 없다

2-3. 귀하께서는 현재 다니고 계시는 학교에서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 ① 전혀 평등하지 않다 ➡ 2-4 문항으로 이동
②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 ➡ 2-4 문항으로 이동
③ 대체로 평등하다
④ 매우 평등하다

2-4. (2-3에서 보기 ①,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현재의 학교가 남녀평등하지 않다고 보신다면, 남녀평등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① 학교문화와 관행이 남자교수나 남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② 교수 및 강사들이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③ 학내 활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활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④ 해외 탐방·교환학생·인턴 체험 등의 기회가 남학생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⑤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⑥ 여학생의 리더십이 남학생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3-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여성이 매우 불평등함	여성이 대체로 불평등함	남녀 평등한 편임	남성이 대체로 불평등함	남성이 매우 불평등함
1) 경제 활동(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2)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3) 승진(관리직 진출)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기회	①	②	③	④	⑤
5) 정치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7) 복지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관습)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년 5월~ 2018년 4월) 학내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한 경험여부를 선택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경우 해당 항목 별로 그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피해 경험이 모두 없으신 분은 문 3-10으로 바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항목	있음	없음	횟수
1) 가벼운 성적 농담(섹시하다는 표현 등)	①	②	
2) 짙은 성적 농담(음담패설 등)	①	②	
3)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①	②	
4)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공개적 질문	①	②	
5)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	①	②	
6) 심한 신체 접촉(엉덩이, 가슴, 껴안기 등)	①	②	
7) 야한 잡지, pc 화면, 이메일 등으로 성적 사진을 보여 주거나 노출	①	②	
8)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①	②	
9)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①	②	

3-4. (문3-3의 사례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의 신분을 골라

○표시하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

- | | |
|----------------------|----------------|
| ① 학과 동기 | ② 학과 선배 |
| ③ 학과 후배 | ④ 대학원 선배 |
| ⑤ 동아리 동기 | ⑥ 동아리 선배 |
| ⑦ 동아리 후배 | ⑧ 학과 및 타학과 교수님 |
| ⑨ 시간 강사 | ⑩ 교직원 |
| ⑪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3-5. (문3-3의 사례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 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3-7 문항으로 이동
- ②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 ③ 당시에는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에 대학 내 성폭력상담센터에 알렸다.
- ④ 당시에는 대응을 못하고 학과/동아리 내에서 비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3-6. (문3-5 보기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성폭력 피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소리내면 남이 알까봐
- ③ 술이나 잠에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 ④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 ⑤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나 상해를 입을 것 같아서
- ⑥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 ⑦ 불이익/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 ⑧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못해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7. 귀하께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 등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8 문항으로 이동
- ② 없다 ☞ 3-9 문항으로 이동

3-8. (문3-7 보기 ①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양성평등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 등을 이용한 경우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었습니까? ()

- ① 잘 처리되었다
- ②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 ③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중이다.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9. (문3-7 보기 ②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성폭력상담소(양성 평등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서
- ② 학교 내에 성폭력상담 관련 기구가 없어서
- ③ 학교 내에 성폭력상담 관련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 ④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10.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생간의 성폭력 ② 교수의 성폭력(성희롱 포함)
- ③ 데이트 폭력 ④ 기타(적어주십시오:)

3-11. 귀하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가 주력해야 할 예방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 ② 정규교과목 내 성평등 관련 교과목 신설
- ③ 성폭력예방 캠페인
- ④ 성폭력 발생시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
- ⑤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대학교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 도시 서울’ 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각 대학교의 성평등 관련 기구(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등)이며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현황, 상담 및 사건 처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결과는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 본인 뿐만 아니라 귀하의 소속 대학의 명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조사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성주류화지원센터 조자경 (810-5085)

I. 일반사항

1. 귀 대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1) 4년제 대학교 2) 2년제 대학교

2. 귀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가 존재한다면, 현재 어떤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있다 (한다)	없다 (안한다)
1)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①	②
2) 학생상담센터 등에 부설된 성폭력 상담기구	①	②
3)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관련 업무 함께 담당	①	②
4) 교무처, 학생처 등 학내 행정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	①	②

3. 다음은 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귀 대학에서의 실시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업무		실시 한다	실시하지 않는다
상담	1) 개별면접상담	①	②
	2) 집단면접상담	①	②
	3) 전화상담	①	②
	4) 온라인상담	①	②
사건처리	4)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	①	②
	5)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①	②
	6) 가해자 징계	①	②
	7) 피해자 각종 치료 지원	①	②
	8) 법률 자문	①	②
교육	9)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대규모 집합교육)	①	②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업무		실시 한다	실시하지 않는다
10) 학생대상 소규모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①	②
11) 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①	②
12) 학생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⁶²⁾ (특강 등)		①	②

II.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현황

4. 귀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에서 최근 1년간(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폭력예방교육 제외)을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5. 귀 대학에서 최근 1년간(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폭력예방교육 제외)을 진행한 적이 있으시다면 프로그램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 가족, 학교, 직장, 일상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사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의 문제, 여성이 가사·양육을 전담하는 것의 문제, 직업 선택이나 직장 내에서 각종 성차별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 등을 의미합니다.

6. 귀 대학은 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 1) 0회 2) 1회 3) 2회 4) 3회 5) 기타()회

7. 귀 대학의 2017년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 미만
2) 10% ~ 30% 미만
3) 30% ~ 50% 미만
4) 50% ~70% 미만
5) 70% 미만
6)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8. 귀 대학에서 지난해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추진했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데이트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4) 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을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지난해 실시한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중 참가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교육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전문강사교육(집합) 2) 일반강사교육(집합) 3) 사이버교육 4) 시청각교육(집합)
5) 내부직원교육(집합) 6) 기타(구체적으로:)

10.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교육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 3) 수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육내용에 무관심하다.
- 4) 매우 부정적인 태도이며, 교육내용에 반발한다.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1.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1) 실시하고 있다. 2) 실시하지 않고 있다.

12.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학교의 예산지원 부족
- 2) 강사 섭외의 어려움
- 3) 학생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4) 학생들의 무관심
- 5) 다른 업무가 많아서 교육에 신경쓰기 어려움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3. 대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제재조치 마련
- 2) 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지원
- 3) 다양한 교육자료, 동영상 등의 개발
- 4) 소집단교육을 위한 예산확대

5) 기관장의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Ⅲ. 상담 및 사건 처리

14. 귀 대학에서 최근 진행한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위 () 2순위()

- 1) 성희롱·성폭력에의 대처방법(신고처,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
- 2) 본인의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의뢰
-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 4)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식절차 요건에 대한 문의

15. 귀 대학에서 상담활동은 어떠한 편입니까?

- 1)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 3)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6. 학생들의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 2)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낮기 때문에
- 3)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 4) 대학 측의 지원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 5)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에
-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17. 학생 간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공식, 비공식 처리 모두 포함)

1순위() 2순위()

- 1) 피신고인의 비협조적인 태도
- 2) 사건 관계 확인의 어려움(예: 관련 증거 및 진술의 부족)
- 3) 사건 성격의 모호성(예: 성희롱 성립여부 판단의 어려움)
- 4)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모호성
- 5) 법적 절차 진행(민형사 고소 병행되는 경우)
- 6) 학교 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
- 7) 신고인의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8.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혹은 일반 직원(또는 상담사)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병행합니까?

- 1) 성희롱·성폭력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 2) 일반 상담 담당 상담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병행한다.
- 3) 일반 행정직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병행한다.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9.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측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상담,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조자경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